

리아호나

표지 이야기: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라,
10쪽

직장을 찾아, 삶을
고양하며, 42쪽

십일조는 어디에
쓰일까요? 친8쪽





“나의 복음을 전파하러는 선교사들에게 좀더 큰 노력을 요구할 것입니다.”라고 고든 비 헝클리 회장은 위성 방송을 통해 선교부 회장들에게 말했다. “많은 기도와 많은 공부를 요구할 것입니다. ... 개종 과정에서 좀더 나은 가르침이 있다면 침례 받는 사람들이 좀더 많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라”, 10쪽 참조

리아호나



표지
모델 사진 촬영: 매튜 라이어.



친구들 표지
삽화: 마크 로비슨.

성인

- 2 제일회장단 메시지: 감사의 심오한 힘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16 개인적인 헌납 스티븐 비 오브슨 장로와 딕시 랜들 오브슨
- 22 교리와 성약 시대 개관: 도표 3-138편 및 공식 선언 1, 2
- 25 방문 교육 메시지: 물문경과 더불어 기뻐하라
- 26 십이사도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 36 가족 강화: 가족 생활의 행복
- 38 후기 성도의 소리
우리는 그 애의 병 고침을 기뻐했습니다 막달레나 페냐테 데 게라
그들을 쫓아버리겠어 존 하이로 문도우야
어떻게 그들이 나를 용서할 수 있었어요? 앤젤리크 페트릭
- 42 직장을 찾아, 삶을 고양하며 닐 케이 뉴얼
- 48 애독자 편지

청소년

- 9 나의 영어 수업에 온 장로들 아넷 말즐 범
- 10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라 새나 버틀러, 아담 시 올슨, 로저 테리
- 21 아이디어 목록: 세미나리 성구의 힘
- 31 포스터: 결승점
- 32 성공적인 가정의 밤을 위하여 아담 시 올슨
- 47 알고 계십니까?

하늘 문, 친10쪽 참조

어린이: 친구들

- 친2 와서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라: 악마의 목구멍을 피함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
- 친4 함께 나누는 시간: 올바른 길을 택하여 행복해지십시오 마가렛 리퍼스
- 친6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의 생애에서: 푸른 옷을 입은 소녀
- 친8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십일조는 어디에 쓰일까요?
- 친10 하늘 문 마리엔 달 존슨
- 친14 친구가 친구에게: 간증을 얻은 새벽 몬트 제이 브러프 장로
- 친16 경전을 공부하는 방법



31쪽 "결승점" 참조



그림: 켄 코벳, 지혜의 말씀이 계시되다

신지자 조셉 스미스는 1833년 2월 27일 오후 2시 오하이오 주 키틀랜드에서 신지자 학교 모임을 갖는 동안 지혜의 말씀으로 알려진 교리와 성약 89편을 받았다. 이 계시는 신지자가 장로들이 담배를 피우고 씹는 것에 관해 그리고 더러워진 마루를 청소했던 에머 스미스를 배려해서 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졌다.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입니다

제일회장단: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십이사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페리, 라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엘 라셀 벨라드, 조셀 비 위스틴, 리차드 지 스킵트, 로버트 디 해일즈, 제프리 알 홀린드,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편집인: 제이 이 켈슨
고문: 몬티 제이 브러프, 게리 제이 콜먼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프리스네호트
기획 및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잡지 편집 책임자: 리차드 엠 톨니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편집 스태프: 클러트 네베커 오운, 수잔 브렛, 새나 버틀러, 라이언 카, 린다 스칼 쿠퍼, 라렌 포터 콘트, 제니퍼 엘 그린우드, 알 발 존슨, 캐리 카스텐, 멜빈 레빗, 샬리 제이 오데커, 아담 시 울슨, 유디스 엠 팔러, 비비안 폴슨, 돈 엘 셀, 레베카 엠 테일러, 로저 테리, 재닛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외델, 킴벌리 웹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엠 기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코트 밴 캠펜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하워드 지 브라운,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안슨, 캐서린 허워드, 데니스 커비, 타드 알 피터스, 랜달 제이 픽스톤, 캐리 에이 토드, 클라우디아 이 워너

마케팅 부장: 래리 윌러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윅크
배부 책임자: 크리스 티 크리스티안슨

통 권: 제 474호, 제 42권, 제 9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5년 9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홍무광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ward/부과 변경된 주소를 배부부(☎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히타이어, 헝가리어, 힌디어(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 2005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September 2005 No. 9.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이 페이지는 여러분이 리아호나를 사용하여 밤이나 가정에서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영어 수업에 온 장로들”, 9쪽: 가족들에게 교회의 가르침에 관한 질문을 받은 때에 대해 말해 보라고 부탁한다. 아넷의 경험을 읽고, 그녀가 복음을 나누기 위해 한 일에 대해 토론한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나눌 때, 그분을 신뢰할 필요가 있음을 간증한다.

“개인적인 헌납”, 16쪽: 이 기사에 언급된 헌신의 예들을 목록으로 만든다. 가족에게 이 예들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 설명해 달라고 부탁한다. 가족이 좀더 충실하고자 원하는 복음 원리를 선택하고 이 결심을 실천할 방법을 계획한다.

“십이사도를”, 26쪽: 사도에 대해 설명하는 이 기사 가운데 몇 개의 문장을 선택한다.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지 가족이 맞힐 때까지 각 문장을 읽는다. 오늘날의 사도들의 사진을 보여 줄 수도 있다. (리아호나, 최근 5월호나 11월호 참조) 사도의 역할에 관해 말하는 기사의 일부를 소리 내어 읽는다. 마지막 세 문단을 다시 살펴보고, 교리와 성약 132편 45절에 나와 있는 약속에 대해 간증한다.

“악마의 목구멍을 피함”, 친2쪽: 줄이나 테이프를 이용하여 마루에 선을 긋는다.

선의 한쪽 편에서 있는 사람이 손을 뻗쳐서 닿지 않는 지점에 물건을 놓는다. 그 사람에게 선을 넘어가지 말고 그 물건을 집어

보라고 한다. 이 기사를 사용하여 사탄이 어떻게 우리에게 선을 넘어가도록 유혹하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하늘 문”, 친10쪽: 가족 중 누가 입어도 작을 옷 한 벌을 보여 준다. 가족에게 그 옷을 입으면 어떤 것 같는지 상상해 보라고 한다. 이 이야기를 읽는다. 완전한 십일조를 내는 것의 축복에 대해 토론한다. 십일조를 내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하늘 문을 열어 주었는지에 관한 경험을 말한다.

이번 호의 주제들

친 친구들	선교 사업, 9, 10, 16,
가르침, 1, 10, 36	25, 친14
가정 복음 교육, 8	성신, 10
가정의 밤, 1, 32	성전과 성전 사업, 16
가족, 36, 친4	세미나리, 21
간증, 38, 친14	스미스, 조셀, 친4
감사, 2	산권, 26
개종, 38	십일조, 16, 친8, 친10
견담, 31	어린이, 2
경전 공부, 21, 22, 25,	용서, 38
친16	유혹, 친2
교리와 성약, 22	장애, 2
교회 역사, 22, 47	정직, 친4
금식, 16	죽음, 2
맥케이, 데이비드 오, 친6	준비, 10
몰몬경, 25	지도력, 26, 47
방문 교육, 25	초등학교, 친4
병 고침, 38	취업, 42
보호, 친2	친절, 친6
봉사, 16, 36, 42, 47	헌납, 16
부부 선교사, 16	희망, 42
사도, 26	



감사의 심오한 힘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예 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의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¹

다윗은 시편 30편에서 이렇게 서약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어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²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³

데살로니가인들에게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 하나님의 뜻이니라”⁴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와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잠시 멈추어서 암몬의 말을 숙고해 봅시다. “이제 나의 형제들아,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땅에 있든지, 모든 백성을 생각하심을 우리가 보나니, 참으로 그는 자기 백성을 헤아리시며, 그의 자비의 심정은 온 땅 위에 있도다. 이제 이는 나의 기쁨이요, 내 큰 감사이니, 또한 내가 영원토록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리로다.”⁵

지난 시대의 저명한 사업가였던 로버트 더블류 우드럽은 미국 전역을 순회하면서 “인간 관계 요약 과정”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강연에서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단어는 “땡큐(Thank you)”라고 말했습니다.

그라시아스, 당케, 메르씨 — 어떤 언어로든지 자주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쓰게 되면 여러분의 기분이 밝아지고, 우정의 폭이 넓어지며, 완전을 향한 여정에서 여러분은 보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에는 간결함은 물론 “진실함” 까지도 있습니다.

감사의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고 설득력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몇 년 전의 한 신문 기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왼쪽 그림: 조 스톨, 감사드리는 나병 환자, © OLEEBOR WORLD PRINTING, 복사 금지; 오른쪽 사진: 촬영: 버니 포토그래피

콜롬비아 경찰청에서는 금요일에 주인 없는 자전거 100여 대를 경매에 붙였다. 첫번째 자전거가 올라오자, 11세 된 한 소년이 “1달러”를 불렀다. 그러나 응찰 가격은 훨씬 높이 올라갔다. 매번 새로운 자전거가 올라올 때마다 이 소년은 기대에 차서 계속 “1달러”를 불렀다.

43년 동안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자전거 경매를 해 온 경매인은 경주용 자전거가 올라올 때마다 그 소년의 기대가 더욱 부풀어 가는 모습을 보았다.

결국 자전거가 한 대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응찰가는 8달러까지 올랐다. “저기 저 소년에게 9달러에 낙찰되었습니다!”라고 경매인이 말했다. 경매인은 자기 주머니에서 8달러를 꺼낸 뒤 소년에게 1달러를 달라고 했다. 그 소년은 1센트, 5센트, 10센트, 25센트짜리 동전까지 털어 준 뒤 자전거를 끌고 그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몇 발자국 가지 않아서 자기의 새 물건을 조심스럽게 세워 놓은 다음, 그 소년은 돌아와서 감사의 마음으로 경매인의 목을 꼭 껴안은 채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가 이 소년처럼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마지막으로 가졌던 게 언제입니까? 우리를 위해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그다지 감동적이지 아닐 수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감사를 표해야 할 친절한 행위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자주 불렀던 노래는 우리 영혼 깊숙히 감사의 영을 심어 주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휩쓸어
 잃은 것을 생각해 낙심할 때
 내가 받은 복을 모두 세어라
 주의 크신 복에 내가 놀라리⁶

우주 비행사인 고든 쿠퍼는 40여 년 전 지구 궤도를 도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아름답고 간결한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버지시여, 특별히 제가 이렇게 비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기묘하고 아름다운 만물을 볼 수 있게 해주신 특권에 감사드립니다.”⁷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축복에, 헤아릴 수 없는 은사에 ... 책과



우주 비행사인 고든 쿠퍼는 지구 궤도를 도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버지시여, 특별히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기묘하고 아름다운 만물을 볼 수 있게 해주신 특권에 감사드립니다.”

음악과 그림과, 이 축복들을 누리게 해준 위대한 발명품들에, 어린이들의 웃음에, 인간의 고통을 덜어 주고 인생의 기쁨을 높여 주는 모든 수단들에, 우리를 고양시켜 주는 모든 훌륭한 것들에 감사드립니다.”⁸

선지자 엘마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의 행하는 모든 일을 주와 의논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유익하도록 지도하시리라. 참으로 내가 밤에 누울 때 주께로 누워, 그로 내가 자는 동안 너를 지키시게 하고,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네 마음이 가득 차게 하라. 이렇게 하면 마지막 날에 네가 들리움을 받으리라.”⁹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해주고, 선행을 하도록 격려해 주며, 우리 시대의 도전들에 하늘의 축복을 더 가까이 가져올 수 있게 한다고 제가 믿는 세 가지 예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번째, 우리를 낳아 주시고, 길러 주시고, 희생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행복의 계획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 애쓰신 부모님들께 감사를 표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시내 산에서 우리의 양심에 천동 같은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¹⁰

저는 구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에 대하여 하신 표현보다 더 훌륭한 표현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¹¹

두 번째, 우리는 배우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을 키워 주고, 명예롭게 살겠다는 결심을 마음속에 갖도록 해준 학교나 교회의 선생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었기에 그 영향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느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던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관한 것입니다. 한 사람은 자신에게 영국의 계관 시인 테니슨을 알게 해준 고등학교 여선생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여선생님에게 감사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선생님으로부터 힘 없이 흘러 쓴 글씨체의 답장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윌리에게

윌리 군의 편지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나는 조그만 방에서 혼자 지내고, 음식도 혼자 해 먹어야 하는, 이제는 마지막 잎새처럼 외로이 사는 80대의 늙은이가 되었어요. 내가 50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해 왔는데, 감사의 편지를 받은 것은 윌리 군에게서가 처음이라는 걸 알면 윌리 군이 흥미로워 하겠지요. 우울하고 추운 어느 아침에 날아온 그 편지는 오랫동안 웃음을 잃었던 내게 행복을 주었어요.”

과거나 현재나, 자신들의 너무나 많은 부분을 주심으로써 우리들은 오히려 너무 많이 갖게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는 영원한 감사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동료들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십대 시절은 부모뿐 아니라 십대인 자신에게도 어려운 시기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소년이나, 소녀의 인생에서

힘든 시기입니다. 소년은 축구팀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소녀는 미의 여왕이 되기를 바랍니다. “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¹²는 말씀이 여기에 적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몇 년 전 솔트레이크 부근의 머레이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로, 모두가 승자이고, 패자는 한 명도 없었던 현대판 기적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느 신문 기사에 이 사건이 집중 부각되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눈물, 환호, 그리고 참된 정신: 학생들이 장애 여학생 두 명을 머레이의 여왕으로 선발하다”였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테드와 루스 아이어 부부는 어느 부모처럼 부모로서 할 일을 했다.

“그들의 딸인 셸리가 머레이 고등학교 여왕(Home Coming Queen)선발 결선까지 올라갔을 때, 그들은 딸에게 뽑히지 못할 경우 멋지게 승복하라고 조언했다. 그들은 열 명의 후보 가운데서 단 한 명만이 여왕으로 선발된다고 설명해 주었다. ...

여 왕으로 뽑힌 딸의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무대에 오르자, 이 학교의 교감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 학생들은 내적인 아름다움에 투표했습니다. ...”



사 고가 일어났던
집 앞으로
애도의 차량
행렬이 길게 꼬리를 물고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차를
모는 동안, 우리는 거룩한
땅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학교 체육관에서 학생회 임원들이 학교의 여왕에게 왕관을 수여할 때 셀리 아이어는 탈락자가 아닌 여왕으로 뽑힌 것이다. 동료 학생들이 선천성 다운 증후군이었던 3학년생을 여왕으로 뽑은 것이다. … 후보자들이 소개되고 테드 아이어가 딸을 데리고 체육관으로 입장하자, 체육관에서는 고막이 터질 듯한 환호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들은 관객들의 기립 박수로 환호를 받았다. …”

셀리를 뒤따라 나온 학생들에게도 이같은 기립 박수가 이어졌는데, 그 중에 한 명인 에이프렐 퍼슨은 열 살 때 겪은 뇌출혈로 신체 및 정신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기립 박수가 멈추자, 이 학교의 교감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 학생들은 내적인 아름다움에 투표했습니다. …” 감격한 부모와 학교 당국자들과 학생들은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그들이 나오는 걸 보자마자 눈물이 나왔어요. 머레이 고등학교가 정말 멋진 일을 해냈다고 생각해요.”¹³

저는 그날 저녁을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으로 만들어 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드립니다. 스코틀랜드의 시인 제임스 배리의 다음 시구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12월에 6월의 장미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억을 주셨다네.”¹⁴

몇 년 전 뜨거운 8월의 어느 날, 솔트레이크 카운티에서 한 가지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방 및 전국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던 내용입니다. 아주 어리고, 아주 활기차며, 아주 사랑스러운 소녀 다섯 명이 숨바꼭질 놀이를 하다가 어느 부모님의 차 트렁크에 들어갔습니다. 트렁크의 뚜껑이 닫혔고, 탈출할 수 없었던 아이들은 열사병으로 모두 사망했습니다.¹⁵

지역 전체가 그 어린 다섯 소녀의 죽음에 온정 있고 사려 깊은 태도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에게 꽃과 음식이 전달되고 전화와 방문과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그 참혹한 사건이 일어난 다음주 일요일, 사고가 일어났던 집 앞으로 애도의 차량 행렬이 길게 꼬리를 물고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저희 부부도,

이렇게 애도의 뜻을 표하는 사람들 속에 있고 싶었습니다. 차를 모는 동안, 우리는 거룩한 땅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길을 따라 문자 그대로 달팽이의 속도로 움직여 나갔습니다. 마치 “절대 감속, 어린이 놀이터”라는 교통 표지판이 눈 앞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넘쳐 흘렀으며, 우리의 마음에서는 연민의 정이 넘쳐 나왔습니다. 세 가족 중 두 가족은 그들이 가진 자녀를 모두 잃었습니다.

종종 죽음은 침입자처럼 쳐들어옵니다. 적군처럼 인생의 향연 중간에 갑자기 나타나 빛과 유쾌함을 앗아가 버리기도 하고, 힘들게 걸음을 옮기는 노인에게 찾아오기도 하며, 아직 인생의 절반도 살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소환장을 보내고, 종종 어린아이의 웃음을 잠재워 버리기도 합니다.

그 어린 다섯 천사의 장례식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입 밖에 내는 말에서 지워 버려야 할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기만 하다’면 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비생산적이고 치유와 평안의 영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입니다. 오히려, 잠언의 다음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¹⁶

관이 닫히기 전에 저는 각 어린이가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 안기 좋은 부드러운 선물을 하나씩 꼭 안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인인 유진 필드의 시가 떠올랐습니다.

먼지에 덮인 조그만 장난감 강아지
충실하고 긴장하게 서 있다.
발갹게 녹이 슨 병정
소총을 든 채 서 있다.
조그만 장난감 강아지가 새것이었을 때
그 병정이 행진을 했을 때
그때 우리의 리틀 보이 블루가 그 장난감들에 입맞추고
그곳에 두었었다.
“자, 내가 올 때까지 가면 안 돼”,
“그리고 시끄럽게 하지 마!”
그는 바퀴 달린 침대로 아장아장 걸어가



예쁜 장난감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천사의 노래 소리가
우리의 리틀 보이 블루를 깨웠다.
해가 바뀌고 또 해가 바뀌었지만,
조그만 장난감 친구들은 진실하다!
리틀 보이 블루에게 충실한 이 장난감 친구들,
바로 옛 그 자리에서,
조그만 손길을 기다리며,
조그만 얼굴의
미소를 기다리며 서 있다.
장난감 친구들은, 그 조그만 의자의 먼지
속에서,
이 긴 세월을 기다리면서,
입맞춤하고 간 우리의 리틀 보이 블루가
어찌 된 것일까 생각하고 있다.¹⁷

**시인은 죽은 그들의 작은
주인에 대해 궁금해 하는
남겨진 장난감들에 대해
썼습니다. 한없이 자비로운
하나님은 비통에 빠진
사랑하는 이들이 궁금해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린 장난감 강아지와 장난감 병정은 궁금해 할지 몰라도, 한없이 자비로운 하나님은 비통에 빠진 사랑하는 이들이 궁금해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찾도록 영감을 주시며, 팔을 벌리고 여러분을 안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통에 빠진 모든 이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¹⁸

참된 평안의 원천은 단 하나입니다. 저는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아시는 주님이 잠시일지라도 소중한 자녀들과 떠나 있게 된 분들을 연민의 마음으로 내려다보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치유와 평안의 은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예수님은 그분의 속죄를 통해 모두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은 영감에 찬 계시와 위로의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나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에 이르기 전에 죽은 모든 어린이가 하늘의 해의 왕국에서 구원 받음을 보았느니라.”¹⁹

“이 세상에서 자녀가 성인이 되도록 기르는 특권과 기쁨과 만족감을 빼앗긴 어머니와 아버지는 부활 후에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만족과 특권을 누리려 그의 자녀가 완전히 성숙한 영의 모습으로 자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²⁰ 비통해 하는 사람들과, 사랑했던 소중한 자녀들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말씀이 길르앗의 유향과 같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러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²¹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²²

여러분과 저, 그리고 진지하게 구하는 모든 이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며, 심지어 아들이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사랑의 하늘 아버지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전이 많은 나라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곳에서 성스러운 성약들이 맺어집니다. 해의 영광이 순종하는 자를 기다립니다. 가족은 영원히 함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²³ ■

주

1. 누가복음 17:11~19.
2. 시편 30:12.
3. 고린도후서 9:15.
4. 데살로니가전서 5:18.
5. 앨마서 26:37.
6. Johnson Oatman Jr.(1856~1922년),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휩쓸어”, 찬송가, 142장.
7. Congressional Record, 88th Cong., 1st sess., 1963년, 109쪽, pt 7:9156.
8. “Three Centuries of Thanksgiving”, *Etude Music Magazine*, 1945년 11월, 614쪽.
9. 앨마서 37:37.
10. 출애굽기 20:12.
11. 요한 복음 19:26~27.
12. 마태복음 22:14.
13. Majorie Cortez, *Deseret News*, 1997년 9월 26일, A1쪽, A7쪽.
14. Laurence J. Peter, *Peter's Quotations: Ideas for Our Time*(1977년), 335쪽.
15. “5 Little Girls Die in[West Valley] Car Trunk”, *Deseret News*, 1998년 8월 8일, A1쪽, A7쪽; Lucinda Dillon and Spencer Young, “Cars Pass Site of Tragedy in Solemn Stream”, *Deseret News*, 1998년 8월 9일, A1, A5쪽.
16. 잠언 3:5~6.
17. “Little Boy Blue”, in Jack M. Lyon and others, eds., *Best-Loved Poems of LDS People*(1996년), 50쪽.
18. 요한복음 14:18.
19. 교리와 성약 137:10.
20. 조셉 에프 스미스, *복음 교리*, 412쪽.
21. 시편 30:5.
22. 요한복음 14:27, 2~3.
23. 마태복음 11:28~29.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안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후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메시지를 나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지난 호 제일회장단 메시지에서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이 하신 물문경을 읽으라는 제안을 잘 행하고 있는지 가족 구성원들에게 확인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리아호나, 2005년 8월호, 2쪽 “가슴 설레는 참된 간증”, 참조) 가족들에게 그들이 배운 것을 나누어 달라고 하거나 그들의 연구가 축복이 된 그들의 공부 방법들에 관해 말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 물문경의 참됨에 대해 간증한다.

2. 몬슨 회장님의 메시지에 나오는 한두 가지 이야기와 참조 성구에

대해 토론한다.(이 기사 끝에 나온 주 참조) 가족들에게 감사의 힘에 대해 이 이야기들과 성구에서 배운 것을 말해 달라고 한다.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들이 감사히 여기고 있는 구체적인 축복들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부탁한다. 주님과 그분의 축복에 대한 여러분의 감사를 표현한다.

3. 머레이 고등학교에 관한 뉴스 기사와 다섯 소녀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 자신의 말로 읽거나 말해 준다. 이 이야기들이 감사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질문한다. 이 이야기들에서 누가 진실로 감사했는가,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보여 주었는가? 각 가족 구성원에게 최근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감사를 표현해 주도록 부탁한다.

나의 영어 수업에 온 장로들

아넷 말즐 뱀

서로 모르는 다른 30명의 소녀들과 함께 새로운 교실로 걸어가면서 나는 초조하고 불안했다. 앞으로 5년 동안 나는 그들과 함께 카톨릭 사립학교에 다니게 될 것이다. 제일 먼저, 선생님은 모두 카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지 물어보셨다. 아니라고 답한 사람은 나밖에 없었기에, 모든 아이들의 눈은 나에게로 쏠렸다.

그것은 내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 있는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학교에 간 첫날의 일이었다.

나는 각 교실마다 걸려 있는 십자가와 아침 기도, 그리고 수녀님들에게 곧 익숙해졌다. 그러나 우리반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과 지내는 게 익숙하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믿는 것에 대해 알고 싶어했다. 나는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가 없었다. 나는 선교사들을 초청할 수 있는 허락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다.

이 기회는 마침내 저절로 찾아왔다. 어느 해에 우리의 영어 수업에 원어민이 없었다. 나는 반 친구들에게 선교사를 초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런 후 선교사들에게 학교에 올 수 있도록 허가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영어 선생님께 그들이 와도 되는지를 여쭙었다. 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종이를 돌려서 선교사들이 무엇에 관해 얘기해 주길 원하는지

목록을 적게 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왜 그들이 선교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는지, 그들이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과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어하는 것을 보고 나는 매우 놀랐다.

앨런 장로와 존스 장로가 수업 시간에 왔고 수업 시간의 대부분 동안 교회에 대해 이야기했다. 정말 멋진 일이었다! 그들이 떠난 후에, 나는 더 많은 질문 공세를 받았다.

그 해에 나는 더 이상 학교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이 아니었다. 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나의 후기 성도 친구들 중 두 명으로 인해, “어린이의 기도”(어린이 노래책, 6~7쪽)는 이제 음악 선생님의 레퍼토리의 일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어렵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훌륭한 복음에 대해 매우 감사드린다. 나는 또한 영으로 간증을 나누는 모든 기회에 대해 감사 드린다. ■

아넷 말즐 뱀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스테이크 그라즈 와드의 회원이다.

선교사들은 우리의 영어 수업을 도와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나의 친구들이 교회에 관해 가졌던 모든 질문에 내가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다.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라

교회의 새로운 선교 사업 지도서 살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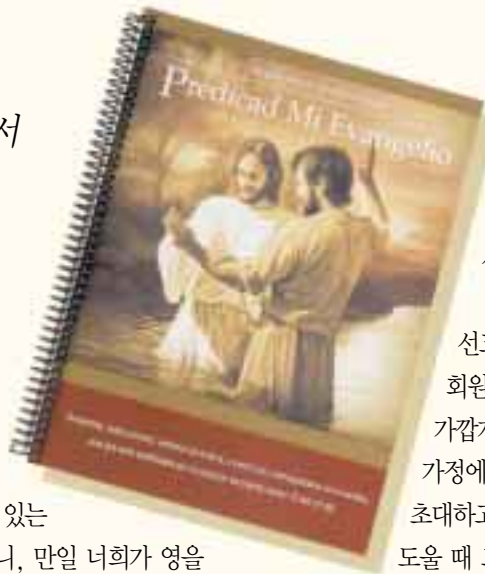
새나 버틀러, 아담 시 울슨, 로저 테리
교회 잡지

성 신의 인도는 선교 사업에서 언제나 지극히 중대한 역할을 해 왔다. 회복된 교회가 조직된 이래 가르치는 방법과 자료가 다양하게 활용되어 오기는 했지만, 경전에 있는 “영은 신앙의 기도로써 너희에게 주어지리니, 만일 너희가 영을 받지 아니하거든 가르치지 말지니라”(교리와 성약 42:14)는 지침은 변하지 않았다.

선교사들이 영에 의존하는 것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교회 지도자들은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지도서를 만들었다. 이 지도서는 1985년 이래 사용된 여섯 토론을 대체하여 가르치는 새로운 교수법을 소개하고, 보다 효과적인 계획을 강조하고 있다. 지도서는 또한 선교사 지도서, 새로운 회원을 위한 토론, 그리고 선교사 복음 공부 프로그램을 대체한다.

“이 지도서는 선교사가 세상 사람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권능을 지닌 교사가 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한 안내서입니다.”라고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신임 선교부 회장들을 위한 세미나에서 말했다.

선교사들은 구도자와 새로운 회원을 위한 토론을 더 이상 암기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다섯 개의 기본 토론에 있는 복음 교리와 원리를 공부하고 익혀서 각 구도자 또는 새로운 개종자를



위해 개별적인 토론 계획을 세운다. 새 지도서에서 다루고 있는 선교 사업의 다른 중요한 요소는 계획하기, 목표 설정, 현명한 시간 사용이다.

그리고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전임 선교사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새 지도서는 회원, 와드 및 지부 지도자들이 선교사들과 좀더 가깝게 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소개를 하고, 가정에서 구도자를 가르치도록 선교사들을 초대하고, 기타 많은 방법으로 회원들이 선교사들을 도울 때 그들은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가 유용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선교사들에게 좀더 큰 노력을 요구할 것입니다.”라고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위성 방송을 통해 선교부 회장들에게 말했다. “많은 기도와 많은 공부를 요구할 것입니다. ... 개종 과정에서 좀더 나은 가르침이 있다면 침례 받는 사람들이 좀더 많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준비 방법

지도서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제일회장단의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된다.

“사랑하는 선교사 동료 여러분,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위대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치하합니다. 이보다 더 칭찬할 만하거나 더 큰 만족을 가져다주는 일은 없습니다.”¹

장차 그런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지금 당장 어떤 실제적인 일을

요구할 것이다. 여기에는 공부와 연습과 기도가 필요하다.

“영이 없으면 선교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뉴욕 주 뉴욕 북 선교부의 메리 시 메모리 자매는 말한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선교사들이 자신의 말로 복음을 가르치도록 돕는다. 선교사는 가르칠 내용과 방법을 알도록 영을 받기에 합당해야 한다.

“저는 마음속으로 메시지를 느끼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가르칠 내용을 알기 위해 영에 귀를 기울입니다.”라고 페루 리마 동 선교부에서 봉사하는 메이슨 워 장로는 말한다.

뉴욕 주 뉴욕 북 선교부에서 봉사하는 니콜스 거빅 장로는 “마음에서 우러나 가르쳐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거빅 장로는 새로운 책을 잘

사용하고 있지만 자신이 준비를 더 갖추길 바란다.

복음과 회복에 대해 확고한 간증을 얻는 것이 필수적인 준비 사항이라고 거빅 장로의 동반자인 트래비스 디 홀링스헤드 장로는 말한다. “선교 사업 이전에 저는 회복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았지만 제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깨닫지 못했던 거죠.”

홀링스헤드 장로는 자신이 복음을 더 잘 배워 그것을 잘 가르칠 수 있게 되는 데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가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세미나리에 등록하여 성구 익히기 교과 과정을 공부했던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제 표현을 사용하기보다는 성구를 사용하여 질문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선교 사업을 준비하도록 돕기 위해 그는 “물론경을 읽고 그에 대한 간증을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 있는 처음 말씀은 제일회장단에서 준 것이다. 제일회장단은 여러분을 사랑하며, 또한 여러분이 될 수 있다고 그분들이 알고 있는 훌륭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 여러분이 준비할 때 축복을 받을 것임을 알고 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



- 자녀들이 좋은 공부 습관을 발전시키도록 돕는다.
- 가족 기도, 경전 공부, 가정의 밤을 갖는다.
- 자녀들이 가정의 밤 공과를 가르치게 한다.
-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원리에 따라 생활한다.
- 세미나리 참석, 물문경 읽기, 간증을 갖는 것에

대해 강조한다.

- 자녀들이 목표를 세우고 결심을 하는 법을 배우도록 돕는다.
- 텔레비전과 컴퓨터 게임을 하는 시간을 제한한다.
- 선교사들을 초대하여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르치게 한다.

잘 준비했다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라고 메모리 자매는 말한다. “우리는 영화 대사를 인용할 수는 있지만, 성구를 인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페루 리마 동 선교부에서 봉사하는 존 히치콕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가 지닌 멋진 장점은 모든 것이 단계적인 발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방법, 영을 느끼는 방법, 느낌을 전하는 방법, 결심을

얻으십시오”라고 청소년들에게 조언한다.

폴 에이 만 장로는 홀링스헤드 장로가 세미나리에 관해 말할 때, “아멘!”하고 말한다. 그와 그의 동반자인 호엘 디 로드리게스 장로는 뉴욕 주 용커스에서 봉사하고 있다. “세미나리로 인해 복음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를 갖게 되었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간증을 나누기 전에 먼저 간증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로드리게스 장로도 이에 동의한다.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조셉 스미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관해 간증을 얻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것의 참됨을 느낄 때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에 관해 정말로 알고 있을 때 가르치는 것이 보다 쉽다.

페루 리마 동 선교부의 마우리시오 차베스 장로는 계획을 잘 세우는 법을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지금은 계획하는 데 시간이 조금 길게 걸리지만 그것이 좀더 효과적입니다. 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구도자들이 보다 강한 간증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차베스 장로의 동반자인 벤 비슨 장로는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도자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항상 알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이들 선교사들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하는 선교사 준비는 성령의 동반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영이 없으면 선교사는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없다.(고리와 성약 42:14 참조)

메모리 자매의 동반자인 발레리 프라이스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중요한 것들에 보다 중점을 둬으로써 선교 사업을 좀더



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토론을 맞춤형으로 만들고 각 사람을 정말 일대일로 연결하도록 해줍니다.”

자매 선교사들과 장로들은 마음에서

우리나오는 가르침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들은 영이 항상 그들과 함께하도록 해야 하고, 복음을 알아야 하고, 토론과 일정을 주의 깊게 계획해야 한다. 그러나 또한

선교사들은 준비가 성공의 토대이며, 그 준비가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복음을 알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가시적인 결과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는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정말 준비를 잘한 선교사들 사이에서 보다 큰 성공이 있었다. 유타 옥덴 선교부의 윈 알 듀스넵 선교부 회장은 “개인적으로 영적인 경험을 하고, 개인적인 기도의 권능을 생활 속에서 느끼고, 개인 공부와 기도를 통해 훨씬 좋은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구주를 알게 될 수 있었던 선교사들이” 가장 준비를 잘한 선교사라고 말한다.

“순종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고, 선교 사업 이전에 복음을 공부하고, 교회나 세미나리에서 복음을 가르칠 기회가 있었던 선교사들은 이 곳에서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를 사용할 준비가 더 잘되어 있습니다.”라고 캘리포니아 칼즈배드 선교부의 브라이언

디 가너 선교부 회장은 말한다.

선교부 회장들은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가 선교사들이 주님의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에 극적인 효과를 미쳤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일본 후쿠오카 선교부의 켈렌드 아이 밀스 선교부 회장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선교사들에게서 본 가장 가치적인 변화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선교사들의 능력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은 구도자의 구체적인 필요 사항에 대처하여 그에 맞게 메시지와 접근법을 바꾸는 것이 타당하고 나아가 당연하다고까지 느낍니다."

페루 리마 동 선교부의 선교부 회장을 역임한 글렌든 라이온즈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의 제8장에 있는 원리들은 선교사들이 기록을 작성하고, 목표를 세우고,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훈련을 쌓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교사들이 생활에 더욱더 질서를 잡게 도와 주고 또 선교 사업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들을 축복해 줄 것입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가 주는 유익에 대한 가장 가치적인 증거는 선교사들 모두가 지도자가 되는 것같이 보이는 것"이라고 뉴욕 주 뉴욕 남 선교부의 제프리 알 모로우 선교부 회장은 말한다. 한 장로는 모로우 선교부 회장에게 보내는 주례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에 작년 일 년보다도 두세 배 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아이다호 보이시 선교부의 알 브렌트 리리 선교부 회장도 같은 의견을 내놓는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업에 엄청난 발전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침례, 순종, 신앙, 회원 선교 활동 등 모든 것이 향상되었습니다. 전임 선교사나 회원 선교사가 되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부모

자녀들이 영으로 가르칠 준비를 갖추고 선교 임지로 가도록 돕기 위해 부모들은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뉴욕 주 뉴욕 북 선교부의 벨스 엠 보른 선교부 회장은 "매일 하는 가족 기도와 가족 경전

공부, 그리고 주례 가정의 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자녀들이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준비를 갖추도록 돕기 위해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 책에 있는 교리와 생활 방식에 따라 생활하는 것입니다."라고 캘리포니아 애너하임 선교부 회장을 역임한 알 진 모핏 형제는 말한다.

"비록 전임 선교사 봉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영감을 받고 준비했다 하더라도,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가 모든 후기 성도 가정에서 '핵심적인' 참고 자료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리리 선교부 회장은 말한다. "그 책은 가정의 밤 공과, 개인 복음 공부, 복음 참고 시 대단히 유익한 자료입니다. 최근에 개인용으로 그 책을 받은 열세 살 된 제 아들은 즐겨 읽고 공부하다가 제3장에 있는 토론을 읽고 공부하고 표시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아이는 복음의

왼쪽: 메모리 자매와 프라이어스 자매가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사용하여 가르치고 있다. 라이온 선교부 회장이 선교사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의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다. 아래: 위 장로와 하치록 장로가 선교사 훈련원에서 가르치는 것을 연습하고 있다. 홀링스헤드 장로와 거빅 장로가 동반자 공부 시간에 준비하고 있다.



왼쪽: 모렐 사진 촬영, 조 문크, 아이다호의 이틀, 사진 촬영, 세니 버틀러, 자매 선교사 사진: 사진 촬영, 미번 케이 가드너, 가문집 사진: 오른쪽: 사진 촬영, 세니 버틀러, 원래: 사진 촬영, 미번 케이 가드너



준비, 준비, 준비

영적인 준비

- ❑ 회복된 복음, 특히 구주, 선지자 조셉 스미스, 물몬경에 대한 깊은 사랑과 그것들에 대한 지식을 발전시킨다.
- ❑ 여러분 자신의 간증을 얻고, 영이 동반할 수 있게 합당하게 되고, 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인다.
- ❑ 좋은 태도를 갖고, 다른 사람들 특히 가족들에게 친절을 베푼다.
- ❑ 봉사하고자 하는 강한 소망을 갖는다.

성구 기본 원리

- ❑ 물몬경을 매일 공부하고, 잘 알게 한다.
- ❑ 세미나리에 참석한다! 성구 익히기 구절을 배운다.
- ❑ Topical Guide 또는 경전 안내서와 같은 경전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실용적인 아이디어

- ❑ 침구 정리, 요리, 세탁, 옷 정리와 같은 간단한 일들을 하는 방법을 배운다.
- ❑ 잘 먹고, 건강을 유지하고, 자신을 돌본다.
- ❑ 학교 생활을 잘하도록 노력하여 공부하는 방법을 익힌다.

- ❑ 선교사 준비 반에 참석한다.
- ❑ 가능할 때 선교사들과 함께 일한다.
- ❑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물품 번호 36617 320)를 구하여 공부를 시작한다.
- ❑ 제2 외국어나 제3 외국어를 배운다.
- ❑ 저축을 하고, 예산을 세우는 방법을 배운다.

가르침과 계획에 관한 기본 원리

- ❑ 간단한 계획서를 사용하여 조직하는 법을 배운다. 여러분의 숙제와 시간을 계획한다.
- ❑ 여러분의 교회 부름을 완수한다. 훌륭한 가정 복음 교사가 된다.
- ❑ 가르치는 기술을 발전시킨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나눈다.
- ❑ 하나님에 대한 의무상 소책자와 개인 발전 기록부 요건을 활용하여 가르치는 경험을 갖는다.
- ❑ 가정의 밤 또는 다른 기회를 활용하여 가르치는 법을 배운다.
- ❑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연습을 한다.

간결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 질서에 고무되어, 교회 회원이 아닌 친구들에게 그 순서에 따라 복음을 가르치곤 합니다.”

모로우 선교부 회장은 “회복의 메시지에 대한 간증을 발전시키는 것의 중요성, 순종하는 생활의 중요성, 그리고 일상 생활에서 열심히 일하는 윤리를 습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라고 부모들에게 권고한다. 그는 목표 설정도 중요하다고 말하며 “학문에서, 운동에서, 심지어는 돈을 버는 일에서의 목표가 예비 선교사들이 이 중요한 기술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한다.

좋은 공부 습관을 발전시키는 것이 예비 선교사들에게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영국 버밍햄 선교부의 크리스토퍼 비 먼데이 선교부 회장은 개인 공부 및 동반자 공부 시간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한다. “선교 사업의 성패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공부하는 시간인 아침 6시 30분부터 9시 30분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교사와 지도자

젊은이들의 교사가 선교 사업을 준비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들 중의 하나는 그들에게 가르칠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점에 선교부 회장들은 의견을 같이한다. 젊은이들은 영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관찰함으로써 이런 방법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주로 배우게 된다고 몇몇 선교부 회장들은 언급했다. 이로 인해 젊은이들의 교사들은 커다란 책임을 갖는다. 만일 교사들이 매주마다 공과를 가르치는 방법이 교회에 관해 상세히 알아보게 될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그들은 영을 구할 것이고 또 권능을 지니고 가르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많은 교사들과 지도자들이 귀환 선교사이다. 멕시코 멕시코시티 남 선교부의 스티븐 시 마이크 선교부 회장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선교 사업 동안에 그들에게 일어난, 삶을 바꾸어 주었던 경험들을 젊은이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로드리게스 장로와 만 장로가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 있는 원리를 구도자에게 가르치는 방법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항상, 언제나 선교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모범을 보이십시오.”라고 리리 선교부 회장은 말한다. “여러분이 행하고 말하는 모든 일에서 품위를 유지하십시오. 선교사의 외모에 관한 표준에 어울리게 복장과

몸차림을 유지하십시오. 청소년들을 와드나 지부의 선교 활동에 참여시키고, 청소년들의 모든 일정에 선교 사업을 포함시키십시오. 선교 사업을 항상 생각하는 청소년 지도자가 되십시오.”

듀스넵 선교부 회장은 감독들과 지부 회장들이 예비 선교사들에게 성찬식이나 다른 모임에서 가능한 자주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상을 받도록 청남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그들이 물문경을 계속해서 읽고 물문경에 대해 개인적인 간증을 얻도록 격려하십시오.”라고 그는 제안한다. “또한 그들에게 침례식에 참여할 기회를 주십시오. 침례식 동안에 선교사의 영과 성신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선교사들과 함께 가르치고, 사람들을 찾거나 또는 소개를 부탁하기 위해 활동 회원들을 방문하게 하십시오.” “선교사로 봉사하고 또 선교 사업을 위해 준비를 잘 갖추도록 젊은이들을 돕는 가장 좋은 자원은 아마도 선교사들일 것입니다.”라고 모핏 선교부 회장은 덧붙인다.

영감 받은 프로그램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 대해 큰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보른 선교부 회장은 말한다. “선교사들이 보다 훌륭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데려오며, 봉사하면서 더 행복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배우는 기술과 태도는 그들이 보다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그리고 하나님의 보다 훌륭한 아들과 딸이 되도록 도와 줄 것입니다. 이 책은 선교 사업을 행하기 위한 지도서 이상의 것입니다. 이 지도서에 있는 가르침은 그것보다 훨씬 더 심오합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서 제일회장단은 이런 과제를 주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사업을 돕겠다는 각오를 한층 더 새롭게 하도록 권고합니다. ... 주님은 여러분이 겸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길 때 여러분에게 보상하시고 풍성하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들 가운데서 일할 때 이제껏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여러분을 기다릴 것입니다.”²

선교사들과 선교부 회장들은 이 말이 참됨을 간증하고 있다. ■

주

1.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2004년), v.
2.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v.

교사와 지도자가 할 수 있는 일



연도록 격려한다.

- 예비 선교사들에게 모임에서 말씀을 하도록 부탁한다.
- 젊은이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어 지도력 기술을 배우도록 돕는다.
- 젊은이들에게 전임 선교사들과 함께 일하도록 격려한다.

- 젊은이들이 또래 그룹에게 가르칠 기회를 준다.
- 영으로 가르친다. 젊은이들은 모범을 통해 배운다.
-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경험들을 나눈다.

- 예비 선교사들을 침례식에 참여시킨다.
- 젊은이들에게 개인용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준다.
- 물문경을 읽고 간증을

개인적인 헌납



스티븐 비 오브슨 장로와
칠십인 정원희

딕시 랜들 오브슨

모든 것을 제단 위에 놓는 우리의 열의는 우리가 모든 것에서 그분의 뜻에 따르겠다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표시입니다.

한 농부의 아침 식탁에 자신들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닭과 돼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암탉은 자신이 낳은 달걀을 식탁에 바치고 있다고 탄식했습니다. 그러자 돼지가 말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약과지. 나는 목숨을 바치거든!”

이 일화에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들을 위한 분명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왕국을 세우는 데에 어찌다 달걀 한두 개를 내주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로 분류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이 일에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들로 분류되기를 원하는지를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의 참된 개종이 교회 회원들의 행동에서 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강한 간증을 갖게 하는 영적인 증거를 받은 사람들은 대체로 복음 원리에 따라 온전하게 생활하겠다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들은 부름을 영화롭게 하고, 온전한 십일조와 후한 금식 헌금을 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가정의 밤을 갖고, 경전을 공부하는 등,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려 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일들을 포함하여 이러한 합당한 모든 행동들은 교회의 헌신적인 회원들이 기울이는 개인적인 노력을 구성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의 영을 수련하는 것은 해의 왕국의 생활에 대비해 우리를 준비시켜 줍니다. 주님은 교리와 성약 88편 22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의 왕국의 율법을 감당할 수 없는 자는 해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음이니라.” 후기 성도 학자인 휴 니블리는 “교리와 성약의 주요 목적은 헌납의 법을 실행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아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순종과 희생에 관한 최고의 율법인 이 법은 해의 왕국으로 가는 관문이며, 이생에서 남자와 [여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최후의, 그리고 가장 힘든 요구 사항입니다.”¹

십일조 이상의 것

헌납을 주제로 하여 이야기할 때, 종종 가장 먼저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세상적인 재물의 헌납입니다. 이런 면에서 현재 요구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일부를 그분에게 되돌려 드리는 법을 배우는 예비 단계로서 우리의 십일조와 헌물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납의 법은 단순히 십일조와 헌물을 내는 것이나 돈과 재산을 주님께 헌납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1915~1985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납의 법은 우리의 시간, 재능, 돈과 재산을 교회의 대의를 위해 바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지상에서 주님이 관심을 두고 계시는 일을 펼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충분히 있어야 한다.”²

1820년대에 헌납(consecrate)은 “어떤 의식이나 의례에 의해 성스럽게 하거나 성스럽다고 선언하는 것, 성스러운 목적을 위해 전용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 따로 떼어놓고, 봉헌하고, 바치는 것”으로 정의되었습니다.³ 헌납의 법에 따른 생활이라는 면에서 오늘날 교회 회원들은 “성스러운 목적을 위해 [자신들을] 바치”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시간, 재능, 소유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와 그

목적을 위해 바칠 것을 요구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결코 모든 것을 바치라는 요청을 받지 않겠지만 모든 것을 제단 위에 놓는 우리의 열의는 우리가 모든 것에서 그분의 뜻에 따르겠다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남미에 있는 교회에서, 처음에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남 선교부에서 선교부 회장과 동반자로서, 그 다음에는 칠레에서 지역 회장단으로서 봉사할 때, 우리는 하늘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들에 대한 헌신적 봉사의 예라고 생각되는 많은 행동을 목격했습니다. 이런 경험들 가운데서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번에는 더 잘할 것입니다”

1996년부터 1999년 사이의 선교부 회장 시절

셀 수 없이 많은 부부 선교사들이

그렇듯이, 우리와 함께 봉사했던 부부 선교사들은 성전에서 일하고, 회원들의 집 수리를 돕고, 의료 고문으로 봉사하고, 저활동 회원들을 활동화시키는 노력에 참여했습니다.



신화 데니얼 루이스

초기에 우리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근처의 롱참프스에 살던 캄보디아 이주자 그룹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선교사들과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금식의 법을 소개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다음과 같은 말로 그 법을 설명했습니다. “금식은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고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영에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내어 경전을 읽고, 기도하고, 마음을 고양시키는 다른 활동에 참여하고, 금식 간중 모임에 참석하여 와드 감독님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먹지 않은 음식에 해당되는 돈을 감독에게 바칩니다.”

이런 설명 후에 선교사들은 다음 일요일이 그 달의 첫번째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 가족이 금식을 시도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의했습니다. 아버지는 동의했고, 선교사들은 그 집을 떠났습니다.

다음 월요일 저녁에 장로들이 토론을 하기 위해 그 집으로 갔고, 그들은 금식에 대한 그 가족의 경험을 들려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조금 미안해 하며 시도를 해 보았으나 다시 확실하게 시도해 보고 싶다고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후에 기도으로써 금식을 시작했고, 다음에는 경전을 읽고 토론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어린 자녀 몇 명이 밤중에 풀아떨어졌습니다. 우리는 매우 피곤했지만 아침에 샤워를 하고 교회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영은 힘을 얻었고 그날 있었던 아름다운 간증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마 다음 번에는 더 잘할 것 같은데, 아이들도 밤새 우리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선교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24시간 내내 잠도 자지 않고 있었던 말입니까?”

“그래요. 자지 않았습니다.” “장로님들은 자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도 상상하겠지만, 이 훌륭하고 겸손한 가족은 곧 침례를 받아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여러 가족을 데려와 선교사와 토론을 하게 했으며 그 가운데에서 개종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 일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겸손하게 순종하려 노력하는 사람들에게서 헌납에 관해 배울 것이 무척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 장로에게서 좋은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선교부 회장의 보조 한 사람에게서 헌납에 관해 아름다운 교훈을 배웠습니다. 선교사 한 사람을 일찍 집으로 보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장로는 권고와 약속,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불순종했습니다. 비행기표 구입이 끝났고, 이 선교사를 집으로 보내기 위해 남미 남 지역 회장단과 선교사부로부터 필요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접견을 위해 선교부 회장 보조가 그 선교사를 데리고 왔을 때, 그는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집으로 가고 싶지 않다고 외치며 버텼습니다. 그는 태도를 바꾸겠다고 약속하며 다시 기회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자포자기하면서 오브슨 선교부 회장은 두 명의 보조와 오브슨 자매를 사무실로 불렀고, 가능한 조치를 논의하는 동안 그 장로를 밖에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 상황에 대해 더 인내할 수 없었던 오브슨 자매는 그를 집으로 보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머물게 한다면, 다른 선교사들이 순종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도 오브슨 자매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브슨 선교부 회장이 다른 보조에게 의견을 구하자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장로에게서 좋은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저를 선교 임지로 돌려 보내신다면 제 선교 사업이 끝날 때까지 그 장로를 제 동반자로 데리고 있겠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지고 그가 성실하고 순종적인 선교사가 되도록 돕겠습니다.”

이 장로가 말을 마쳤을 때 우리는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스무 살이라는 나이에 이처럼 사랑이 많고, 남을 배려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의

헌납의 법에 관해 휴 니블리는 이렇게 가르쳤다. “순종과 희생에 관한 최고의 율법인 이 법은 해외 왕국으로 가는 관문이며, 인생에서 남자와 [여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최후의, 그리고 가장 힘든 요구 사항입니다.”



요청대로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음에 그는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후임 동반자는 서서히 그에게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으며 드디어 신뢰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선임 동반자가 귀환했을 때, 그의 동반자는 선교 사업 기간이 남아 있었고 얼마 후에 그는 선임 동반자가 되었으며, 명예롭게 해임 되기 전에 트레이너가 되었습니다. 이 실제 경험의 뒷이야기를 전해 드리면, 한때 제멋대로였던 그 장로는 그 뒤 결혼을 하여 성전에서 인봉을 받았습니다. 그와 아내 사이에는 지금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활동적이며 왕국의 건설을 돕고 있습니다. 자신을 헌납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한 사람이 이 선교사의 인생에, 그리고 그의 장래 가족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다른 예

부부 선교사들의 생활에 헌납의 예는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성전 선교사, 지역 복지 책임자, 지역 의료 고문, 지역 회장단의 집행

서기 또는 가족 역사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봉사하든지 부부 선교사들은 정말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남 선교부에서 여러 부부 선교사들과 함께 봉사하는 커다란 축복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밥 풀리와 글리넬 풀러 부부인데, 두 사람은 회원들을 활성화시키고, 음악을 가르쳤으며, 집 수리를 돕고, 헌신적인 봉사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모범은 헌납의 법과 우리의 삶을 성스러운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이해하는 부부 선교사의 잠재적 가치를 잘 나타내 줍니다.

우리는 헌납과 충실함의 모범을 잘 보여 준 헌신적인 교회 회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얼마 전 칠레의 폰타이레나스에서 온 일단의 성도들이 칠레 산티아고 성전으로 갔습니다. 이 성전 방문을 위해 약 80시간의 버스 여행을 해야 하며, 일년 동안에 갖고 있는 유일한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일행 중 한 사람은 알바레스라는 이름을 지닌 자매였는데 신장이 1.2미터 미만으로

불 순종하는 장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해 물었을 때, 그 선교부 회장의 보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지고 그가 성실하고 순종적인 선교사가 되도록 돕겠습니다.”



칠 레의 폰타아레나 스에서 온

알바레스 자매는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사업을
행하기 위해 희생을 바친
성도들의 헌납과
충실함의 좋은 예입니다.

보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리 사업을
행하고자 27명의 가족 이름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녀의 합당한 꿈을 성취하는 것을 돕고, 또한
그토록 많은 성도들이 헌납의 법에 대한 표시로서
복음의 원리에 따라 생활하고 그것을 지키는 데
헌신하는 노력의 정도를 알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사업에 자신을 정말로 헌납하고
있는지는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역경에 직면했을 때
굴하지 않는 충실함을 통해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가르쳤듯이, “하나님께서서는 시험 받는 백성을 가지실
것이고, 그들을 금처럼 연단하실 것이라고 말씀”⁴하셨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로 봉사하던 아들이나 딸의 사망 소식을 듣고도
흔들림이 없었던 훌륭한 부모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사망이나 이혼으로 잃고서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갔던
사람들이나 실업이나 제멋대로 행하는 자녀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에게 대해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년의 부모

또는 장애를 지닌 자녀를 돌보는 것이 현재 그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하기 위해 가야 할 길임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생활에는 이러한 일생 동안의 난제에 대처할 때와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성스러운 목적을 위해 바칠 수
있는 방법은 수없이 많습니다.

시온의 백성

하나의 사회로서 헌납의 법에 따라 최대한으로 생활하는 법을
배웠던 사람들이 경전에서 언급될 때마다 우리는 청결하고
평화로운 사람들, 다툼과 불화가 없었던 시온 백성들에 관해
읽습니다. 예녹의 백성은 시온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세서
7장 18절에서 이런 구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의롭게 거하며,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으므로 주가
그의 백성을 시온이라 불렀더라.”

우리의 헌납이 단 하나의 행동으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는 교회에서 유아반 지도자,
소년단의 유년대 성인 여성 지도자, 새벽반 세미나리
교사, 소년단 성인 지도자, 또는 시간을 많이 쓰지만
때로는 교회에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부름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들은 헌납의 참된 의미를
보여 주는 진정한 본보기입니다.

결국에는 성스러운 목적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것이
어떤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는 온유한 열의를 단순히 일관된 태도로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한편,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돕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헌납은 우리가 모든 시대의 가장 헌신적인 분, 즉
우리의 구주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면서
매일같이 헌신, 겸손, 순화, 정화가 일어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주

1. “How Firm a Foundation! What Makes It So”, in *Approaching Zion*, vol. 9 of *The Collected Works of Hugh Nibley*(1989년), 174, 168쪽.
2. “Obedience, Consecration, and Sacrifice”, *Ensign*, 1975년 5월호, 50쪽.
3. *Noah Webster’s First Edition of an American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1967년), “Consecrate.”
4. *History of the Church*, 3:294.

가 나 쿠마시 스테이크의 세미나리 학생들은 성구 익히기 성구를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성구를 암기하여 삶에 축복이 되도록 그 성구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나눌 좋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래하십시오.

⚡ 잘 알 수 있을 때까지 한 번에 두 줄씩 암기한 다음, 전 구절을 알 때까지 두 줄씩을 더 보태면서 암기하십시오.

성구 익히기의 축복

⚡ “성구 학습은 제게 영적인 문제들에 용감히 맞서게 하고, 신앙을 키워 주며, 많은 유혹을 극복하게 해주었어요.”

⚡ “성구들은 제가 말씀을 할 때나 간증을 전할 때 지식을 갖도록 도와 줍니다.”

⚡ “경전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라도 제 머리 속에는 성구들이 들어 있어요.”

⚡ “저는 성구들을 실수하지 않고 인용할 수

있어요.”

⚡ “성구 익히기는 제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신권 책임을 영화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되어왔습니다.”

⚡ “성구 익히기 구절은 평소에 구도자들이 묻는 질문의 답이 되죠. 그래서 저는 제가 접하는 상황에 잘 대처하여 지금은 긴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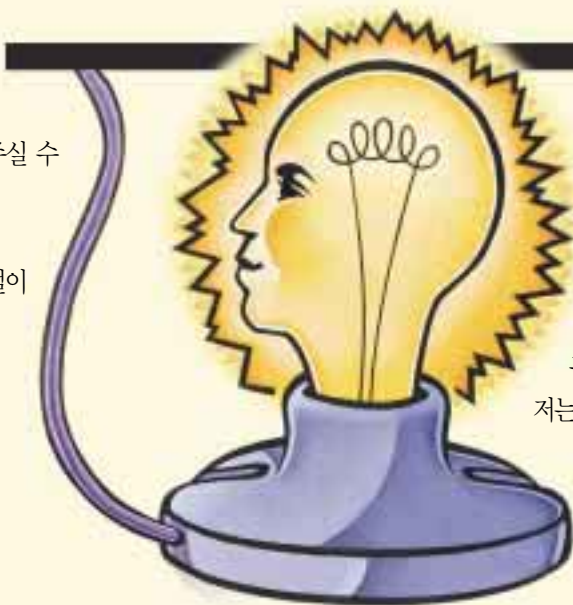
⚡ “저는 이제 필요할 때마다 성구를 아주 빨리 찾을 수 있어요.”

⚡ “성구 익히기는 학교 암기 시간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 머리속에 생각할 성구가 있다는 것이 참 좋아요.”

⚡ “저는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머리속에 성구 100개를 넣어 두고 싶어요.” ■

세미나리 성구의 힘



암기에 도움이 되는 것들

⚡ 공부할 때 영이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영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요한복음 14:26) 할 것입니다.

⚡ 카드에 성구를 적어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며칠마다 한 구절씩을 외우겠다는 목표를 세우십시오.

⚡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구절을 잘 알고 있는지 부모님이 질문해 주실 수 있습니다.

⚡ 그 구절을 깊이 생각하여 확실하게 이해하십시오. 그 구절이 들어 있는 장 전체를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 완전히 알 때까지 그 구절을 반복하여 적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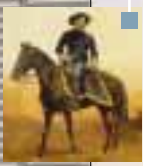
⚡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성구를 공부할 시간을 정해서 계획표에 넣으십시오.

⚡ 그 구절을 가족이나 친구 또는 구도자들에게 가르치십시오.

⚡ 여러분이 그 속에 있는 원리에 대한 간증을 얻을 수 있게 그 구절이 가르치는 것에 순종하십시오.

⚡ 그 구절의 낱말들로 노래를 만들어 반복해서 자신에게

날짜(서기)	1847	1848	1849	1850	1860
교회 본부	네브래스카 주, 윈터쿼터스: 1846년 7월~1848년 5월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1848년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46년 7월 몰몬 대대가 미국 정부를 위해 캘리포니아로의 역사적인 행군을 시작했다. 1846년 9월 교회 지도자들은 윈터쿼터를 성도들의 서부 여행을 위한 중간 거점으로 정했다. 1847년 4월 브리검 영이 이끄는 첫 번째 개척자 대대가 윈터쿼터스로부터 서부로 가는 여정을 시작했다. 1847~1857년 성도들은 미 서부에서 약 100개의 정착촌을 세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47년 12월 27일 아이오와 주 케인즈빌에서 열린 대회에서 브리검 영을 교회의 제2대 회장으로 하는 제일회장단이 지지를 받았다. 1847년 7월 21~24일 첫 번째 개척자 대대가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49년 9월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들어오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 영구 이주 기금이 설립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50년 9월 9일 유타 주와 그 주변 지역 일부가 미 합중국의 영토가 되었다. 1856년 10~11월 혹심한 눈보라가 와이오밍에서 윌리와 마틴 손수레 부대를 곤경에 빠뜨렸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솔트레이크 계곡에서 온 용감한 구조자들에게 의해 목숨을 구했다. 	



일부 일자는 대략적인 날짜임.

교리와 성약

시대 개관

도표 3: 138편 및 공식 선언-1, 2.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교리와 성약 각 편의 머리글과 교회사(History of the Church) 참조.

교회사에 나오는 사람들

■ 1866~1867년 엘리자 알 스노우 자매를 회장으로 하는 상호부조회가 재설립되었다.

1869년 5월 10일 대륙 횡단 철도가 완공되어 성도들이 더욱 빠르고 쉽게 미 서부에 모일 수 있게 되었다.



1869년 11월 28일 현 청년 조직의 전신이 설립되었다.



■ 1875년 6월 10일 현 청년 조직의 전신이 설립되었다.



■ 1877년 4월 6일 유타 주 세인트조지 성전이 헌납되었다.

■ 1877년 8월 29일 존 테일러를 회장으로 하는 십이사도 정원회가 교회를 이끌었다.

■ 1878년 8월 25일 첫 번째 초등회 모임이 열렸다.

■ 1880년 10월 10일 제일회장단이 재조직되었다. 존 테일러가 제3대 교회 회장으로 지지 받았다.

■ 1884년 5월 17일 테일러 회장이 유타 주 로간 성전을 헌납했다.



■ 1887년 7월 25일 윌포드 우드럽이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서 교회를 이끌었다.



■ 1888년 5월 17일 우드럽 회장이 유타 주 맨타이 성전을 헌납했다.

■ 1889년 4월 7일 윌포드 우드럽이 제4대 교회 회장으로 지지 받았다.

■ 1898년 9월 로렌조 스노우가 제5대 교회 회장으로 지지 받았다.

■ 1899년 5월 교회의 재정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 기도로 지혜를 간구하던 중 스노우 회장은 십일조의 법을 강조하라는 계시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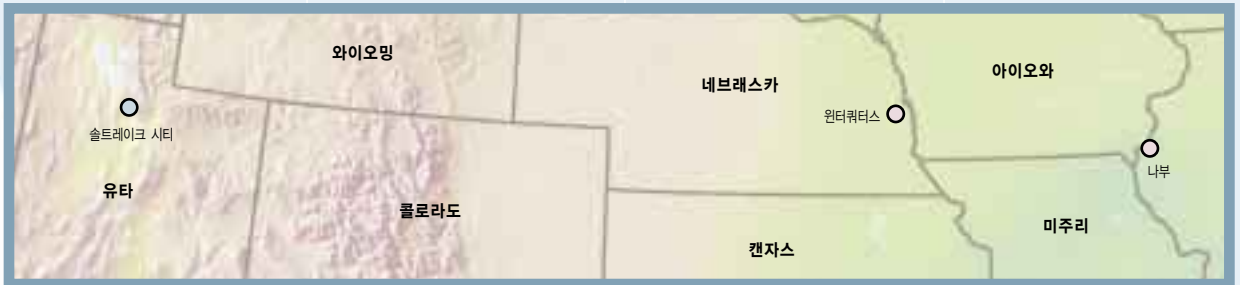
■ 1901년 8월 일본에서 선교부가 개설되었다.

■ 1901년 10월 조셉 에프 스미스가 제6대 교회 회장이 되었다.

1906년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이 교회 회장으로서는 최초로 유럽을 방문했다.

1908~1909년 매주 갖는 와드 신권회와 합당한 청년의 성인을 위한 연령 요건이 시작되었다.

솔트레이크 시티 유타



편수(또한 위에 있는 원 안의 숫자 참조), 그 편이 주어진 날짜, 계시가 주어진 상황:

138편. 1918년 10월 3일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우리의 사후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경전을 공부하고 있었다.

*공식 선언-1, 1890년 9월 24일 윌포드 우드럽 회장은 복수 결혼 실행의 박해로 인한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했다.

**공식 선언-2, 1978년 6월 1일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은 신권의 축복을 모든 합당한 남성 회원에게 주는 것에 관해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다.

1*



■ 1893년 4월 6일 우드럽 회장이 솔트레이크 성전을 헌납했다.

■ 1896년 1월 4일 유타 주가 미 합중국의 한 주가 되었다.

■ 1898년 첫 번째 전임 자매 선교사들이 성별되었다.



조셉 에프 스미스 1838~1918년



히버 제이 그랜트 1856~1945년



조지 앨버트 스미스 1870~1951년



데이비드 오 맥케이 1873~1970년



조셉 필딩 스미스 1876~1972년

삽화(왼편): 로버트 티 배넷; 맨 위(왼쪽부터): 그림: 윌리엄 모건, 서부 쪽을 바라보는 국 대령; 그림: 벨로이 이튼, 1847년 7월 24일 이후인 함곡에서; 그림: 조셉 브리검, 레드 버츠 캠프; 사진 촬영: 앤드류 조셉 러셀, 철도 사진; 브리검 영 아카데미 그림, 유타 주 역사 학회 제공, 복제 금지; 사진 촬영: 월든 시 앤더슨, 유타 주 세인트조지 성전 사진; 사진 촬영: 존 텔포드, 유타 주 맨타이 성전 사진, 복제 금지; 미운틴 하이 맵스의 지도; 아래: 조지 앨버트 스미스의 사진, 유타 대학교, 제이 윌라드 메리웃 도서관 특별 수집품 허가 받아 게재함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1848년 9월~

1912년 첫 번째 세미나리 반이 설립되었다.

1915년 4월 27일 제일회장단이 회원들에게 정기적인 가정의 밤을 갖도록 촉구했다.

1918년 11월 히버 제이 그랜트가 제7대 교회 회장이 되었다.

138

1926년 대학생들을 위한 첫 번째 종교 교육원 프로그램이 개설되었다.



1929년 7월 15일 태버네클 합창단이 첫 번째 라디오 방송을 시작했다.

1930년 교회 100주년을 기념했다.

1936년 4월 7일 복지 프로그램이 개시되었다.

1939~1940년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인해 선교사들이 유럽, 태평양 및 기타 지역에서 철수하기 시작했다.

1945년 5월 조지 앨버트 스미스가 제8대 교회 회장이 되었다.

1947년 교회 회원 수가 백만을 돌파했다.

1951년 4월 데이비드 오 맥케이가 제9대 교회 회장으로 지지 받았다.

1952~1961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선교 사업이 확장되었다. 맥케이 회장은 "모든 회원은 선교사"라고 가르쳤다.

1955~1958년 북미와 하와이 이외의 지역에서 첫 번째 스테이크들이 조직되고 첫 번째 성전들이 헌납되었다.

1955년 9월 하와이 교회 대학 (BYU-하와이의 전신)이 문을 열었다.

1961년 신권 협의 프로그램이 제정되었다.

1967년 9월 첫 번째 지역 대표들이 부름을 받았다.

1970년 1월 조셉 필딩 스미스가 제10대 교회 회장으로 지지 받았다.

1971년 교회 회원 수가 삼백 만을 초과했다.

1972년 7월 해롤드 비 리가 제11대 교회 회장으로 지지 받았다.

1973년 12월 스펜서 더블류 김블이 제 12대 교회 회장이 되었다.

1974년 김블 회장은 범세계적인 선교 사업에 있어서 "걸음의 폭을 넓히라", 그리고 "우리의 비전을 넓히라"고 회원들에게 촉구했다.

1975~1976년 칠십인 제일 정원회가 총관리 직원 정원으로 봉사하기 위해 재조직되었다.

1979~1981년 개선된 학습 보조 자료가 들어 있는 신판 경언이 영어로 출판되었다.

1980년 일요일의 3시간 모임 계획표가 제정되었다.

1982년 교회 회원 수가 5백만을 초과했다.

1984년 6월 24일 지역 회장단이 지역 단위의 교회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1985년 8월 영어로 된 새 찬송가가 출판되어, 여러 언어의 새 찬송가의 바탕이 되었다.

1985년 11월 에즈라 태프트 벤슨이 제13대 교회 회장이 되었다.

1985년 인도주의 지원 프로그램이 전세계의 궁핍한 자들에게 식품과 의복과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크게 확장되기 시작했다.

1986년 교회 회원 수가 6백만에 도달했다.

1986~1987년 벤슨 회장이 물문경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988년 5월 15일 서 아프리카의 첫 번째 스테이크가 조직되었다.

1988~1991년 선교 사업이 동유럽으로 확대되었다.

1989년 5월 16일 브리검 영 대학교 예루살렘 센터가 헌납되었다.

1994년 6월 하워드 더블류 헌터가 제14대 교회 회장이 되었다.

1995년 3월 고든 비 힝클리가 제15대 교회 회장이 되었다.

1995년 4월 1일 첫 번째 지역 관리 직원들이 부름 받았다.

1995년 9월 23일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이 발표되었다.

1997년 4월 4일 첫 번째 칠십인 지역 관리 직원들이 부름 받았다.

1997년 교회 회원 수가 천만을 초과했다.

1998년 처음으로 소규모 성전들이 헌납되어 보다 많은 회원들이 정기적으로 성전에 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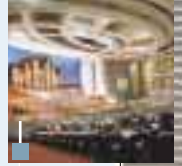
1999년 5월 24일 가족 탐구(The FamilySearch) 웹 사이트가 개시되었다.

2000년 1월 1일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자신들의 간증을 담은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출판했다.

2000년 10월 힝클리 회장이 21,000석의 컨퍼런스 센터를 헌납했다.

2001년 3월 31일 힝클리 회장은 젊은 후기 성도들이 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돕기 위해 영구 교육 기금 창설을 발표했다.

2002년 6월 27일 재건축된 일리노이 주의 나부 성전이 헌납되었다.



2005년 9월 122개의 성전이 운영 중에 있다.



해롤드 비 리 1899~1973년



스펜서 더블류 김블 1895~1985년



에즈라 태프트 벤슨 1899~1994년



하워드 더블류 헌터 1907~1995년



고든 비 힝클리 1910년~

몰몬경과 더불어 기뻐하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성구와 가르침을 이 메시지에서 선택하여 읽는다.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을 나누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매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한다.

교리와 성약 17:6: “[조셉 스미스가 그 책 ... 을 번역하였으니, 너희 주요 너희 하나님께서 사십 같이 그것은 참되도다.”

나는 몰몬경과 더불어 기뻐함으로써 영적인 능력을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는가?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여러분 각자가 이 간단한(금년 연말까지 몰몬경을 읽는) 프로그램을 따른다면, 여러분이 과거에 몇 번이나 읽었는가에 관계없이 더욱 충만히 주님의 영이,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여 생활하겠다는 더욱 확고한 결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살아 계시다는 더욱 강한 간증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으로 찾아올 [것입니다].”(“가슴 설레는 참된 간증”, *리아호나*, 2005년 8월호, 6쪽)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기도하는 마음으로 몰몬경을 공부하는 개개인도 또한 그 책의 신성함에 대한 간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이 책은 여러분이 개인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매우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악한 습관을 제거하고자 하십니까? 가족과의 관계를 향상시키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을 증진하고자 하십니까? 몰몬경을

읽으십시오! 몰몬경은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에 넘치는 권능으로 가까이 인도해 줄 것입니다.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무리를 먹이신 그분이 ...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앓은뱅이를 걷게 하신 그분이 ... 또한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 책의 교훈을 좇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생의 면류관을 받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몰몬경에 대한 간증”,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85쪽)

몰몬경의 출현에 대한 나의 기쁨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1899~1994년): “우리 교회 회원과 특히 선교사들은 세상 끝까지 몰몬경에 대하여 ... 말하는 사람과 간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몰몬경은 우리가 사용할 위대한 기호입니다. 이것은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였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 책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겨 있으며 이 책의 위대한 사명은 인간을 그리스도에게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것은 모두 다 이차적인 것입니다. 몰몬경의 황금 질문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좀더 배우고 싶습니까?’ 라는 것입니다.”(“몰몬경은 하나님의 말씀”, *성도의 빛*, 1988년 5월호, 6쪽)

줄리 비 벡 자매, 본부 청년 회장단

제1보좌: “주님은 ‘경전을 연구하는 ... 일에 너희의 시간을 바칠지니라’ (교리와

성약 26:1)라고 하시며 ‘몰몬경과 거룩한 경전은 너희의 교육을 위하여 내가 준 것’ (교리와 성약 33:16)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자매들은 가정에서 복음 교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 있으며, 교회의 지도자와 교사로서 복음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아직 매일 경전을 공부하는 습관이 없다면, 지금 시작하시고 이생과 영원한 시간에서 맡겨 될 책임을 준비하기 위해 계속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경전과 더불어 나의 심령이 기꺼워하며”(리아호나, 2004년 5월호, 107~108쪽) ■



십이사도들



저와 함께 성임된 열네 분은
진실로 사도들임을 제가
보증합니다. 이를 선포함에
있어 저는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치셨다는 것과
개인적인 영의 증거를
얻고자 진실한 마음과
진정한 의도로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진실됨을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리라는 것 외에 더 이상
아무 말도 않겠습니다.

신권 정원회와 그 목적에 대한 연재 기사의 여덟 번째 부분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교회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으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둘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¹ 그들은 평범한 삶의
행로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먼저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² 이와 같은 성스러운 권세는 사도의
직분에 고유한 것으로 사도로 성임되는 모든
이에게 부여됩니다.

바울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부름을 받았다고 가르쳤으며 이러한
직분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 까지”³ 지속되리라고
선언했습니다.

얼마 후에 사도들이 모두 사라지고 그들과 함께
그 열쇠도 거두어졌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말”⁴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단일성을
지키지는커녕 분열과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소년 조셉 스미스는 모든
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가 옳은지, 또 어느 교회에
가입해야 할지를 알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는 조셉이 시현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을 봄으로써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초대
교회와 똑같은 조직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과 함께 이 지상에 회복되었습니다.⁵

혹자는 조직이 완전히 구비된 건축 설계도 및
건물 시방서처럼 처음부터 세부 사항이 모두
알려진 상황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넘겨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직은 총관리 직원들이
준비하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한 번에 하나씩
갖추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높은
권세인 멜기세덱 신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안수에 의해 회복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성임하고 너희를 확인하여 사도와 나의 이름의
특별한 증인이 되게 하고 너희 성역과 내가
그들에게 계시한 것과 같은 것의 열쇠를 지니게
하였느니라.

“너희에게 내가 나의 왕국의 열쇠와 마지막 때를
위한 … 복음의 경륜을 맡겼으니,”⁶

1833년에 제일회장단이 조직되었고, 그로부터
2년 후인 1835년 2월에 십이사도 정원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이는 순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제일회장단이 순서로서도 먼저 조직되었고
권세로도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규범에 따라, 평범한 생업에 종사하던
중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세워지고
칠십인 정원회와 감리 감독단의 직분이 알려짐에
따라, 교회의 제반 질서가 제대로 갖추어졌습니다.



위쪽: 십이사도 정원회 — (앞은 순서)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회장 대리; 엘 톰 페리 장로; 러셀 엠 넬슨 장로;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조셉 비 워스린 장로.(선 순서)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오른쪽: 고든 비 힝클리 회장(가운데);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제1보좌(왼편);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 제2보좌(오른편)



그러나 각 직분 간에는 상이점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이 르우벤 클라크 회장님의 설명이 아마도 가장 명확할 것입니다. “일부 총관리 역원들, 곧 사도들에게는 특별한 부름이 주어져 왔습니다. 이들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주어집니다. 이들은 선지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로 지지되며, 이로써 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과 연관된 특별한 영적인 은사를 받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그들의 백성들에게 대변할 수 있는 권리와 권능과 권세를 가지며, 이러한 이들의 은사는 전반적인 권능과 권세를 지닌 교회 회장에게 귀속됩니다. 그 외 다른 총관리 역원들에게는 이 특별한 영적인 은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에 따른 제한이 “교회의 모든 다른 역원이나 회원들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그들 중 어떠한 사람도 선지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로서의 영적인 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⁷

클라크 회장은 연이어 말씀했습니다. 십이사도와 제일회장단 가운데서도 “감리 대제사인 교회 회장만이 교회를 대표하는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되며, 오로지 회장만이 교회를 위한 새로운 계시나 개정된 계시를 받으며, 교회에서 공인되는 권위 있는 경전 해석을 제공하며, 또한 교회의 기존 교리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⁸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의 제반 질서가 확립되기까지는 한 세대에 걸친 간구와 응답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러한 질서를 온전케 하려는 노력의 일환은 필요의 충족과 기도의 응답을 통해 진척되어 왔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계속해서 그러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십이사도는 순회 감리 고등평의회라, 하늘의 제도에 따라



위쪽: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둘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왼쪽: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와 러셀 엠 벨슨 장로가 코스트 아이보리, 아비잔에서 피델 프란시스 보글러와 그의 가족에게 인사하고 있다.



교회의 제일회장단의 지시 아래 주의 이름으로 직분을 수행하며, 교회를 세우며, 모든 나라에서 교회의 제반사를 조정하여야 하나니”⁹

제일회장단이 직접 갈 수 없는 곳에는, 십이사도들이 “모든 곳에서 왕국의 문을 열”¹⁰도록 파송됩니다. 그들은 세계 만방으로 가도록 위임되었으니, 이는 사도란 말이 “파송된 자”¹¹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든지 네가 나의 이름을 전파하는 곳에서는, 그들이 내 말을 받아들이도록 효과적인 문이 네게 열리리라.”¹² 또한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너를 인도할 것이요, 네 기도에 대한 응답을 네게 주리라.”¹³

십이사도는 “부름을 받아 ... 온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특별한 증인이 되나니.”¹⁴ 이들 모두는 각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고한 간증을 전합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모든 교회 회원은 각기 나름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질 수 없는 성신의 감명을 자신의 영혼에 깊이 새겨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¹⁵

니파이를 통해 우리는 “천사들은 성신의 권능으로 말”¹⁶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의 성역의 직무는 사람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며, 아버지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맺으신 바, 그의 성약을 이루고 그 성약의 일을 행하며 ...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길을 예비하는 것이니라.” 물론은 계속해서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의 택하신 그릇에게 선포하여, 그들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게 함으로써” 성역을 완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렇게 하심으로써, 주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도록 길을 예비하사, 성신이 그 권능을 좇아 그들의 마음에 있을 곳을 가지게 하시나니, 이 같은 방법으로 아버지께서는 사람의 자녀들에게 맺으신 성약을 이루시느니라.”¹⁷

“하나님이 지명하고 ... 교회를 보살피게”¹⁸ 한 자에게는 분별력이 주어집니다. 분별한다는 말은 “본다”는 뜻입니다.

해롤드 비 리 회장님은 언젠가 제계 십이사도 정원회의 찰스 에이 캘리스 장로님과 함께 나누었던 대화에 관해 들려주셨습니다. 캘리스 형제님은 분별의 은사가 매우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장차 다가올 일들을 명확히 보았기에, 여전히 권고의 말씀에 귀기울이기를 더디하고, 저항하고, 심지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배척하는 회원들을 바라볼 때에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집**” 이사도는 순회 감리 고등평의회

라, 하늘의 제도에 따라
교회의 재일회장단의 지시
아래 주의 이름으로 직분을
수행하며, 교회를 세우며,
모든 나라에서 교회의
재반사를 조정하여야
하나니”

재일회장단이 직접 갈 수
없는 곳에는, 십이사도들이
“모든 곳에서 왕국의 문을
열”도록 파송됩니다. 그들은
세계 만방으로 가도록
위임되었으니, 이는 사도란
말이 “파송된 자”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이끄는 책임은 우리를 계승할 또 다른 사람들이 임명될”¹⁹ 때까지 우리에게 머물러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교회 내에서 “나의 이름을 안다고 공언하였으나, 나를 알지 못하였고, 나의 집 가운데서 나를 모독한”²⁰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십이사도에게 이같이 명하셨습니다. “네 음성은 범법자에게 꾸짖음이 되리니, 네 꾸짖음에 비방자의 혀가 그 패역함을 그칠지이다.”²¹

교회 안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공개적으로나 혹은 훨씬 심하게 익명으로, 와드나 스테이크 또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비난하며, 이사가가 말한 바와 같이 그들에게 “송사로 ... 죄를 씌우”기를²² 꾀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기쁨 부음 받은 자들에게 발꿈치를 들며, 그들이 내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나 보기에 합당한 일과 내가 그들에게 명한 일을 행한 때에 그들이 죄를 범하였다 외치는 모든 자에게 저주가 있다. ...

“그러나 범법하였다 외치는 자들은 그들이 스스로 죄의 종이요, 불순종의 자녀들인 까닭에 그리 행하느니라.

“그들이 나의 어린 자들을 실족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은 나의 집의 의식에서 단절되리라.

“그들의 바구니는 가득 차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집과 그들의 창고는 파멸될 것이요, 그들 자신은 그들에게 아첨했던 자들에게 멸시 받으리라.

“그들은 신권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지 못할 것이요, 그들의 뒤를 이을 후손도 대대로 가지지 못하리라.”²³

최선을 다해 복음대로 생활하며 지도자들을 지지하는 이들에게는 그러한 무서운 형벌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과거에는 냉담하거나 적대적인 행위의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하여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버린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형벌이 가해지지 않습니다.²⁴

헝클리 회장은 최근 총관리 직원들과의 모임에서 총관리 직원들은 모두 평범하게 생업에 종사하다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에게는 성스러운 성역을 수행할 책임이 지워져 있음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초기 십이사도에게 하신 주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²⁵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의 한계를 느끼지만, 하나로 뭉치면 힘이 생깁니다. 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형제들이 교회 역사상 지금보다 더 단합된 모습을 보인 적은 없습니다.

매주 우리는 성전에서 함께 만납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로 모임을 시작하고 기도로 마칩니다. 모든 기도는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를 그분의 종과 증인으로 세우신 그분께 드리는 겸손과 순종의 영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이 정원회들 중 어느 하나가 내리는 결정은 그 정원회의 만장일치의 지시로 내려져야” 하며, “이들 정원회 ... 결정은 모든 의로움으로, 거룩함과 겸손한 마음,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신앙과 덕과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애와 자애로 내려져야만”²⁶ 한다고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진실로 그렇게 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의 시초부터 어느 때든지 경륜의 시대를 받은 모든 자와 관련하여 ... 지니고 있는”²⁷ 신권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성스러운 직분을 수행하셨던 분들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때로는 그들이 우리와 함께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 성스러운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하신 주님의 다음 말씀에 압도됩니다. “... 성신으로 감동되었을 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경전이 되며, 주의 뜻이 되며, 주의 생각이 되며, 주의 말씀이 되며, 주의 음성이 되며, 구원에



사도직

“사도의 부름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신권의 열쇠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직분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의 면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에 필요한 모든 신권, 모든 열쇠, 모든 은사, 엔다우먼트와 기타 모든 것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것들은 사도직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브리검 영 회장(1801~1877),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1997년), 138쪽.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²⁸

극심한 고난의 시기에 주님께서는 경전을 통틀어 제가 아는 한 가장 준엄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부 성전 건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은 경험을 통해 성전 건립을 진행한다면 혹독한 박해가 야기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성전 건립을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한을 연장시켜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지정된 기간의 끝에 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면, 너희는 교회로서 너희의 죽은 자들과 함께 버림을 당하리라, 주 너희 하나님이 이르노라.”²⁹

그 계시에서 다음의 놀라운 약속이 자주 간과되고 있습니다. “만일 나의 백성이 내 음성과 내 백성을 인도하도록 내가 임명한 나의 종들의 음성을 들으면, 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자리에서 옮겨지지 아니하리라.”³⁰

이 약속을 기억하고, 굳건히 붙잡으십시오. 행복한 가족을 이루는 필수적인 표준에 대해 더욱더 냉담하거나 심지어 적대적인 양상까지 보이는 사회 속에서 가족의 결속을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은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주님께서 무리에게 하신 다음 말씀의 또다른 표현입니다. “너희 중에서 내가 택하여 너희에게 성역을 베풀게 하고 너희의 종이 되게 한 이 열둘의 말에 주의를 기울일진대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³¹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세우신 분들의 음성에 귀기울이는 사람들은 “자기 자리에서 옮겨지지 아니하리라”³²는 약속을 되풀이하여 드립니다.

하지만 이 약속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가 따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또 내가 임명한 이 사람들의 음성도 듣지 아니하면, 그들은 복을 받지 못하리니.”³³

우리가 나누어 주어야 하는 가장 귀중한 것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증거,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증언입니다.

저와 함께 성임된 열네 분은 진실로 사도들임을 제가 보증합니다. 이를 선포함에 있어 저는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치셨다는 것과 개인적인 영의 증거를 얻고자 진실한 마음과

진정한 의도로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진실됨을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리라는 것 외에 더 이상 아무 말도 않겠습니다.

이분들은 주님의 참된 종들입니다. 이분들의 권고에 귀기울이십시오. 특별한 증인으로 사도와 같은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칠십인과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부름 받은 감리 감독단의 권고에도 귀기울이십시오.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인도하도록 부름을 받고, 그 무엇보다도 값진 지식을 얻은, 교회의 형제 자매들의 권고에도 귀기울이십시오.

영이 우리에게 말하도록 허락하신 것에는 제한이 따릅니다.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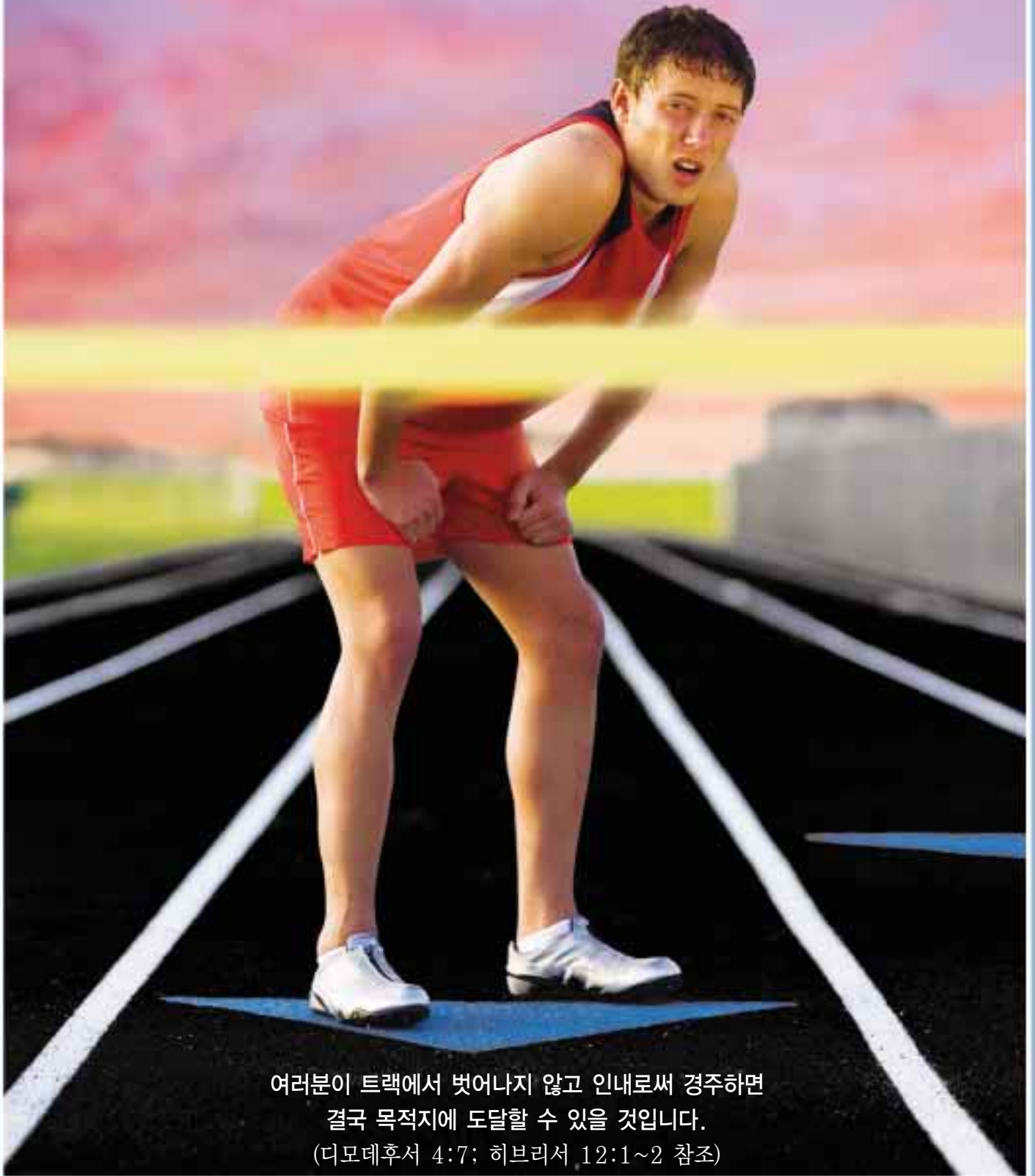
그러므로,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선지자이신 교회 회장을 통하여 “온 지면 위에서 유일한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³⁵를 관리하고 계시다는 특별한 간증을 드리며 저의 간증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1996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

주

- 1. 누가복음 6:12~13.
- 2. 마태복음 16:19.
- 3. 에베소서 4:12~13.
- 4. 에베소서 4:14
- 5. 에베소서 2:20; 신앙개조 제6조 참조.
- 6. 교리와 성약 27:12~13.
- 7. “교회 지도자들의 글이나 말씀은 언제 경전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가?” Church News, 1954년 7월 31일, 9~10쪽.
- 8. Church News, 1954년 7월 31일, 10쪽.
- 9. 교리와 성약 107:33.
- 10. 교리와 성약 112:17; 107:35; 124:128 참조.
- 11. 성서 사전, “사도”, 612쪽 참조.
- 12. 교리와 성약 112:19.
- 13. 교리와 성약 112:10.
- 14. 교리와 성약 107:23.
- 15. “십이사도”(세미나리와 종교 교육원 교사에게 행한 출판되지 않은 말씀, 1958년 6월 18일.)
- 16. 니파이후서 32:3.
- 17. 모로나이서 7:31~32.
- 18. 교리와 성약 46:27.
- 19. 십이사도 선임에 관한 선언, 1844년 3월 십이사도 모임 보고, 브리검 영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기록 보관소.
- 20. 교리와 성약 112:26.
- 21. 교리와 성약 112:9.
- 22. 이사야 29:21; 니파이후서 27:32 참조.
- 23. 교리와 성약 121:16~17, 19~21.
- 24. 교리와 성약 58:43 참조.
- 25. 요한복음 15:16.
- 26. 교리와 성약 107:27, 30.
- 27. 교리와 성약 112:31.
- 28. 교리와 성약 68:4.
- 29. 교리와 성약 124:32.
- 30. 교리와 성약 124:45.
- 31. 제3니파이 12:1.
- 32. 교리와 성약 124:45.
- 33. 교리와 성약 124:46.
- 34. 엘마서 12:9 참조.
- 35. 교리와 성약 1:30.

결승점



여러분이 트랙에서 벗어나지 않고 인내로써 경주하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7; 히브리서 12:1~2 참조)

성공적인

가정의 밤을 위하여

필리핀의 십대들은 훌륭한 가정의 밤을 갖는 데 자신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아담 시 올슨
교회 잡지

물 문경의 선지자인 리하이(Lehi)는 예루살렘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행 동안 파워 포인트 발표를 결코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에리카 샌틸란은 리하이가 파워 포인트로 자신의 생이 발표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에리카의 가족은 그 발표가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필리핀 타이타이 스테이크, 케인타 제2와드의 월계반원인 에리카는 가정의 밤을 즐기지만 때때로 몇몇 공과가 다른 공과보다 흥미를 느끼기가 더 쉬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이 니파이전서 8장에 있는 리하이의 꿈에 대한 공과 차례가 되었을 때 더 재미있게 하고 싶었다.

“우리는 교회 비디오를 보고 그것에 대해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리하이의 꿈을 생생하게 더 잘 그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파워 포인트 발표를 했어요.

그것은 정말로 첨단 기술이었어요.”라고 에리카가 씩웃으며 말한다.

에리카의 열성과 창의성으로 그녀의 가족은 경전을 더 잘 이해했을 뿐 아니라 가정의 밤이 주는 그 외의 축복도 누릴 수 있었다.

필리핀의 모든 청소년들은 성공적인





가정의 밤이 되도록 하는 데에 자신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성공의 비결

필리핀 청소년들은 성공적인 가정의 밤의 비결을 알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청소년들 중 하나다. 여러분이 가정의 밤을 잘 준비하면 할수록 그것으로 여러분은 더 큰 유익을 얻을 것이다.

테이태이 제1와드의 월계반원인 미셸 앤젤린 라미레스에 따르면 모든 것은 훌륭한 태도를 가지고 기꺼이 참여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래야 재미가 있죠.”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페리 장로는 청소년들에게 가정의 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한 역할을 담당하라고

권고해 왔다.

“가정의 밤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모든 짐이 부모에게만 맡겨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가족 중 어린 자녀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때 가장 성공적인

가정의 밤이 되는 것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저는 위대한 집사, 교사와 제사, 그리고 위대한 꿀벌반원, 장미반원, 월계반원 여러분이 가정의 밤의 성공을 위해 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나는 … 배웠고”, 성도의 빛, 1994년 7월호, 37쪽)

여러분의 참여는 꼭 첨단 기술의 컴퓨터 발표가 아니어도 된다. 이들 필리핀 청소년들은 매주 기여할 간단한 방법을 찾고 있다. 단지 기도를 한다든가, 성구를 한 구절 읽는다든가, 음악을 인도한다든가, 다과나 활동을 담당함으로써 조화의 영을 불러올 수 있으며 형제 자매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일 수 있다.

그런 다음 공과를 하는데, 다소 긴장되겠지만 공과를 함으로써 좋은 경험을 얻을 수 있다. “저는

이들 필리핀의 청소년들은 가정의 밤을 그냥 즐기지 않는다; 그들은 가정의 밤을 재미있게 만든다. 카일러 미츠. 위쪽: 에리카 샌틸란, 카일러, 밀리자 앤 라미레스 및 미셸 앤젤린 라미레스. 삽입: 드웨인 호세

제가 한 첫번째 공과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먼저 친절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어요.”라고 리-앤이라 통하는 17세인 밀리자 앤 라미레스가 말한다.

“제가 가르친 공과를 기억해요.” 리-앤의 언니인 미셸 엔젤린이 말한다. “저는 더러운 말에 대한 포스티(성도의 벗, 1991년 4월호 참조)를 사용해서 공과를 했는데 우린 그것을 친척 몇 분에게 보내려고 비디오로 찍었어요. 우린 지금도 가끔 그것을 봐요.”라고 말하며 그녀가 웃는다.

태이태이 제1와드의 장미반원인 카일러 밋즈는 “가정의 밤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가족이 더 가까워져요.” 라고 말한다.



놀라운 일

“우리 옛날 집의 거실에서 가졌던 그 간단한 모임(가정의 밤)으로부터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커졌으며, 형제 자매간의 사랑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역시 점점 더 커졌습니다. 작은 친절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은 부모님이 교회 회장님의 권고에 따랐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가정의 밤”, 리아호나, 2003년 3월호, 3쪽.

복음 원리를 배우는 것을 포함하여 가족에게 특별한 축복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발견했다.

“가정의 밤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가진 문제들에 대해 얘기해요. 우리는 다같이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위해 기도해요.”라고 태이태이 제2 와드의 꿀벌반원인 리어 레이즈가 말한다.

카일러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단지 얘기만 할 수도 있어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도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에 대해 배워요.”

미셸 엔젤린은 “우리는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해요. 함께 배우고 즐기고 대화를 나누어요. 함께 대화하다 보면 우리는 더욱 가까워져요.”라고 말한다.

성공의 축복

필리핀 청소년들은 가정의 밤이 가족간의 대화를 증진시키고, 가족을 더 가깝게 해주며 중요한

청소년들은 가정의 밤이 부모님과 숨김 없이 얘기할 기회가 되는 것에 특별히 감사한다. “가정의 밤에 부모님은 심각한 것들도 얘기해 줘요. 가정의 밤은 가족과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라고 에리카가 말한다.

이러한 축복들은 가족을 강화시키고 가족 서로를 더욱 가깝게 해줄 수 있다. 때로는 세상 여러 곳에서의 유희으로 성공적인 가정의 밤을 갖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가정의 밤을 갖기 위한 노력은 그 만큼 가치 있는 일이다.

“가정의 밤을 갖는 주는 일주일 내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만약 가정의 밤을 갖지 않는다면 그 주는 불완전하다는 느낌을 갖게 돼요.”라고 케인타 제1와드의 제사인 드웨인 호세가 말한다. ■



마닐라의 월요일 밤

아담 시 올슨

교회 잡지

마닐라의 월요일 밤은 얼핏 보기에는 다른 밤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도시의 교통은 마치 동시에 서로 다른 두 방향에서 같은 가느다란 나뭇가지를 서로 쓰러고 온 힘을 다해 구물거리는 백만의 개미떼 같이 움직이고 있다. 예외가 있다면 이들 개미들은 경적을 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실제로 필리핀의 가정의 밤을 보려고 벨라스코의 집에 가고 있었다. 그러나 퇴근 시간이라 길이 많이 막혔다. 결국 우리 안내자는 지름길을 택하겠다고 말했고 우리는 좁은 길가에 서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가득 찬 좁은 길로 들어섰다.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웃으며 서로를 큰소리로 부르면서 쇼핑을 즐기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의 소형차가 그들의 야외 쇼핑 센터 가운데를 조금씩 움직여 빠져 나가는 것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

우리가 시장이 끝나는 지점에 있는 벨라스코의 집에 마침내 도착했을 때는 확연히 대조되는 상황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 그들의 집에 들어가자 북적대던 바깥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진 듯 보였다.

그들은 아직 공과를 위해 자리에 앉지 않았지만 가정의 밤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 여섯 살짜리 스티븐은 벨라스코 부부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얘기하는 동안에 벨라스코 자매의 무릎에 앉아 있었다. 열네 살인 케빈과 커비는 열다섯 살인 나오미가 말한 것에 대해 웃었다. 열한 살짜리 카트리나는 경건과 찬송가를 놓아두고 있었다

모든 사람과 인사를 나눈 후에 우리는 가족과 함께 앉았다. 할아버지께서 개회 기도를 했다. 벨라스코 형제가 재능에 대해 얘기했다. 토론 동안 그 가족은 타갈로그어와 영어 가운데 잘 맞는 말로 쉽게 바꾸었다. 카트리나와 나오미는 마태복음 25장 14~30절에 있는 달란트의 비유를 번갈아 읽었다. 벨라스코 형제는 기타를 꺼내어 노래로 자신의 재능을 보여 준 다음 커비에게 기타를 넘겼고 그도 노래를 연주했다. 벨라스코 자매는 스티븐의 폐회 기도를 도와 주었고 그러고는 특별 음식으로 집에서 만든 피자를



가지러 모두 부엌으로 갔다.

모두가 피자를 먹고 있는 동안 그들에게 가정의 밤에 대한 느낌을 물을 기회가 있었다.

“커비는 가정의 밤의 어떤 부분이 가장 좋아요?” 불행히도 커비가 피자를 한 조각 막 입에 넣던 중이었다. “다과 순서요.” 입에 음식이 가득한 채로 커비가 말했다. 모두가 웃었다.

“웃음이에요.” 킁킁거리던 웃음이 진정되자 나오미가 말했다.

“가정의 밤은 여러분의 가족에게 무엇을 해주었어요?” “우리를 결속시켜 주었어요.” 케빈이 말했다. “우리의 생각과 느낌들을 나눌 때 그렇게 되죠.”

훌륭한 대답이었지만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기를 확인하고 싶어 다시 물었다. “정말이에요?”

그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가정의 밤 때문에 우리는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 다정하게 대해요.”라고 나오미가 대답했다.

그것은 분명했다. 가정의 밤의 축복은 역시 분명히 있었다. 나는 아쉬움을 남긴 채 인사하고 끝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 나왔다. ■



매주 월요일 밤,
벨라스코네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세상
밖으로 나온다. 맨 위:
커비, 케빈, 찰스 벨라스코
형제, 카트리나, 자넷
벨라스코 자매, 스티븐,
그리고 리아호나 기사를
읽고 있는 나오미. 위쪽:
커비가 기타를 연주하고
있다.



가족 강화

가족 생활의 행복

여러분이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연구하고 활용하도록 통찰의 기회를 주는 연재 기사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은 신앙, 기도, 회개, 용서, 존경, 사랑, 동정심, 일, 그리고 건전한 오락 활동 등의 원리 위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¹

행복을 성취함

행복한 가족 생활은 이 지상 생활뿐 아니라 앞으로의 영원한 세상에서도 주된 목표이며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은 그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는 다른 사람들의 선택의지로 인한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선택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하늘에 이르도록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일을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는 가족들에게 하늘의 힘을 끌어내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임을 결심할 수 있습니다.”²

가정에서의 가르침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부모는 가장 훌륭한 교사입니다. 그들은 모범으로 가장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친절과 용서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및 그 밖의 복음을 실천하는



부모가 자신들의 삶에서 주님의 영을 구할 때 그들의 모범은 자녀들에게 밝게 비칠 것이다.

모든 덕성을 보여주고 배우는 이상적인 장소입니다.”³

자녀들을 복음의 원리에 따르기 위해 전념하는 성인으로 자라게 하는 일은 오늘날의 세상에서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부모는 혼자가 아니다. 그들은 하늘 아버지의 동반자다. 선교사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다. “나는 너희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있을 것이요, 나의 영은 너희 마음속에 있을 것이요, 나의 천사들은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받쳐 주리라.”(교리와 성약 84:88)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선교사의 일이므로 이와 유사한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회장(1895~1985년)은 언젠가 이렇게 가르쳤다. “빛을 비추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양초가 되거나 양초를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둘 다 될 수 있습니다.”⁴ 부모가 자신들의 삶에서 주님의 영을 구할 때 그들의 모범은 자녀들에게 밝게 비칠 것이며 그들의 선행은 훨씬 더 큰 빛을 반사하게 될 것이다.

훈육

때때로 자녀들에게는 교정과 훈육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교리와 성약 121편 41~44절을 주의깊게 공부해야 한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도 다음과 같은 현명한 권고를 했다. “가족에게는 훈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혹독한 훈육, 무자비한 훈육은 아이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분개와 슬픔만 가져다줄 뿐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치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킵니다.”⁵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은 “자녀들을 강제로 순종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는 우리의 가장 좋은 방법은 확고한 태도, 사랑, 인내, 친절, 설득, 그리고 이성입니다.”⁶

가족이 함께하기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더욱 강하게 된다. 옥스 장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가족은 아침 저녁으로 함께 무릎을 꿇고 축복에 대한 감사와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가족은 함께 교회 예배 모임과 가족 영적 모임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가족은 공부하고 배워야 합니다. …

“가족은 함께 일해야 합니다. … 가족은 또한 함께 놀아야 하므로 행복한 오락 경험은 가족 활동과 연관된 것이어야 합니다.

“가족뿐 아니라 가족을 이루고 있는 개개인의 모든 문제는 가족이 함께 의논해야 합니다.

“가족은 함께 먹어야 합니다. 식사 시간은

가족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가족이 언쟁을 한다거나 마치 패스트 푸드 식당처럼 각기 음식을 집고 흩어짐으로써 대화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런 일입니다.”⁷

봉사와 사랑

부모가 온갖 노력을 다해 자녀를 가르치며 가족을 단합시키려 해도 때때로 자녀들은 다투며 반항하기도 합니다. 가족 간에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행복을 위한 전투에서 일시적으로 지고 있는 자들로서 그들은 아이어령 장로의 다음 약속을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한다면 그 사람에게 대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또한 여러분에 대한 주님의 사랑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⁸ 때때로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즉각적인 보상을 바라지 않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노력으로 평화를 불러오게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폭풍우가 지나가고,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이러한 노력은, 우리가 가장 바라는, 현세와 영원에 걸친 가족의 행복이라는 열매를 가져올 수 있다. ■

주

1.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2. “가족”, *리아호나*, 1998년 10월호, 22쪽.
3. “Parental Leadership in the Family”, *Ensign*, 1985년 6월호, 9쪽.
4. 1974년 스웨덴 스톡홀름 지역 대회 보고, 49쪽.
5.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 *리아호나*, 2001년 3월호, 5쪽.
6. “가족이 직면하는 도전”,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4년 1월, 3쪽.
7. *Ensign*, 1985년 6월호, 10~11쪽.
8. *To Draw Closer to God*(1997년), 88쪽.

우리는 그 애의 병 고침을 기뻐했습니다

막달레나 페냐테 데 게라

20 02년 6월 2일, 7개월밖에 안 된 나의 작은 손녀딸, 수전

멜리너가 병에 걸리자 그 애의 부모는 딸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신장염이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 애는 또한 몸 전체로 퍼진 심각한 세균 감염으로 인해 심장, 간, 비장, 신장, 폐, 그리고 신경과 소화 기관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 애는 너무 아파 집중적인 보살핌이 있어야 했습니다.

의 사는 수전 멜리너의 부모에게 그 애가 언제든지 죽을 수가 있으므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의사는 그 애의 부모에게 딸이 언제든지 죽을 수 있으므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 애는 항생제와 많은

혈관 주사를 맞으면서 26일 동안 집중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한편 우리와 그 애의 가족은 자주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애가 완쾌되도록 기적이 일어나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두 신권 소유자가 그 애에게 기름을 붓고 축복했습니다.

수전 멜리너가 병원에 있는 두 주일 동안 그 애의 엄마도 응급 맹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는 온 가족에게 힘든 시련이었습니다.

병원에 들어간 지 20일이 지나도 수전 멜리너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한 사람의 관대함으로 그 애의 부모는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립 병원으로 그 애를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딸 수전 캐럴라이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는 내가 관리인으로 일하는 과테말라시티 과테말라 성전에

있었습니다. 딸은 아기의 상태가 더 나빠졌고 이제는 심장 부위까지 감염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들의 말에 따르면 그 애는 완전히 영양

부족이라서 어떻게 손을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애는 병이 깊어 내출혈이 될 수도 있어서 그 애를 안는 것조차 위험했습니다.

나는 그 상황을 알고 즉시 나의 하늘 아버지께 기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금식했습니다.

다음날 일요일에 딸이 전화로 세균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들은 수전 멜리너가 위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월요일에 퇴원시킬 예정이었습니다.





이 큰 기적을 기뻐하면서 우리는 모든 신앙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그렇게 빨리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늘 아버지께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나는 그분이 살아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

막달레나 페냐테 데 게라는 과테말라시티 과테말라 빌라 에르모사 스테이크 빌라 카날레스 와드의 회원이다.

그들을 쫓아버리겠어

존 하이로 몬토우야

당시 나는 스무 살이었고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의 회원으로서 내 인생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와 도덕 철학을 생각하게 되었고, 비록 그것들이 어느 것도 옳게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 3년 동안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 댁에 가 보니, 거기에 형과 나의 제일 친한 친구가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젊은 여자 몇 명이 방문해서 형에게 책 한 권을 주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형은 내 친구에게 그들이 다시 올 때 집에 있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형은 내 친구가 그들에게 다시는 오지 말라는 말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다시 왔을 때 내 친구는 “토론을 듣고 싶으니 삼일 후에 다시 오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형은 화가 났습니다. 나는 친구에게 무슨 생각에서 그랬냐고 물었고,

그는 단순히 “글쎄, 그들이 너무 아름다웠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좋았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그들을 쫓아버리지.” 나는 거만하게 대꾸했습니다.

두 주일이 지났고 내가 그렇게 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나의 형과 여동생 및 나의 많은 친구들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방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 복병의 책임자가 누군지 나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가 되자 형은 제 친구 중 두 명이 이미 침례를 받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는 자전거를 타고 도시로 돌아가 내가 할 수 있는 한 빨리 집회소로 갔습니다.

일요일에 침례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내 친구의 침례를 보기 위해 일요일에 교회에 가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미친 짓이야.”라고 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 일요일에 나는 마침내 내 머리를 그토록 아프게 했던 두 선교사들을 만났습니다. 침례식이 끝나자 그들이 내게 다가와 물문경을 주면서 첫 토론을 듣도록 권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반항하며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외면 상으로는 그들의 초청에 “예”라고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나는 또 한 명의 친구가 침례 받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요일에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와 나도 침례의 물로 들어갔습니다.

거의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저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이 참되다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나는 교회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서 기도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도시에서 9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언덕으로 갔습니다. 나는 거기서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평화로운 한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물몬경을 읽고, 깊이 생각하고, 응답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던 거의 한 시간 뒤에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교회로 가야겠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나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응답이었습니다.

정신없이 자전거를 타고 나는 도시로 돌아가 내가 할 수 있는 한 빨리 집회소로 갔습니다. 놀랍게도 모임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며 이 교회가 그분의 교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예전에 쫓아버릴 수 없었던 그 자매들과 똑같은 선교사가 되고자 노력하면서 전임 선교사로서 전한 메시지입니다. ■

존 하이로 몬토우야는 콜롬비아 페레이라 스테이크 카르타고 와드의 회원이다.

나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앤젤리크 페트릭

몇년 전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퇴근을 하고 두 자녀들을 데리러 가서 차에 태운 뒤 집으로 돌아오고 있던 중 나는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이 들자마자 나는 계기판 너머로 나의 오른쪽 앞에 있는 소형 트럭을 보았습니다. 곧 충돌 때문에 나는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내가 깨어났을 때 차는 옆으로 쓰러져 있었고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차의 엔진이 불타고 있었으므로 나와 아이들이 밖으로 나오도록 돕기 위해 몇 명의 사람들이 달려 왔습니다. 나는 온몸이 너무 아팠지만 다행히 아이들도, 나도 중상을 면했습니다. 그 순간에 내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상대방 차에 탄 사람들에게 대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상대방 차에 탔던 사람들에게 대해 알아보려고 했으나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병원 카운슬러가 내 입원실에 와서 상대방 차의 운전자가 사망했다는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나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 사고 이후로 나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를 받았던 것입니다. 나는 또한 생명을 잃은 남자의 아내가 그 차에 타고 있었고 그녀도 중상을 입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기속이었고 대부분의 자녀들이 성장하여 자립하고 있었지만 몇 명은 아직 집에 남아 있는 처지였습니다. 나로 인해 다른 한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아내는 남편을 잃었으며, 자녀들은 아버지를 잃었고, 손자들은 할아버지를 잃게 되었다는 생각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나의 몸의 상처는 나았으나 정신적, 정서적인 상처는 낫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계속 자문했습니다. 사고였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내 마음이 더 편해지진 않았습니다.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상대 운전자의 가족이 가질 느낌을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나는 사고 전의 생활로 돌아가려 애썼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뿐이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었고,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나의 가장 귀중한 부름을 완수할 수도 없었으므로 나는 하늘 아버지께 나의 고난과 고통을 털어 달라고 간청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문을 열고 한 남자가 현관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매우 근엄해 보였지만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한 마디 말도 없이 그는 상자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선물들을 받고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하며 기다리면서 그냥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나는 그 남자에게 내가 아는 분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그의 성씨를 인식하자마자 바로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그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맏아들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고 우리는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우리 가족이 아는 몇몇 친지들을 통해 내가 힘들어 하고 있음을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가 자기에게 만약 자신이 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느꼈을지를 물었고, 그래서 그가 우리 집으로 오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의 가족은 그 일이 사고였으며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의 부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가 좋아지고 있음을 알려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께안고 잠시 울었습니다.

그가 준 봉투 안에는 나의 가족과 나에게 대한 그들의 기도와 생각들을 표현한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자 속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장식된 조그만 나무 장식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일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루가 끝날 때 우리가 아무리 애써 노력해도 올 이유가 많습니다. 부디 우리에게 천사들을 보내 주셔서 두려움에 싸인 우리를

위로하시고 조금이나마 활기 찬 생활로 돌아가게 도와 주소서. 아멘.”

나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나는 그 날 밤, 그 사고 이래 두 주일만에 처음으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가끔 그 남자와 그의 아내를 만나고 있으며 그들은 언제나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으며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묻습니다. 나는 그들의 사려 깊음과 비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해 겸손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연차 대회 일요일의 오전과 오후 모임 중간에 현관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그 곳엔 그 사람뿐 아니라 그의 어머니와 남동생까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래 머물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의 방문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은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다음 성구가 새겨진 아름다운 그리스도 그림이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라”(마태복음 11:29) 그 어머니와 나는 께안고 울었습니다.

그 가족은 내게 내가 결코 알지 못했던 종류의 사랑과 용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와 구주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대한 그분들의 사랑을 전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하늘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알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면서 때로는 구주의 속죄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고통을 없앨 필요가 있음을 압니다. 나는 내 기도가 응답되도록 그 가족이 영의 속삭임을 느끼고 따라 준 것에 감사드립니다. ■

앤젤리크 페트릭은 투엘러 유타 이스트 스테이크 화이트 파인 와드의 회원이다.

내 자녀들과 나는 중상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친 차량의 탑승자들에 대해 걱정이 되었습니다.



직장을 찾아, 삶을 고양하며

교회의 취업 프로그램들은 국제적인 범위와,
그것을 접한 사람들의 삶을 고양시키는
장기적인 힘을 갖고 있다.

닐 케이 뉴얼
복지 서비스부

엘 살바도르의 야니라 토레스에게도 행복한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남편은 그녀를 떠났고, 그녀는 자신의 부모와 함께 살아야 했으며, 직장도 없었고 수입도 없었다. 설상 가상으로, 그녀의 어린 딸은 병이 들었고, 지속적인 보살핌을 필요로 했다. 교회 회원이었던 그녀는 LDS(후기 성도) 취업 자원 서비스에 대해 들었다. 산 살바도르에 그 사무실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딸의 건강이 호전되기 전까지, 그녀는 정규직은 고사하고 일자리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

직업이 없었던 야나라의 아버지 호세는 교회 회원은 아니었지만 LDS 취업 센터를 방문해, 딸을 돕기 위해 자신이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자고 제안했다. “너에게 유용할 수도 있는 무언가를 센터에서 가져올 수

있을지도 몰라.”라고 그는 말했다.

그 결정은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호세는 직업 워크숍에 등록했고 그 곳에서 배운 원리들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6개월이 안 되어, 그는 훌륭한 회계직을 찾았을 뿐 아니라 그의 아내와 함께 침례를 받고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

한편 야나라도-딸의 건강이 호전된

후에-센터에서 배운 것을 적용하여 접수 계원으로 취직했다.

엘 살바도르의 산 살바도르에 있는 LDS 취업 센터 관리자 루디 로드리게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가족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오늘은 가족에게 무얼 먹일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걱정해 시달리느라 다른 일을 할 시간은 거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자신과 자녀들을 돌볼 기회인 직장을 찾게 되었을 때, 그것은 그들의 삶에 일대 변혁을 가져옵니다.”

대부분의 변혁들과는 달리, 이것은 조용한 변혁이었다.

다양한 지역에 취업 센터를 여는 것은 많은 교회 회원들의 주목을 받는 활동이 아니라 교회 복지 서비스부 관리 책임자인 해롤드 시 브라운은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삶에서 주요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1999년에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사람들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여 직업을 얻고,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거나, 소규모 사업체를 발전시키는 일을 지원하기 위해 교회의 국제 지역에서 취업 센터의 수를 크게 증가시키는 안을 승인했다. 6년이 지난 지금, 전세계 43개국에서 교회의 취업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2004년에 이 사무실들은 200,000명 이상에게 새로운 교육의 기회와 일자리, 자영업자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국제적인 고용 노력은 실업과 불안전 고용 비율이 심각한 나라에 사는 교회의 회원들에게 매우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많은 나라에서, 회원들의 경제적 상황을 호전시키도록 도와 주는 일에 있어 이에 필적할 만한 서비스는 드물다. 그 결과, 교회의 이러한 노력은 수천 가족과 귀환 선교사들, 그리고 지역 교회 지도자들의 삶에 축복이 되었다.

국제 취업 자원 센터

LDS 취업 자원 서비스 책임자인 티모시 큐 슬로안은 세계 어디에서든 취업 자원 센터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 “우리 사무실들은 전문적인 시설을 갖추고

지역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사무실에는 컴퓨터와 인터넷 시설이 있어 구직자들이 채용 소식과 구직 정보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자원과 지역 학교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무실과 자원 봉사자 직원들이, 낙담하고 희망을 잃은 실업자 회원들이 와서 환영 받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무실 운영진은 대부분 교회 자원 봉사자들과 선교사로 이루어져 있지만, 일부 사무실에는 월급을 받는 정규 직원들이 있다. 이 직원들은 일자리를 찾으러 오거나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을 지원할 뿐 아니라 지역 사업체, 교육, 정부 지도자들과의 연계를 구축하는 데 시간을 쏟는다. 이 네트워킹의 결과로 수천 개의 일자리와 교육 보조금, 장학금들을 찾게 되었다.

멕시코 시티의 LDS 취업 자원 서비스 관리자인 마르코 플로레스는 LDS 취업 센터의 지원자들을 인터뷰하기로 마침내 동의한 한 회사에 대해 말한다. “그 후에 곧, 그들은 제게 다시 전화를 걸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보낸 사람들은 담배도



위: 취업 프로그램은 아니라 토레스와 그녀의 딸뿐 아니라 그녀의 부모에게도 축복이 되었다.(삽입) 아래: 많은 이들이 파라과이 아순시온에 있는 취업 자원 센터에서 희망을 찾는다.



삽화: 캐리 블랜드; 오른쪽 맨 위: 사진 촬영: 아비스트 캐논; 오른쪽 맨 아래: 복지 서비스부의 직원을 본머리 사진 제공함.

피우지 않고 술도 안 마십니다. 그들은 정직해요. 전문가다운 복장을 합니다. 더욱이, 당신들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도 돈을 받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죠?”

그들은 이것이 교회가 그들의 회사에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것을 거의 믿지 못한다. 교회의 몇몇 회원들을 고용한 후에, 그 회사는 이제 LDS 취업 서비스에 더 정기적으로 전화를 한다. “공석이 있습니다, 후기 성도가 그 자리를 채워 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들은 말한다.

브라질의 취업 관리자인 파울루 아라우조는 그의 나라에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일자리를 못 찾는 귀환 선교사들의 수라고 설명한다.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슬로안 형제는 브라질을 여행하면서 성인들이 고등학교 졸업장을 획득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몇몇 학교를 방문한 일을 기억한다. “그 중 한 학교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6개월 과정에 참석한 학생들의 90퍼센트 이상이 성공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학교는 재정적으로 별 문제가 없었음에도, 빈 책상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채울 수만 있다면”이라고 학교 책임자가 말하자 슬로안 형제는 그 책임자에게 학교에 다니는 것에 관심이 있을지도 모르는 귀환 선교사들에 대해 말했다. “우리가 이 젊은이들에게 고등학교 졸업장을 얻기 위해 당신의 학교를 고려해 보라고 제안한다면 어떻겠습니까?”라고 그는 물었다.

“오, 그런 학생들을 갖게 된다면 우린 정말 기쁠 것입니다!”라고 그 책임자는 대답했다.

“만일 우리가 당신에게 학생들을 많이 보내 준다면, 그들이 등록금의 10, 20, 혹은 50퍼센트까지 할인을 받는 게 가능할까요?”

“물론이죠”라고 책임자는 말했다. 그러한 것은 정말 가능했다. 협의가 끝날 때, 그들은 등록금의 45퍼센트를 보조해주는 데 동의했다. 그런 할인 혜택을 받은 후에, 이 학교에 등록한 귀환

선교사들의 절반 이상이 개발 도상국에 사는 회원들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교회의 영구 교육 기금을 신청했다. 이런 조치는 그들의 교육을 가능케 했다.

LDS 취업 센터들은 영구 교육 기금 관리부와 긴밀한 연계 하에 일한다고 슬로안 형제는 설명한다.

“PEF(영구 교육 기금) 학생 지원자들은 직업 훈련소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 곳에서 그들은 여러 직업과 학교들을 탐색해 볼 수 있지요. LDS 취업 자원 서비스는 PEF 학생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구하고



보조금, 장학금, 혹은 대출과 같은 보조 기금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학생들이 졸업한 후, LDS 취업 자원 서비스는 그들이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정규직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취업 센터 관리자들이 지역 사회에서 기회들을 찾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페루에서 직업을 구한 사람들은 지난 삼 년간 거의 두 배가 되었다. LDS 취업 자원 센터 관리자인 베네딕토 파체코는 그 비결이 회사 및 정부 기관들과 장기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페루 리마에서 교회 취업 센터는 정부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확립했다. LDS 취업 센터는 매일 250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명시하는 정부의 취업



데이터 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으며, 취업 센터는 그 자리들을 채울 사람들을 찾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채워지는 일자리는 단순히 저임금직들만이 아니다. 최근에 리마에 있는 LDS 취업

센터에서는 40명을 간부직에 취직시켰다. 이 사람들은 가족들을 더 잘 부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훌륭한 대사로 봉사할 수 있다.

취업 자원 센터들은 소규모 사업체를 발전시키는 교실을 운영한다. 파체코는 “우리 나라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그들이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 자영업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자기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자영업 워크숍을 제공합니다. 올해, 페루에서 150명 이상이 LDS 취업 자원에서 제공한 지식과 자원들을 사용하여 소규모의 사업체를 시작했습니다.”

워크숍

진로 워크숍은 사람들이 그들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재능과 기술을 찾아낼 수 있는 또 다른 주요한 수단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희망과 동기를 창조하는 흥미진진한 발견의 과정이다. 워크숍에서는 취업 자리나 등록할 학교를 구할 때 커다란 이점을 제공해 주는 구체적이고, 사용 가능한 기술들을 가르친다. 그 이점은 종종 보람 있는 직업과 좌절 및 낙담이라는 차이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남미의 한 스테이크 회장은 직업을 찾기 위해 고통스러운 한 해를 보내다가 마침내 진로 워크숍에 등록했다. 그 곳에서 배운 결과,

그는 옷 입을 방식을 바꾸었고, 이력서를 다시 작성했으며, 30초 길이의 자기 소개서를 준비하고, 면접에 대한 연습을 했다. 그는 자신이 배운 기술들로 무장하고, 대기업의 최고 재정 책임자로 취직했다.

자영업 워크숍은 소규모 사업체를 시작하거나 발전시키기 원하는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가족들에게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다. 워크숍에서는 사업체를 키울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와 전략들을 가르친다. 그 곳에서는 또한 소기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거나 소자본을 제공하는 기관들 혹은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기관들을 회원들에게 소개해 준다.

진로 워크숍과 자영업 워크숍은 세계 곳곳에 있는 대부분의 LDS 취업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며 회원들과 그들의 친구들이 이용할 수 있다. 덧붙이면, 와드와 스테이크(혹은 지부와 지방부)의 취업 전문가들은 그들의 지역에 있는 회원들을 위해 워크숍을 제공할 수 있다. 등록하기 위해서는 취업 전문가 가장 가까운 LDS 취업 자원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걸기만 하면 된다. 이 과정은 2, 3일에 걸쳐 10~12시간 동안 진행된다.

맨 왼쪽: 과테말라시에 있는 취업 자원 센터에서, 지도 교사가 젊은 청년의 구직을 돕고 있다. 위: 브라질에서 이 학생들은 연구 교육 기금과 학교의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 고등학교 졸업장을 목표로 공부할 수 있었다. 아래: 많은 취업 센터들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이와 같은 직업 박람회를 후원한다.





LDS 취업 자원 서비스는 주로 교회 회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센터에 올 수 있다.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각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다른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도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볼 때, 그들은 종종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라고 파울루 아라우조는 말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칠레 산티아고에서만 200명이 LDS 취업 센터를 통해 교회를 알고 침례 받았습니다.”

자원 봉사단

LDS 취업 자원 서비스의 일 중 상당 부분은 자원 봉사자들의 도움에 의존한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취업 자원 센터가 문을 연 다음날,

15명의 자원 봉사자(그들 중 10명은 전업 주부)가 예고도 없이 도착했다. “그냥 돕고 싶어요.”라고 그들은 말했다. 그들은 이 사무실이 어떻게 형제 자매, 자녀들, 이웃들의 삶을 축복할 수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 일부가 되기를 원했다.

세계 곳곳에 있는 취업 자원 센터에서, 자원 봉사자들은 삶의 결정적인 기로에 선 사람들을 도우며 일년에 백만 시간 이상을 할애하고 있다. 어떤 봉사자들은 일주일에 몇 시간을 내서 워크숍을 가르치거나 구직자들을 상담해 준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봉사 선교사나 전임 선교사로서 봉사한다.


“매일 무릎을 꿇고, 어머니들, 아버지들, 그리고 자녀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주님께 간청합니다.”라고 브라운 형제는 말한다. “마침내 일자리를 구할 때, 어머니와 아버지는 드디어 자녀들을 먹일 수 있고, 그들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장소를 자녀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들의 삶의 거의 모든 것들이 훌륭하게 변합니다.”

가족들이 안정되고 자립할 수 있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왕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더 강한 위치에 있게 된다. 실직하고 기술이 없는 사람들에게 손을 뻗чим으로써, “우리는 교회가 첫째 세대와 둘째 세대에 닳을 내리고, 자립의 영이 교회 회원들의 가정에 뿌리 내리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LDS 취업 자원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면, 취업 전문가나 여러분의 와드 혹은 지부 지도자들에게 연락하면 된다.

LDS 취업 자원 서비스에 관한 현황

취업 프로그램이 있는 미국과 캐나다 이외의 나라들	41	
국제 지역에 있는 취업 센터들 (유급 직원들 및 자원 봉사자)	156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취업 센터들 (유급 직원들 및 자원 봉사자)	103	

2004년도 취업 센터 서비스 시간

	국제	미국과 캐나다	합계
선교사 시간	269,781	461,227	731,008
자원 봉사자 시간	296,379	54,737	351,116
합계	566,160	515,964	1,082,124

2004년도 취업 및 교육 등록

	국제	미국과 캐나다	합계
취업	66,858	78,714	145,572
지역업	6,339	3,093	9,432
교육 등록	31,889	13,941	45,830
합계	105,086	95,748	200,834

알고 계십니까?

9월에 일어난 일

1823년 9월 21~22일:
천사 모로나이가 조셉 스미스를
방문해 그에게 금판에 관해
말했다.



1901년 9월 1일: 히버 제이
그랜트(1856~1945년) 회장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일본을 헌납했다.

1958년 9월 7일: 데이비드 오 맥케이
(1873~1970년) 회장이 영국 런던 성전을
헌납했다.

1995년 9월 23일: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본부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가족 선언문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지금 적어 보내세요!

이 페이지에 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항이

있으면, 우리에게 보내
주십시오. 우리는 항상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짧은 기사에
어울리는 사진이 있다면 잊지 말고
함께 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사,
퀴즈, 혹은 조언 등을 다음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Did You Know?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다음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cur-liahona-imag@ldschurch.org

피지에서 펼치는 봉사의 주간

피지 나무소리, 피지 수바, 피지 수바 북 스테이크의 청소년들은 지역 사회에서 봉사 활동을 할 때 특별한 판초를 입는다. 이 판초에 쓰여 있는 로고는 교회의 이름을 나타내므로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봉사를 하는지 알게 된다.

교회의 후원을 받는 중등 학교인 피지 LDS(후기 성도) 교회 대학의 학생들은, 최근에 세미나리 봉사의 주간에 참여했다. 학교, 병원, 건강 관리 클리닉, 장애 아동들을 위한 직업 훈련 센터 그리고 피지 수바 성전에서의 봉사 프로젝트와 함께, 캠퍼스에서는 경전에 기초한 프로그램과 활동들이 있었다.

배경 © 포토다스크; 위 그림: 톰 로벨, 조셉 스미스의 침실에 나타난 천사 모로나이; 아래 사진 촬영: 율로 케이 스펜서와 딜로이 스킵이어



지도자에게 주는 조언

구주께서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훌륭한 종과 추종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신약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조차도 이따금 이 원리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는 그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 하였”(마가복음 9:34)라는 내용을 읽는다.

구주는 열두 사도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 사람의 끝이 되며 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마가복음 9:35)

구주의 모범을 따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써 여러분의 정원회, 반, 가족,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먼저 모범이 된다.



영적인 도구

우리는 *리아호나* 잡지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난은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정말 쉽게 해줍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 지도자들의 메시지를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정말 고무적입니다. 그들은 어린이난을 좋아하며 그림과 사진들을 이용해 공과를 합니다. 그들은 매달 잡지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는 *리아호나*를 훌륭한 영적인 도구로 여기며, 우리가 이 잡지를 이용한 후로 가정의 밤은 더 훌륭해졌습니다.

폰시오 칼데론 가족, 과테말라 빌라 누에바 스테이크 엘 푸르탈 와드

헝클리 회장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저는 *리아호나* 잡지에 대해 감사합니다. 저는 특별히 2003년도 10월호에 실린 “헝클리 회장 부부와 함께”라는 기사에 감명 받았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에서 큰 사랑과 온화함을 볼 수 있었으며 저는 그분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 영감에 찬 메시지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 메시지들은 이 사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라셀리 비 고메스 아그레, 코스타리카 산 호세 라 사바나 스테이크 비스카야 와드

선교사가 되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리아호나*에 실는 훌륭한 것들에 대해 감사드리기 위해 글을 씁니다. 우리 지도자들로부터의 메시지는 매우 큰 위안을 주며, 저는 일상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원리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교회의 회원이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잡지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우리 이웃을 위해 구독 신청을 해 줍니다. 이런 방법으로 선교사가 되는 것은 행복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알며, 교회가 성장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안드레스 에르네스토 기오이오사, 아르헨티나 산타 로사 스테이크 산타 로사 제3와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매달 받는 *리아호나*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것은 제 간증을 강화시키고 저희 가족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 줍니다. 특별히 제 마음에 감동을 준 기사는 2004년 8월호에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님이 쓰신 “아버지, 어머니, 결혼”이라는 제목의 제일회장단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족에 대해 염려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발실란디아 무니스, 브라질 이타부나 스테이크 캘리포니아 와드

가장 좋아하는 선물

4대 경전 다음으로 제가 가장 읽기 좋아하는 것은 *리아호나*입니다.

메시지들을 연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리아호나*를 읽을 때 저는 영을 느끼고, 우리의 선지자를 통해 주어지는 계시에 대한 간증이 강해집니다. 이 곳에서 찾은 가르침은 제 생에 지침이 되고, 제가 일상의 도전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그 안에서 오직 좋은 것만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유일한 잡지이며, 친구와 구도자들에게 가장 주기 좋아하는 선물 중 하나입니다.

루이스 에두아르도 아코스타 에이치, 콜롬비아 칼리 하르딘 스테이크 엘 바야도 와드

제 질문에 대한 답

저는 *리아호나* 매 호에서 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습니다. 잡지를 읽을 때, 저는 평화, 사랑, 그리고 따뜻함을 느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약속하신 위대한 축복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저는 이 곳 파나마에 성전이 생기는 것에 매우 감사합니다. 저는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일하고 제 가족에게 영원히 인봉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잡지는 제가 발전하고 복음 안에서 충실하게 남아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디아나 이사벨 디아스 고메스, 파나마시티 파나마 스테이크 벨라 비스타 와드

악마의 목구멍을 피함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파우스트 회장은 할 수 있는
한 신중하고, 유혹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저는 젊은 시절에 브라질에서 선교 사업을 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훌륭한 나라에 있는 경이로움 가운데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것 중의 하나가 이구아수 폭포입니다. 우기에 그 폭포에서 쏟아지는 물의 양은 세계 최대입니다. 폭포 가운데 물이 가장 많이 쏟아지는 곳을 사람들은 악마의 목구멍이라고 부릅니다.

몇 년 전에 무모한 뱃사공들이 바위 위에 서서 그 악마의 목구멍을 내려다보려는 승객들을 카누에 태우고 그곳으로 가곤 했습니다. 폭포 바로 위에 있는 물은 대개 잔잔하고 천천히 흘러내리며 평온합니다. 오직 요란한 물소리만이 멀리 않은 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경고해 줍니다. 카누는 생각지도 않던 갑작스러운 물의 흐름에 휩쓸려 절벽 아래로 떨어져 악마의 목구멍으로 빨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카누에서 내려 이 위험한 젖은 바위에 올라서겠다고 할 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은 쉽게 발을 잘못 디어 밑의 소용돌이치는 물에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자신이 어떤 일에도 도전할 만큼 준비되어 있는 저돌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활동들은 여러분을 악마의 목구멍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유일하게 안전한 길은 위험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조지 앨버트 스미스(1870~1951년)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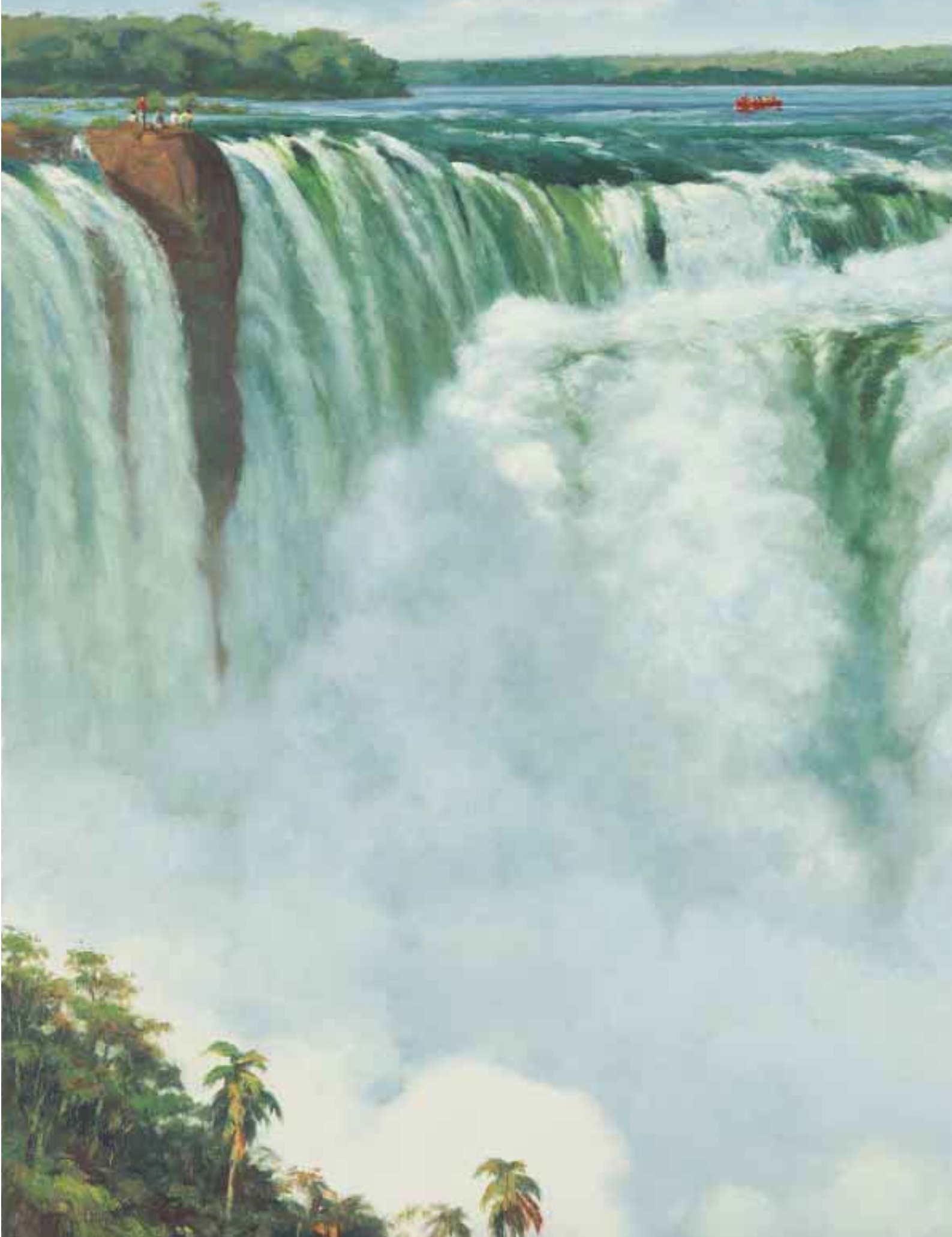
강력하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악마가 있는 쪽으로 단 1센티미터라도 경계선을 넘어간다면, 여러분은 악마의 수중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악마의 수중에 들어가면 주님의 영을 잃게 되기 때문에 제대로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Sharing the Gospel with Others*, sel. Preston Nibley [1948년], 43쪽).

사탄의 가장 매혹적인 메시지 몇 가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들 하는데 뭐, 아무도 상처를 입지 않는다면 괜찮아, 아무런 해도 없다고 생각되면 괜찮아, 그건 아주 “인기 있는” 일이야. 사탄은 가장 능숙한 거짓말쟁이입니다. 그의 변장술은 너무나 완벽해서 그와 그의 방법을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젊은이 여러분은 세상의 유혹과 올가미에 맞서기 위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더욱 강해져야 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시대에 보낼 특별한 영들을 따로 남겨 두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으며, 지금은 우리가 확고 부동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영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하며, 악마의 목구멍에 너무 가까이 가는 일을 제외하고는 어느 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선지자, 계시자, 선견자인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의 권고와 지도에 따르면 우리는 강화되고 보호 받을 것입니다. ●

2003년 4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





올바른 길을 택하여 행복해지십시오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민에게의 선행을 믿는다. 진실로 우리는 바울의 훈계를 따르다 할 수 있으니—우리는 모든 것을 믿으며,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며,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견디어 왔으니,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기를 바란다.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은 듣기 좋거나 혹은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않는다.”(신앙개조 제13조)

마가렛 리퍼스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제1보좌



여러분은 초등학교 정의반에 참석합니까? 여러분은 정의반 반지를 갖고 있습니까? 정의반 반지는 우리에게 옳은 것을 택하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은 초등학교 용기반에 참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용감하다는 것의 뜻을 압니까? 용감하다는 것은 강하고, 충실하고, 용기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옳은 것을 택하면서 담대하거나 용감해져야 했던 때가 있습니까? 어린 소년이었을 때, 조셉 스미스는 옳은 것을 택하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조셉이 열네 살이었을 때, 그는 어느 교회에 가입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습니다. 조셉은 사람이 하나님께 여쭙어 볼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읽었습니다.(야고보서 1:5 참조)

조셉 스미스는 숲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조셉 스미스에게 오셔서 “어디에도 가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조셉 스미스-역사 1:16~19 참조)

조셉은 집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의 어머니에게 말씀드렸고, 어머니는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조셉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 다른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할 때, 그들은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셉은 진리를 말하는 데 있어 용감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비록 내가 시현을 보았다고 말함으로써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이였다.”(조셉 스미스-역사 1:25)

우리는 조셉 스미스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면서, 그를 기억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일에서 그의 모범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을 택하라 색칠 활동

친구들 4쪽에 있는 각 풍선들 위에 여러분이 옳은 것을 선택하는 방식들을 보여 주는 문장을 쓰거나 그림을 그린다.

함께 나누는 시간 제언

1. 초등학교 교재 5, 36과를 참조하여 신앙개조를 쓰고 있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이야기를 가르친다. 신앙개조 제13조의 첫번째 줄을 따라 읽는다. “우리는 정직을 믿는다.” 조셉 스미스가 첫번째 시현에 관해 진실을 말할 때 겪은 박해에 대해 이야기한다. 조셉 스미스-역사 1:21~26을 참조한다. 조셉 스미스-역사 1:33에서, 모로니는 조셉의 이름이 “모든 나라 [가운데] — 좋게도 전하여지고 나쁘게도 전하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교회 회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좋게도 전하여지고 나쁘게도 전하여질” 수 있는가? 어린이들이 정직한 것을 택해야 하는 네다섯 개의 사례 연구를 준비한다. 어린이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들로 하여금 하나의 사례 연구를 연구으로 표현하게 한다. 선택을 내려야 하는 부분에서, 다른 어린이들에게 부탁하여 결과를 선택하는 것을 돕게 한다. 정직해지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들의 선택으로 인해 그들의 이름이 어떻게 “좋게도 전하여지고 나쁘게도 전하여질”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2. 하늘 아버지의 계획에서 가족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가족 선언문에서 “가족 생활의 행복은”으로 시작해 “건전한 오락 활동 등의 원리 위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로 끝나는 두 문장을 읽는다.(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참조) 낱말 스트립을 만들어 다음의 낱말들을 각 낱말 스트립에 쓴다. 신앙, 기도, 회개, 용서, 존경, 사랑, 동정심, 일, 그리고 건전한 오락 활동. 칠판에 그것들을 붙여 하나의 토대처럼 보이게 한다. 아홉 개의 주머니를 준비하고 각 주머니에 (1) 낱말 스트립의 내용 중 하나를 가르치는 어린이 노래나 찬송가 한 곡 복사본 (2) 그룹의 각 어린이를 위한 종이 한 장, 그리고 (3) 크레용이나 사인펜을 넣는다. 어린이들을 아홉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게 주머니를 하나씩 준다. 어린이들에게 그 노래의 가사를 읽으라고 한다. 자신의 가정 안에서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를 그리게 한다. 다른 모든 어린이들이 그룹의 노래를 부르는 동안 각 그룹은 그림을 설명하고 그림들을 토대 위에 붙이라고 한다. ●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의 생애에서
푸른 옷을 입은 소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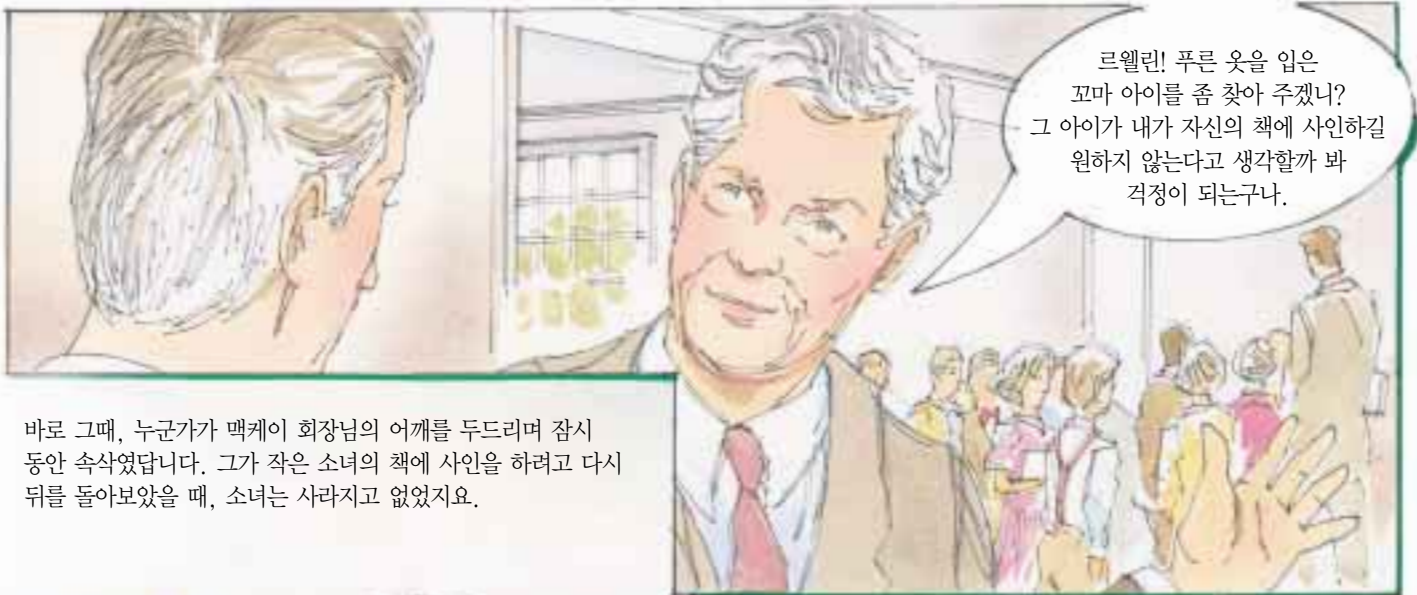
선지자로서,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은 그의 아들 르웰린과 유럽을 여행했습니다. 그는 성전 부지를 헌납하고 가능한 한 많은 회원들과 인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아이들과 인사하실 시간은 없을 텐데. 피곤하지 않으세요?

얘야,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을 만날 시간은 낼 수 있단다. 아이들의 마음에 실망을 준다는 것은 안 될 일이야.

맥케이 회장님, 사인을 모아온 이 책에 사인 좀 해주세요,

네가 읽을 수 있을 만큼 내가 글씨를 분명하게 쓸 수 있어야 할텐데.



르웰린! 푸른 옷을 입은
꼬마 아이를 좀 찾아 주겠나?
그 아이가 내가 자신의 책에 사인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할까 봐
걱정이 되는구나.

바로 그때, 누군가가 맥케이 회장님의 어깨를 두드리며 잠시 동안 속삭였습니다. 그가 작은 소녀의 책에 사인을 하려고 다시 뒤를 돌아보았을 때, 소녀는 사라지고 없었지요.



그 소녀를 찾을 수
있었다면 좋았을텐데.

맥케이
회장님, 그 아이가 누구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소녀의
지부 회장에게 이야기하면 그가 오늘
저녁 회장님께 전화를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주게나.

다른 사람들도 르웰린이 그 소녀를 찾는 일을 도왔지만, 그 작은 아이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런던으로 가는 길에, 르웰린과 맥케이 회장은 선교사 그룹과 함께 여행했지요. 맥케이 회장은 푸른 옷을 입은 소녀에 대해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맥케이 회장은 그 작은 소녀의 지부 회장과 이야기를 했고,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했으며, 그 책을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그의 사무실로 보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책이 도착했을 때 그는 기쁜 마음으로 사인을 해서 우편으로 다시 그 책을 돌려보냈습니다.

르웰린 알 맥케이의 *Home Memories of President David O. McKay*(1956년), 133~135쪽에서 발췌

십일조는 어디에 쓰일까요?



1 우리가 돈을 벌 때, 우리는 그 돈의 10%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것을 십일조라고 합니다.



2 우리는 감독님이나 지부 회장님 혹은 그의 보좌 중 한 사람에게 십일조를 냅니다.



3 그러면 그들은 와드나 지부의 서기의 도움을 받아 그것을 세고 기록합니다.



4 그런 후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은 십일조가 어느 곳에 가장 필요한지를 결정합니다.



7 혹은 여러분의 십일조는 선교 사업에 필요한 자료들을 출판하는 데 쓰일 수도 있습니다.

5 그것은 새로운 집회소를 짓는 데 쓰일 수도 있습니다.



6 그것은 새로운 성전을 짓는 데 쓰일 수도 있습니다.



8 여러분의 십일조가 어디에 쓰이든, 그것은 지상에서 주님의 일을 돕는 데 쓰입니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라기 3:10)

하늘 문

마리엔 달 존슨

글쓴이의 가족 역사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에 근거함

마르셀라는 신발에 발을 밀어 넣으며 인상을 찌푸렸다. 신발이 너무 작아서 발이 아팠지만, 그녀는 불평을 할 수 없었다. 겨우 여섯 살이었지만, 그녀는 새 신발을 살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넬슨 가족에게 지난 한 해는 힘겨웠다. 오월에, 마르셀라의 작은 여동생이 폐렴으로 죽었다. 그리고 바로 6주 후에, 아버지 에릭이 직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자상한 아버지를 그녀가 얼마나 그리워했던가.

이제 마르셀라의 어머니는 바느질을 하며 그녀의 어린 두 딸을 부양하기 위해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어머니는 뛰어난 재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돈을 벌 수 없었다. 그들의 작은 집에 있는 부엌 찬장은 사실상 거의 비어 있었다. 좀더 큰 신발 같은 것은 현재로서는 엄두도 낼 수 없었다.

“아침 먹을 시간이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마르셀라는 꼭 끼는 신발을 신고 식탁으로 걸어가며 절뚝거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

“이런, 얘야.”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 신발은 너에게 너무 작구나, 그렇지?” 마르셀라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담긴 근심을 느낄 수 있었다.

“조금요.” 마르셀라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하려고

노력했다. “괜찮아요.”

“용감해지려고 애쓰는구나.” 어머니는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엄마는 신발 때문에 네 발이 아파다는 걸 알 수 있어. 곧 새 신발을 사 줄 수 있도록 노력할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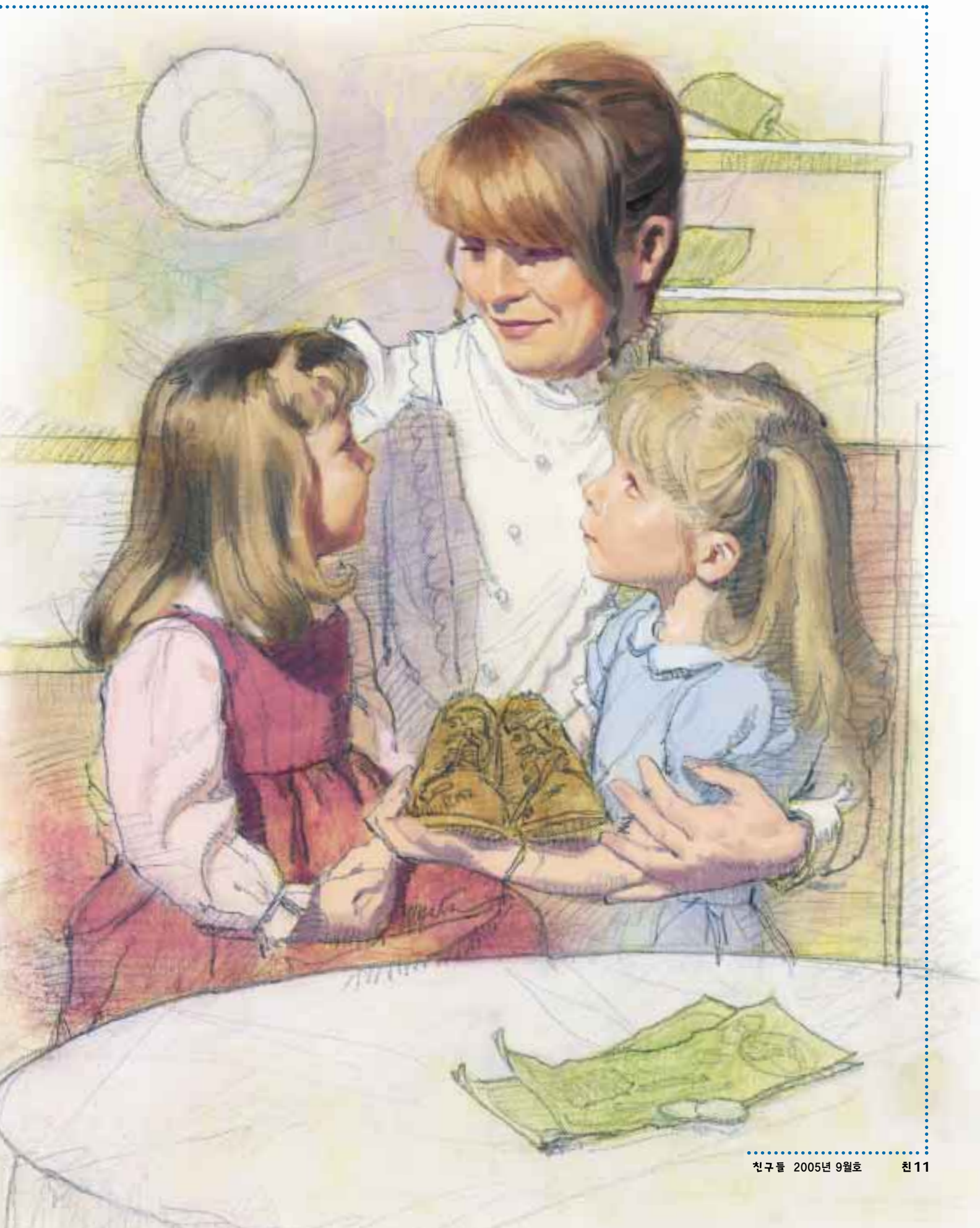
“나도 새 신발 갖고 싶어!” 어린 아르벨라가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는 아르벨라를 품안에 안으며 말씀하셨다. “네 신발은 아무렇지도 않은 걸.”

아르벨라의 신발은 마르셀라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다. 그 신발은 낡았지만 최소한 크기는 적당했다.

아르벨라는 입을 삐죽 내밀었다. “나도 새 신발 갖고 싶어.” 아르벨라는 계속해서 고집을 피웠다. 마르셀라와 어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아르벨라는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의 천진함은 어쩐지 그들의 기분을 더 좋게 만들었다.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웃으면서 아침 식사를 하고 상을 치웠다. 갑자기 엄마가 다시 진지해지셨다. “얘들아”, 엄마는 천천히 말씀하셨다. “오늘 시내에 나가야겠다. 엄마에게 2달러 50센트가 있다.”

마르셀라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것은 1905년도에 유타에서 매우 큰 돈이었다. “잘 됐네요!”라고 그녀는 외쳤다. 그녀는 빈 찬장에 사 놓을 수 있는 음식들을 상상해 보았다.





어쩌면 새 신발도 살 수 있을지 모른다!

어머니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았을 때 마르셀라의 미소는 사라졌다. “우리는 십일조 2달러 50센트가 밀려 있단다.”라고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런 후 어머니는 딸들을 주위에 불러모았다. “우리의 음식이 거의 떨어졌다는 것을 안다. 너에게 새 신발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도 안다, 마르셀라.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만 해.”

그런 후 어머니는 어머니의 낡은 성경책을 꺼내 와 말라기를 펼치셨다. 어머니는 딸들에게 우리가 십일조를 낸다면, 하늘 문이 열릴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읽어 주었다.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르벨라가 물었다.

“그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거란 뜻이야”, “성경은 우리가 복을 쌓을 곳이 없을 만큼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단다. 나는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 하다는 걸 안다. 나는 그분의 약속을 믿어.”

“저도 믿어요.” 마르셀라가 말했다.

“나도 믿어.” 아르벨라가 소리 높여 말했다.

“너희들은 정말 착한 딸들이다.” 어머니는 그들을 가까이 끌어당기셨다. “함께 기도하자꾸나. 그리고 나서 나는 이 돈을 바로 감독님께 가져가야 겠다.”

딸들과 어머니는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는 하늘 아버지께 그녀의 작은 가족이 음식을 더 구하고 마르셀라가 신발을 구할 수 있는 길을 간구했다. 그 기도를 드린 후, 그들은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가서 십일조를 내자, 애들아!”

그들은 걸어서 조금 떨어진 감독님의 집까지 갔고, 그에게 십일조를 냈다. 발은 아팠지만, 마르셀라는 가는 길이 즐거웠고, 마음속에는 좋은 느낌이 있었다. 그녀는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리라는 것을 알았다.

집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실라스 삼촌과 마우드 숙모가 마차를 대시는 것을 보았다. 두 소녀 모두 실라스 삼촌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삼촌은 그들을 높이 들어올려 한 바퀴 빙 돌려 주셨다.

“안녕, 사라,” 마우드 숙모가 어머니를 껴안으시며 말했다.

“형님과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려고 왔어요.”

“음,” 아르벨라가 심각하게 말했다. “마르셀라 언니의 신발이 너무 작지만, 우리는 십일조를 냈어요. 그리고 다 괜찮을 거예요.”

“아르벨라!” 어머니가 엄한 표정으로 아르벨라를 쳐다보았다.

“우린 잘 지내요, 마우드. 그쪽 가족들은 어때요?”

그들은 모두 집안으로 들어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늘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은 축복이 너무 많아서 받을 곳이 없을 만큼 받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여러분의 십일조를 바치고 그 결과는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셉 비 위스린 장로, “세상의 부채, 하늘의 부채”,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41~42쪽.

마르셀라는 재빨리 그녀의 꼭 끼는 신발을 벗어서 멀리 치워 두었다. 그녀는 숙모와 삼촌이 집안을 주의 깊게 둘러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마우드 숙모는 말씀하시면서 찬장까지 열어 보셨다. 곧, 손님들은 떠나야 했다.

그날 오후에, 마르셀라는 밖에 배달 마차가 도착하는 소리를 듣고 놀랐다. 그것은 그들의 집에서 멈추었고, 배달하는 소년이 문 앞으로 왔다. “사라 벨슨에게 배달이요.”라고 그는 말했다.

“저희 어머니이신데요.”라고 마르셀라가 말했다.

“하지만 전 아무것도 주문 안 했어요.” 어머니가 대답하였다.

갑자기 실라스 삼촌이 현관에서 그 소년 옆에 나타나셨다.

“사라 누님을 위한 배달이예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여기 식탁 위에 다 올려 놓아 주세요.” 그는 배달하는 소년에게 지시했다.

소년은 음식이 든 가방들을 가지고 들어왔다. 소녀들은 기뻐서 춤을 추며 식탁 주위를 맴돌았다. 그들이 실라스 삼촌을 껴안자, 삼촌은 서둘러 핑계를 대고 집으로 가셨다. 정말 많은 음식들이 있었다! 설탕, 밀가루, 그리고 옥수수 가루, 절인 고기와 말린 과일 — 찬장은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맨 마지막에, 배달 소년은 갈색 종지로 싸 작은 꾸러미를 식탁으로 가져왔다.

배달하는 소년이 떠난 후, 소녀들은 작은 꾸러미로 다가갔다. 안에 무엇이 들었을까? 먼저 마르셀라가, 그 다음엔 아르벨라가 그것을 흔들며 보았다. 그런 후 마르셀라는 조심스럽게 꾸러미를 열어당겼다. 그녀의 무릎으로 한 켤레가 아닌 두 켤레의 신발이 떨어졌다! 마르셀라는 그 중에서 큰 신발을 주워 올려 신어 보았다. 신발은 발에 꼭 맞았다.

그리고 그녀는

발가락을 꼼지락거려 보았다. 너무나 편안했다.

그리고 그녀는 아르벨라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동생은 두 번째 신발을 주워 들고, 기쁨에 찬 표정으로 그것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아르벨라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엄마, 저는 신발이 필요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녀는 의아하다는 듯이 말했다.

“네 낡은 신발로도 충분하지.”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 문을 여실 땐, 무엇이 쏟아질지 결코 모른다.” ●

마리엔 달 존슨은 네바다 엘코 동 스테이크 웰스 와드의 회원이다.



간증을 얻은 새벽



“또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는 모든 것의 참됨을 알게 되리라.”(모로나이서 10:5)

몬트 제이 브러프 장로
칠십인 정원회

저는 항상 야외의 생태계에 매료되어 왔습니다. 저는 산을 사랑합니다. 바다를 사랑합니다. 강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동물들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거의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열여섯 살이었을 때, 저는 더 많은 야외의 생태계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머니는 제가 여름 동안 알래스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곳에서 낡은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식료품 가게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저는 저를 자신의 종교로 개종시키는 데 꽤 관심이 많았던 한 평신도 성직자와 함께 일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경전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그러나 제 믿음을 옹호하는 것은 제게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저는 그것에 대해 충분히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성직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조셉 스미스 이야기와 그가 받았던 계시를 설명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제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역에 있는 전임 선교사를 찾아 제게 복음에 관해 더 가르쳐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여름 저는 매우 좋은 친구가 된 그 성직자와 이야기하기 전에 종종 선교사들과 함께 한두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특별한 밤 저는
잠에서 깬습니다. 제가





왼쪽: 열여섯 살 때(오른 쪽) 스티븐 에이 웨스트 장로, 그리고 데이비드 러브리스 장로와 함께 알래스카 앵커리지 공항에서. 위: 열여섯 살 때 식료품 가게에서.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매우 잘 가르칠 수 없었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밖에는 여름 태양이 알래스카 산맥 위에서 찬란한 빛으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산비탈의 삼분의 이쯤 되는 지점에는 구름이 감돌고 있었으며 그것은 마치 산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본 가장 아름다운 광경 중 하나였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창조물들에 대해 제가 느꼈던 경건과 제가 본 그 아름다움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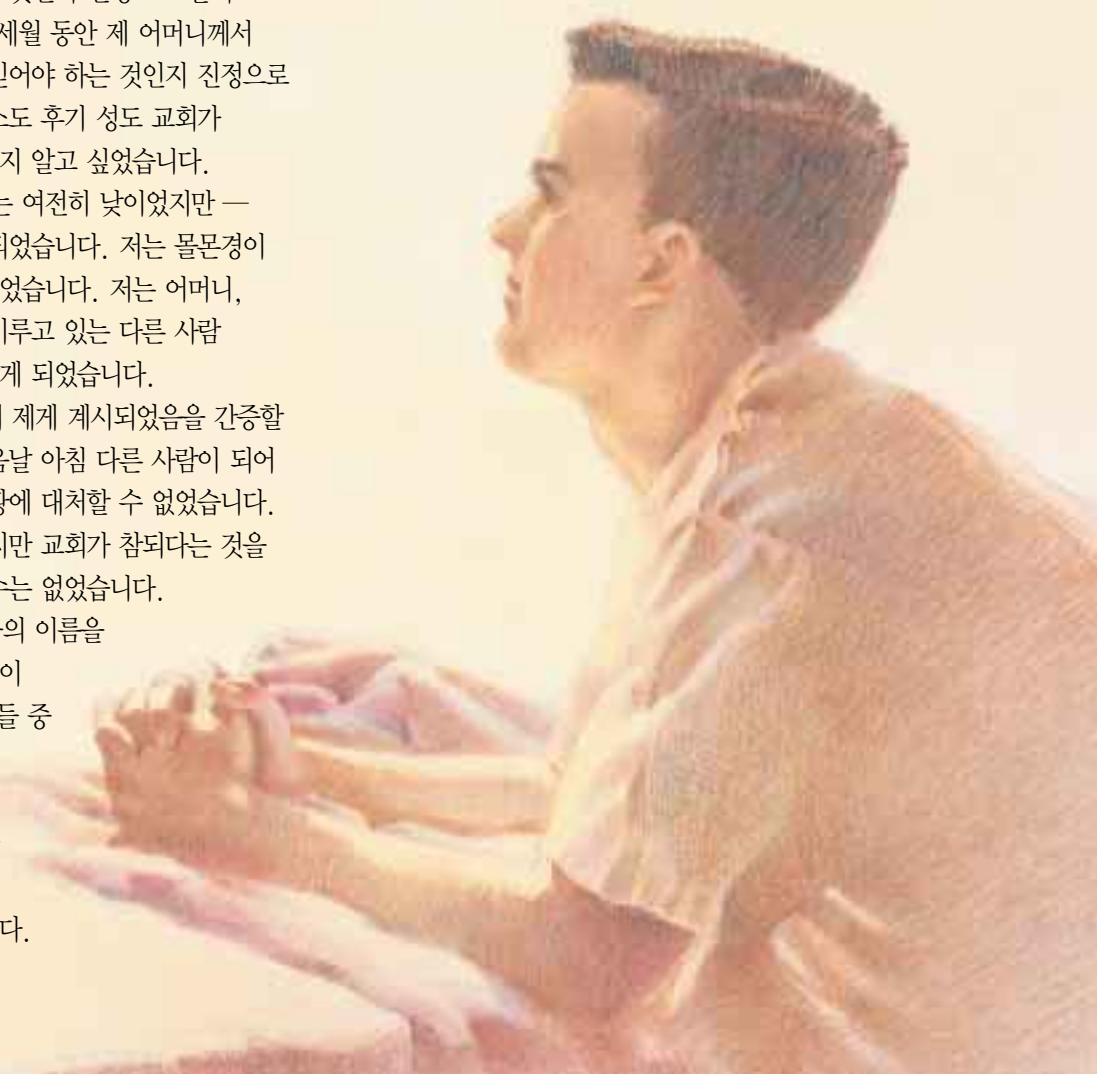
저는 무릎을 꿇고 하늘 아버지께 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저는 몰몬경이 참된 것인지 진정으로 알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세월 동안 제 어머니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 제가 믿어야 하는 것인지 진정으로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 날 밤 — 알래스카 지역에서는 여전히 낮이었지만 — 저는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몰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돌아가신 아버지, 그리고 가족을 이루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영원한 관계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성령에 의해 제게 계시되었음을 간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 다른 사람이 되어 일어났습니다. 그 성직자는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교리에 대해 논쟁할 수 있었지만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안다는 저의 간증에 대해 논쟁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저를 가르쳤던 그 선교사들의 이름을 기억했지만, 오랫동안 그들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1988년에 그 선교사들 중 한 명이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스티븐 에이 웨스트 장로님은 제가 복음에 대해 온전한 간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준 그 중요한 인물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총관리 역원으로서, 웨스트 장로님과 저는 북미 남동부 지역 회장단에서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수년 전의 우리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열여섯 살의 소년으로서 제가 경험한 알래스카의 모험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경전을 공부하는 방법

유의 사항: 각 그림 밑에 있는 문장을 읽는다; 그리고 나서 그림에 색칠한다.



1 여러분은 이 문장들과 그림들을 가정의 밤 공과나 초등학교 말씀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매일 하나나 그 이상의 구절을 읽겠다는 목표를 세운다.



3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경전을 소리 내어 읽는다.



4 리아호나의 어린이난이나 구약전서 이야기, 신약전서 이야기, 물문경 이야기, 교리와 성약 이야기에 나오는 그림 경전 이야기를 읽는다. 혼자서 읽거나 더 어린 아이들에게 읽어 준다. 교회에서 경전 이야기를 들은 후에, 그것을 경전에서 찾아 집에서 읽는다.

친구들



새로 조직된 칠십인 제철 및 제팔 정원회

정책 및 발표

최 근에 제일회장단은 신권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서한을 보냈다.

“최근 연차 대회에서 칠십인 제사 정원회의 증원이 승인됨에 따라, 칠십인 제철 정원회가 제사 정원회에서 분리되어 조직되었습니다.

“제철 정원회는 브라질 북부, 브라질 남부, 칠레, 그리고 남미 남부 지역의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들로 구성됩니다. 제사 정원회는 중미, 멕시코 북부, 멕시코 남부, 남미 북부, 그리고 남미 서부 지역에서 봉사하는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들로 구

성됩니다.

“또한, 칠십인 제삼 정원회가 관리하던 지역은 지리적으로 너무 광범위해 제팔 정원회를 신설하여 관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정원회는 아시아, 북아시아, 호주, 뉴질랜드/태평양 군도, 그리고 필리핀 지역의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들로 구성됩니다. 제삼 정원회는 아프리카 남동부, 아프리카 서부, 유럽 중부, 유럽 동부, 그리고 유럽 서부 지역에서 봉사하는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들로 구성됩니다.” ■



칠십인 제삼 정원회 및 제사 정원회가 담당하는 지역이 나누어져 칠십인 제철 정원회 및 제팔 정원회가 새로이 조직되었다.

새로운 교회 역사 도서관 신축 예정

350만 건 이상의 교회 기록, 원고, 출판물, 사진, 그리고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 시청각 물품들이 새로운 교회 역사 도서관 신축 계획 발표로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곧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컨퍼런스 센터의 동편 건너편에 세워질 도서관은 연면적 2만 3천 평방미터의 5층 건물로, 컨퍼런스 센터와 비슷한 외관으로 건축된다. 새로운 도

서관이 기존의 건물보다 훨씬 크게 건축될 예정이기 때문에 교회는 보다 많은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더 넓은 공간을 갖게 될 것이다.

교회 본부 건물 내부에 위치한 현재 도서관을 대체하게 될 새로운 도서관에는 열람실과 일반에게 공개될 특별 소장 구역이 포함될 것이다.

“새로운 교회 역사 도서관은 후기 성도 역사에 관해 더 많이 배우고자하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시



새로운 교회 역사 도서관이 연면적 2만 3천 평방미터의 5층 건물로 컨퍼런스 센터 동편에 건축될 예정이다.

설이 될 것입니다.”라고 교회 역사 편찬가 겸 기록자로 봉사하고 있는 칠십인 위원회의 말린 케이 젠슨 장로는 말했다.

건축은 올해 하반기에 시작될 예정이다. 교회는 건물이 2007년 말에야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서관은 현재 272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 위에 건축된다. 교회의 건축 및 엔

지니어링 책임자인 빌 윌리엄즈 형제는 건축 기간 동안에 임시 주차장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윌리엄즈 형제는 또한 도서관이 메인 스트리트 플라자와 비슷한 느낌을 갖게 될 것이며, 템플스퀘어와 “똑같은 특성”을 지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교회 교육 기구: 회원들을 부지런히 가르침

윌터 콜리, 교회 잡지

교회 교육 기구(CES)는 교회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구이다. 교회 교육감인 더블류 롤프카 장로는 회원들이 교육에 관한 고든 비헝클리 회장님의 권고에 귀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헝클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했다. “교육은 여러분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 주는 열쇠입니다. 교육은 희생 ...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 최대한으로 모든 교육 기회를 잘 활용하십시오.”(“영감의

말씀”, 리아호나, 1999년 6월호, 5쪽)

교회 교육 기구는 “너희는 부지런히 가르치라”(교리와 성약 88:78)는 구주의 명령을 다양한 방면에서 성취중인 조직체이다. 작년에 교회 교육 기구는 교회 안팎으로 나이를 막론하고 12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을 가르침으로써 그 책임을 수행했다.

교회 교육 기구는 네 가지 주요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교육을 제공한다. 그 네 가지는 고등 교육(교회 대학교

및 대학), 종교 교육(세미나리와 종교 교육원), 초등 및 중등 학교, 평생 교육이다.

역사

교육은 교회 회원들에게 항상 중요했다. 후기 성도들은 북미 서부에 정착촌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종종 지역사회 또는 와드 학교를 만들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일련의 아카데미가 설립되었다. 이런 아카데미를 관리하기 위해 교회는 1888년에 교회 교육 위원회를 만들었다.

공교육이 보다 보편화되면서 교회는 이들 학교의 대부분을 폐쇄하거나 지방 정부에 이양했다. 이들 초기의 교육 기관 중 오늘날 여전히 기능을 하고 있는 유명한 기관으로는 데저렛 대학(유타 대학교), 브리검 영 대학(유타 주립 대학교), 위버스테이크 아카데미(위버 주립 대학교), 산피트 스테이크 아카데미(스노우 대학), 그리고 세인트조지 스테이크 아카데미(덕시 주립 대학) 등이 포함된다. 교회 교육 기구는 초기 학교들 중에서 단지 네 개만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브리검 영 아카데미(BYU), 배녹 스테이크 아카데미(BYU 아이다호), 솔트레이크 스테이크 아카데미(LDS 실업 대학), 그리고 멕시코에 있는 후아레스 아카데미 등이다.

오늘날 교회 교육 기구는 세미나리, 종교 교육원, 초등 및 중등 학교에 대해서는 교회 교육 위원회의 지시를 받으며, 고등 교육 기관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이사회로부터 지시를 받는다. 위원회 위원으로는 제일회장단,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 중에서 세 명, 칠십인 회장단의 선임 회장,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본부 청

녀 회장이 포함된다.

고등 교육

교회의 고등 교육 기관으로는 LDS 실업 대학과 브리검 영의 이름을 지닌 세계의 학교, 즉 프로보 소재의 브리검 영 대학교(BYU), 라이에 소재의 BYU-하와이, 리스버그 소재의 BYU-아이다호가 있다.

이들 교육 기관은 캠퍼스에 4만 5천 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으며,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47만 2천 명을 담당하고 있다. 카 장로는 각 대학교가 교회 교육 기구 안에서 각기 독특한 사명과 역할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LDS 실업 대학은 주로 직업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고 있지만, 준 학사 학위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다른 대학교로 편입하도록 준비시켜주기도 한다.

브리검 영 대학교는 매우 다양한 분야의 4년제 학부 과정뿐 아니라 특정 분야

에서도 석사 및 박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카 장로는 브리검 영 대학교가 많은 학부 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참여시키고 의미 있는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학교를 학부 교육 기관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브리검 영 대학교 하와이는 학부 과정을 제공하며, 미국의 어느 대학교 보다도 외국 학생들의 비율이 높다. 카 장로는 이 학교가 그 사명의 일부로 앞으로도 다양성과 문화에서 균형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브리검 영 대학교 아이다호는 교회의 새로운 4년제 학교이다. 2000년에 이 학교는 리스 대학으로 알려진 2년제 학교에서 4년제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교로 변모했다. 브리검 영 대학교 아이다호의 주요 역할은 가르치는 것이라고 카 장로는 말한다. 연구와 출판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교수진에게는 전문 분야에

서의 발전을 목적으로 개별적인 연구 수행을 위한 주기적인 장기 휴가가 주어진다. 대신에 교수들의 연구는 가르침을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둔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비록 모든 회원들이 이들 교회 학교에 다닐 수 없으나 교회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들 고등 교육 기관을 계속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러한 대학들을 거점으로 삼아 이 교회나 종교나 세속적인 모든 교육에 위대한 공헌을 한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종교적인 신앙의 환경 속에서 세속적인 학문을 탁월하게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자 합니다.”(“왜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리야호나, 2000년 1월호, 67쪽)

세미나리와 종교 교육원

같은 말씀에서 힝클리 회장님은 또한 이들 교회 학교들이 세계 곳곳에 널리 퍼져 있는 세미나리와 종교 교육원의 뒷받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리는 1912년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그라나이트 고등학교에서 시작되었다. 교회는 1900년대 초에 교회 소유의 중등학교의 문을 닫기 시작한 이후에 공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최초의 세미나리 수업에는 70명이 등록했다.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세미나리에는 36만 명 이상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다.

세미나리 학생은 휴식반, 새벽반, 가정 학습반 등 세 가지 형태의 프로그램 중 하나에서 공부하고 있다.



사진 촬영: 이담 시 울슨

베레나시 모이모이 자매가 피지 후기 성도 교회 대학에서 졸업식 동안에 합창을 인도하고 있다. 3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곳에서 중등 교육을 받고 있다.

범세계적인 세미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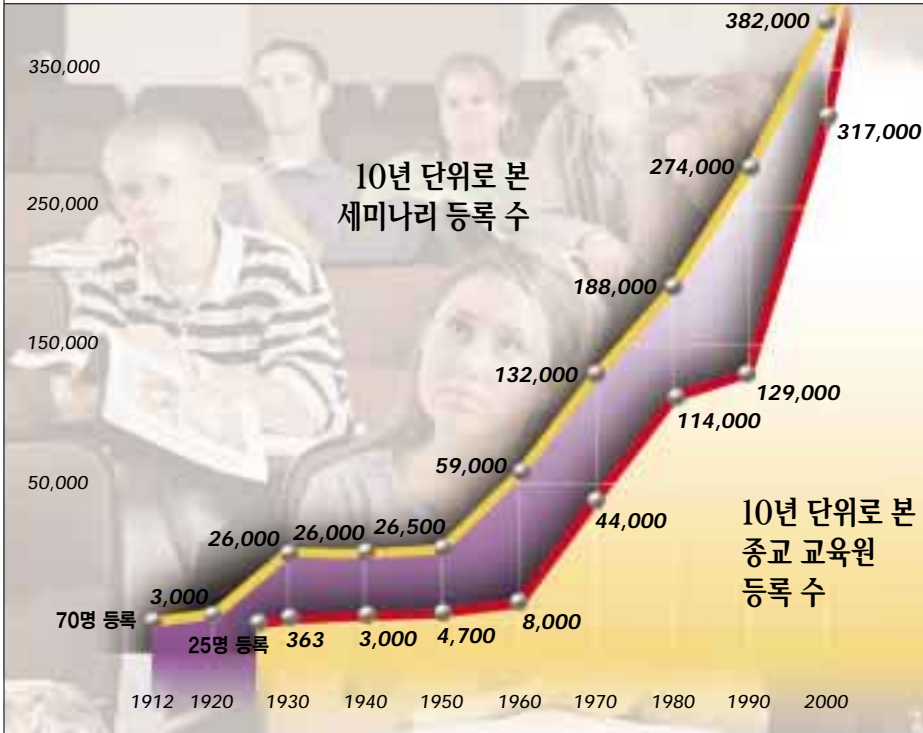
전세계의 세미나리 프로그램 수: 4,395

2003~2004 학년도 말 현재 세미나리 등록 수: 361,689명

휴식반: 121,576명(33.6퍼센트)

새벽반: 209,627명(58.0퍼센트)

가정 학습반: 30,486명(8.4퍼센트)



그래픽: 토마스 에스 저널드

범세계적인 종교 교육원

전세계의 종교 교육원 프로그램 수: 2,214

2003~2004 학년도 말 현재 종교 교육원 등록 수: 365,070명

휴식반 학생들은 학교에 가는 날에 세미나리에 참석한다. 휴식반 세미나리는 미국에서는 애리조나, 콜로라도, 아이다호, 네바다, 뉴멕시코, 오리건, 유타, 워싱턴, 그리고 와이오밍에서, 캐나다에서는 앨버타에서 시행되고 있다. 1950년에 교회는 세미나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교에 가는 날에 참석할 수 없는 학생들을 세미나리에 포함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새벽반 세미나리로 불렸다.

비록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학생들

이 학교 시작 전에 공부를 하지만, 정규 학교 수업 시간 이외라면 하루중 언제라도 수업을 가르칠 수 있다. 새벽반 학생들은 전체 세미나리 학생의 약 58퍼센트를 차지한다. 북미 지역 이외에서 최초의 새벽반 세미나리 수업이 시작된 곳은 1962년 핀란드와 독일에서였다. 세미나리 수업은 현재 약 140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휴식반이나 새벽반 세미나리가 없는 곳에 있는 학생들은 가정 학습 프로그램

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학생들은 지정된 경전과 자료를 공부한 다음 일주일에만 한 번 다른 학생들과 교사와 만나 서로 배운 것에 대해 토론한다.

1926년 교회는 교회가 운영하지 않는 대학교 부근에 종교 교육원을 짓기 시작했다. 이들 종교 교육원은 대학생들에게 종교 교육 수업을 제공했다. 종교 교육원은 현재 전세계에서 2,214개 이상의 종교 교육원 프로그램을 통해 36만 5천 명 이상의 학생들과 회원들을 가르치고 있다.

최초의 국제(미국 이외의 지역) 종교 교육원은 1969년에 호주와 영국에 설립되었다. 국제 학생의 종교 교육원 등록 수는 매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는 미국에서의 등록 수보다 더 많다.

헝클리 회장은 종교 교육원이 학생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것은 전세계에 있는 학생들의 삶에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종교 교육원에서 대학생 연령의 젊은 학생들은 즐거운 교제를 맺고, 배우고 사회 경험을 쌓으며 같은 신앙을 가진 남편과 아내를 찾기도 합니다.”(“이 위대한 새천년의 해”,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80쪽)

젊은 후기 성도 대학생들만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유익을 얻는 것은 아니다. 나이를 막론하고 대학생이 아닌 신분으로 종교 교육원에 다니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 또한 다른 종교를 지닌 사람들도 매년 종교 교육원 수업에 등록하고 있다.

카 장로는 종교 교육원이 여러 지역에 위치함에 따라 많은 회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젊은이들이 기존의 종교 교육원 프로그램이나 스테이크에서 제공하는 과정들 중 하나를 통해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종교 교육원 프로그램을 접하고 있습니다.”라고 카 장로는 말했다.

초등 및 중등 교육

교회는 공교육이 정착되지 않은 라틴 아메리카와 태평양 지역에서 초등 및 중등 교육을 시작했다. 여러 학교가 조직되었지만, 시간이 흘러 공교육이 보다 보편화되면서 교회가 소유하고 운영했던 학교들은 문을 닫았다. 이들 학교들 중 몇몇 학교가 여전히 운영 중에 있으며, 그런 학교가 남태평양에는 16개, 멕시코에는 2개가 있다. 이들 18개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수는 총 9,255명이다.

평생 교육

다양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이 교회 교육 기구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여기에는 교육 주간, 청소년 특별 주간, 야영 및 워크숍, 원격지 교육 과정과 같은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원격지 교육은 고등 학교

또는 대학 학점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개인 강화를 위해 온라인 과정과 전통적인 통신 과정을 통해 제공된다.

참석에서 오는 축복

교회 교육 기구의 네 가지 주요 영역은 학생들이 헝클러 회장의 권고에 따라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교육을 받도록 돕는 것이다. 이런 순종의 결과로 학생들은 축복을 받고 있다. 카 장로는 참여하는 학생들이 받는 축복을 이렇게 묘사했다. “이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더 좋은 직업과 보다 나은 가족 생활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시민이 되고 그들이 사는 곳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을 진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은 판의 제작 동기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1.1판에서는 보다 많은 회원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언어의 수를 늘렸다고 말했다.

표준 경전의 경우 경전을 읽는 사람들에게 보다 유용할뿐 아니라, 사용자들은 참고 자료를 클릭하여 경전을 보다 깊이 탐구할 수 있게 해주는 여러 가지 선택 사항들을 갖게 되었다. 참고 자료를 통해 사용자들은 원하는 곳에 위치를 표시하고 원하는 부분을 강조 표시 하고, 여백에 메모를 적고, 디스크의 특징을 설명하는 편리한 기능들을 찾아볼 수 있다.

경전: CD-ROM 1.1판(물품 번호 50315)은 교회 배부 센터에서 구입하거나 온라인 상에서 www.ldscatalog.com를 통해 주문할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은 1-800-537-5971로 전화 주문도 할 수 있다. ■

경전: CD-ROM 1.1판

교회가 2001년에 경전: CD-ROM 1.0판을 내놓은 이후로 회원들은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여 경전을 읽고 찾을 수 있었다. 경전: CD-ROM 1.1판이 최근 발표됨에 따라 회원들은 구체적인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단 한 장의 CD에서 더 많은 언어로 경전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

별도의 두 장으로 된 1.0 판에는 표준 경전과 참고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 1.1판에는 한 디스크에 표준경전과 참고 자료가 모두 들어 있다.

1.0판에서는 기본 검색, 그리고 영어와 디스크에 있는 다른 네 언어 가운데 임의 언어 사이의 텍스트 비교가 가능했지만, 1.1판에서 사용자들은 텍스트에서 사용된 단어들의 빈도수와 같은 것들을

검색할 수 있으며 또한 화면 상에서 동시에 최대 8가지 언어로 비교도 가능하다.

1.0판에서 사용된 다섯 언어로는 영어로 된 표준 경전 전문, 그리고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로 된 후기 성도 물문경 합본 전문이 포함되어 있었다. 1.1판에는 이들 언어뿐 아니라 세부어, 핀란드어, 독일어, 일로카노어, 노르웨이어, 루마니아어, 타갈로그어로 된 후기 성도 물문경 합본과 학습 도구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언어들 이외에도 새로운 디스크에는 또한 히브리어로 된 구약전서 및 그리스어로 된 신약전서가 들어 있다.

경전 조정 위원회의 서기인 카이 앤더슨 형제는 새로운 판의 제작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경전 공부를 위해 또 하나의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새로



새로운 경전: CD-ROM 1.1판에는 영어 표준 경전, 히브리어 구약전서, 그리스어 신약전서, 세부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로카노어, 이탈리아어, 노르웨이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로 된 후기 성도 물문경 합본과 학습 도구가 들어 있다.

유럽에서 순회 전시된 사해 두루마리

브리검 영 대학교의 Foundation for Ancient Research and Mormon Studies(고대 및 몰몬 연구 재단-FARMS)는 사해 두루마리의 발견과 중요성에 관한 순회 전시회를 후원했다. 이 전시회는 유럽에서 효과적인 선교 도구 역할을 했음이 밝혀졌다.

전시회는 유럽 여러 나라에서 지도자들과 저명 인사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회원들이 다른 종교를 지닌 사람들과 신앙을 나누도록 해주었다. 전시회를 방문했던 사람들의 반 이상은 교회 회원이 아니었다.

사해 두루마리는 1947년 사해 부근의 동굴들에서 발견된 성경 및 비성경 기록의 수집품으로 기원전 300년 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기록들이 포함되어 있다. 1990년대 초 사해 두루마리 재단이 브리검 영 대학교를 찾아와 기록을 전자 파일로 제공하는 것의 가능성을 논의했다. 최초의 데이터베이스는 1999년에 완성되었다.

5월에 끝난 순회 전시회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그리고 스위스에서 열렸다. ■

러분이 이런 표준을 옹호해 나갈 때, 여러분은 우리 지역 사회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줄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후기 성도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을 보았던 일부 주민들이 즉각 합류하여 일을 같이 하거나 물이나 다과를 가져다 주어 도움을 주었다. 니카라과에서는 봉사 활동에 참여했던 일부 시민들이 후기 성도들에게 큰 감명을 받아 선교사들이 집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는 보고도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회원들의 기여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엘살바도르, 찰추아파의 지역 사회 발전 위원회의 위원 한 사람은 지역의 한 시민 공원이 몹시 더럽혀졌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 정부는 예산이나 인력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금은 후기 성도들이 봉사의 날을 통해 기울인 노력 덕분에 상태를

중앙 아메리카의 봉사의 날

돈 설, 교회 잡지

중앙 아메리카 곳곳에서 교회 회원들은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일하며 4월 9일 토요일 하루를 보냈다. 하루가 끝나기 전에 회원들 그리고 같이 일한 일부 이웃들은 16만 6천 시간 이상을 봉사했으며, 이 시간은 한 사람이 24시간씩 매일 일했을 때 19년에 약간 못 미치는 분량이다.

2만 2천 명 이상의 교회 회원들이 다른 종교에 속한 1,800여 명의 친구들과 함께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에 산재한 258개 장소에서 봉사 활동을 수행했다.

봉사 활동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와 교회 회원들이 친구를 사귀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고 칠십인 정원회의 회원으로서 중앙 아메리카 지역 회장단의 제1보좌인 더블류 더글러스 섬웨이 장로는 언급했다. “이렇게 많은 교회 회원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여 청소, 페인트 칠, 수리를 하면서 하루 종일 서로를 즐겨 도와 주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었습니다.”

섬웨이 장로는 회원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근면과 영이 지역 사회의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과테말라 제2의 도시인 케살테낭고의 시장이 봉사 활동 다음날인 4월 10일, 일요일에 후기 성도 교회의 예배에 방문한 일을 그 예로 들었다. 시장은 봉사 활동에 참여한 후기 성도 젊은이들에게서 큰 감명을 받아 주일학교 시간에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의 청소년들이 도덕적인 깨끗함과 순수성을 지키도록 도와 주는 원리를 갖고 있어 저는 몹시 기쁩니다. 여



사진 촬영: 돈 설

엘살바도르에서 산살바도르 소아판고 스테이크의 회원들이 자동차 도로를 따라가면서 모은 쓰레기를 자루에 넣고 있다.

호전시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봉사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알아보기는 쉬웠다. 중앙 아메리카 곳곳에서 그들은 스페인어로 후기 성도를 약자로 표기한 “SUD”라는 글자와 함께 앞에 “Helping Hands(도움의 손길)”이라는 문구가 적힌 흰 조끼를 착용했다. 뒤에서 보더라도 조끼를 입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 즉 몰몬임을 알 수 있었다. 신원을 확인해 주는 이런 조끼는 다른 지역, 특히 브라질에서 비슷한 봉사 활동을 하면서 큰 역할을 했다.

지역 주민들만이 그들 지역 사회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던 것은 아니었다. 후기 성도 공보 위원들의 연락을 받은 언론 매체도 봉사 활동을 취재했다. 새로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의 신문에 실렸다. 엘살바도르에서는 여섯 개의 텔레비전 채널이 봉사의 날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으며, 또한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에서는 각각 한 채널이 소식을 전했다. 엘살바도르의 산살바도르에서는 한 지역 라디오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연락을 받고는 한 시간 이내에 새로운 이야기를 방송으로 내보냈다.

의심할 것도 없이 봉사의 날이 미친 더 지속적인 결과들 중의 하나는 후기 성도들과 지역 사회 지도자들 사이의 유대 강화일 것이다. 많은 봉사 활동을 통해, 지방 정부는 자재와 관리를 제공하고, 교회 회원들과 다른 사람들은 노동을 제공했다. 봉사 활동은 지방 정부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계획되었다. 예를 들어 산살바도르의 한 지방 자치 단체에서

는 여러 해 동안에 지방 정부와 함께 조용히 일해 온 한 회원이 시장의 요청에 따라 일단의 자원 봉사 그룹을 결성하여 지역 사회 극장 안팎을 청소하고 페인트 칠을 했다. 엘살바도르의 산타아나에서는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이 천주교 수녀들이 운영하는 양로원에 취직이 되었다. 수녀들의 요청에 따라 그녀는 자원 봉사자들을 모아 야외에서의 육체 노동뿐 아

니라 양로원에 살고 있는 노인들에게 개인적인 용모 손질과 보살핌도 제공했다.

이후로 많은 회원들이 봉사하면서 느꼈던 기쁨에 관해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봉사가 교회에 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한 사람은 “언어가 사람들을 믿게 만들지만 행동은 그것을 촉진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

파나마에서 청소년들을 돕는 손길

파나마 콜론 스테이크의 회원들은 갱생 및 예방 센터를 복구하기 위해 콜론 지방의 정부 관리들과 긴밀히 함께 일했다. 이 센터는 가정 문제를 갖고 있거나 마약 사용자가 될 위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임시 거처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이 센터는 그 지방에 있었던 일련의 화재 이후로 집을 잃은 사람들의 피난처로 사용되었다. 이 동안에 센터 내에 있던 세면대, 화장실, 창문 빗장, 그리고 중요한 다른 물품을 포함하여

귀중품들을 도난 당하여 센터는 쓸모 없이 유기되어 있었다.

스테이크 회원들은 4월 9일을 택해 지방 관공서가 이 센터를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준비하는 일을 도왔다. 콜론 스테이크에서 온 150명 이상의 성인들이 ‘도움의 손길’ 조끼를 입고 다섯 시간 동안 쓰레기 더미를 치우고, 센터 내부를 닦아 내고, 센터의 조경을 위해 활발한 정비 활동을 펼쳤다. ■



파나마 콜론 스테이크의 회원들이 버려진 청소년 시설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

2005년 9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



다음은 초등회 지도자들이 리아호나 2005년 9월호에 실린 함께 나누는 시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충 제언이다. 이러한 제언에 해당하는 공과와 유의 사항 및 활동에 대해서는 이번 호의 친구들란 4쪽과 5쪽에 있는 “올바른 길을 택하여 행복해지십시오”를 참조한다.

1. 어린이들에게 아기의 출생이나 다른 가족의 즐거운 행사와 같은, 여러분이 받은 중요한 소식에 관해 말한다. 그 소식은 어떻게 전달되었는가? 여러분은 오늘 중요한 소식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초등회 그림 패킷에 있는 그림 5-7을 보여 준다.(성전에 있는 천사 모로나이상) 어린이들에게 그림에 누가 있는지를 묻는다. 그는 왜 나팔을 불고 있는가? 그는 어떤 중요한 소식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가? 조셉 스미스-역사 1:27~67절의 내용을 활용하여, 몰몬경의 출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별도의 종이에 이야기를 복사하는 질문을 적어(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68~70쪽 참조), 봉투에 넣는다. 질문을 이리저리 돌리는 동안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음악을 아무 곳이나 멈추고, 봉투를 들고 있는 어린이에게 질문을 뽑아 양편에 있는 어린이 중 한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아 답하게 한다. 노래를 계속하고 모든 질문에 답하게 될 때까지 봉투를 돌린다. 각 반과 그 교사에 몰몬경에 있는 한 성구를 주어 살펴보게 한다.(니파이후서 31장; 모사이야서 2~5장; 제3니파이 11~13, 18장 등에 있는 구절들과 같이 교리적인 내용이 풍부한 성구를 선정한다.) 교사의 도움을 받아, 각 어린이가 “너희 가족 안에서 ...

[기도하여]”(제3니파이 18:21)와 같이 세상에 커다란 소식이 될 간단한 교리를 경전에서 찾아보게 한다. 각 어린이를 교실 앞으로 나오게 하여 몰몬경의 내용 중에서 그가 세상에 전하는 소식을 반복하게 한다.

2. 미리 감독이나 지부 회장과 상의하여 회원 두세 명을 초대하여 십일조를 내는 축복에 대한 간증을 나누게 한다.(가능하다면 독신 성인이나 어린이를 포함시킨다.) 십일조의 원리를 가르친다. 십일조가 “재능 개발” 편(하나님을 믿는 신앙 지도서, 10쪽)에 있는 활동의 초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 프로그램’(4쪽 참조)의 기본 요건들 중의 하나라고 지적한다. 감독단이나 지부 회장단의 일원에게 어린이들에게 십일조가 무엇을 위해 사용되는지를 설명해 달라고 부탁한다. 각 어린이가 십일조를 모으기 위해 사용할 작은 상자, 깡통, 또는 봉투를 꾸미는 것을 돕는다. 각 어린이에게 십일조 양식을 주고 작성 방법을 가르친다. 감독단 또는 지부 회장단의 일원에게 십일조를 내고 감독이나 지부 회장을 만나 십일조 결산을 한다고 설명한다. 십일조의 축복에 대한 간증을 나누기 위해 초대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경험을 나누어 줄 것을 부탁한다.

3. 한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이나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어린이들에게 여러분의 이름과 그 중요성에 관해 말한다. 여러분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을 따라 지어졌는가? 부모님은 왜 그 이름을 택하셨는가? 두세 명의 어린이들에게 부탁하여 그들의 이름에 관해 말하게 한다. 어린이들이 ‘나의 복

음 표준’에 있는 “나는 하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건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욕이나 거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를 암송하게 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을 돕기 위해 그분은 많은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쟁반에 다음과 같은 것들을 모은다. (1) 자갈, (2) 빵, (3) 포도나무나 그 그림, (4) 태양의 사진이나 그림, (5) 작은 지구본 또는 복음 그림 패킷 600-세계, (6) 복음 그림 패킷 403-첫번째 시현, (7) 목자의 지팡이 또는 작은 양을 나타내는 것, (8) 복음 그림 패킷 227-겻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9) 왕관. 이러한 물건 각각은 다음 참조 성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낸다. 자갈(반석)-힐라맨서 5:12; 생명의 떡-요한복음 6:47~48, 포도나무-요한복음 15:5, 세상의 빛-요한복음 8:12; 창조주-모사이야서 3:8, 사랑하는 아들-조셉 스미스-역사 1:17, 선한 목자-요한복음 10:11, 구주-교리와 성약 43:34, 왕-교리와 성약 45:59. 이름이 아니라 참조 성구를 칠판에 열거한다. 어린이들이 참조 성구를 읽고, 각 물건이 나타내는 예수님의 이름을 찾아보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한 이름이 그분께 관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 토론한다.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침례를 받고, 성찬을 취할 때,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받드는 것임을 상기시킨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와 예수님의 이름을 경건하게 사용하고 욕이나 거친 말을 사용하지 않을 때 성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간증한다. ■

한국 교회 헌납 50주년 및 조셉 스미스 탄생 200주년 기념

행사 특집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 성도와 한국을 알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난 2005년 7월 30일과 31일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이 기념 축제를 위해 지난 1년 또는 1년을 넘게 연습을 하고 참여했던 회원들은 더욱 많은 느낌을 지니고 있지 않을까 싶다.

모두 한마음이 되어 준비하였던 '한국 교회 헌납 50주년 기념 및 조셉 스미스 탄생 200주년 기념 모임'은 이제 끝났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모든 성도에게 특별한 느낌을 갖게 한 기념 행사를 이곳에서 다시 되새겨 보고자 한다.



문화의 밤

등등등.

힘찬 대북 소리가 올림픽 체조 경기장 내에 울려 퍼졌다. 작고 미세한 두드림으로 시작된 대북의 울림은 곧 관객 모두 심장을 떨리게 할 정도로 커졌다. 그것은 마치 미약하게 시작한 한국 교회가 크고 장대하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듯 했다. 2005년 7월 30일 한국 교회 헌납 50주년 기념 및 조셉 스미스 탄생 200주년 기념 『문화의 밤』은 그렇게 대북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대북 소리가 울려 퍼지기 몇 분 전, 당초 예정되어있던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의 참석이 일요일로 연기되었다는 발표가 있었을 때만 해도 공연장에는 아쉬움이 가득했다. 하지만 『문화의 밤』의 시작을 알리는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장내는 곧 열광과 환호의 박수로 뒤덮였다. 그리고 뒤 이어 대북의 울림은 박수와 함께 어우러져 한국을 향해 오고 계신 선지자를 미리 영접하는 듯 했다.

대북 공연이 끝나고 ‘조셉 스미스’에 대한 영상물이 상영된 직후 공연장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소리없이 피기 시작했다. ‘화관무’ 공연이 시작된 것이다. 공연의 제목은 일찍이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한국을 지칭했던 ‘조용한 아침의 나라’ 제목에 걸맞게 소리도 없이 사뿐히 들어선 청녀들은 5색 구슬로 장식된 화관을 쓰고 우아하고 고운 춤사위를 선보이기 시작했다.



문화의 밤 진행을 맡은 이규봉 형제와 설유선 자매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대북 공연, 황인상 형제

긴 한삼이 청녀들의 팔 동작에 맞춰 공중에 뿌려질 때마다 객석에선 탄성이 터져 나왔다. 유연한 반주 장단과 절묘하게 어우러진 춤은 마지막에 이르러 큰 꽃송이가 개화하는 듯한 장관을 연출하며 끝을 맺었다. 아름답고 조용한 한국을 알리기에 더없이 좋은 첫 인사였다.

화관무의 아름다움에 심취해 있던 마음을 추스르려는 순간 무대 위엔 20여 명의 이국인이 등장했다. 노인과 아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인 20명은 바로 하와이에서 온 '데니스 김' 가족이었다. 한국 사람으로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김재한 형제가 하와이로 건너가서 침례를 받은 지 78년 만인 2005년, 그의 손자인 '데니스 김'이 대가족을 이끌고 『문화의 밤』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다. 비록 이국인의 용모지만 언뜻 스쳐가는 그들의 미소나 눈빛 속에선 한민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그들이 선보인 하와이 춤곡은 관객들에게 더욱 살갑게 다가왔다.

한국 교회의 역사에서 '김호직'이라는 이름을 뺄 수 없을 것이다. 김호직 박사는 한국 교회의 진정한 씨앗이었고 그 자체가 밑거름이었으며 또한 깊고 우렁찬 뿌리였다. 부산 지역의 청년들은 바로 그 '김호직' 박사에 관해서 '8년간'이라는 제목의 짧은 연극으로 보여주었다. '데니스 김' 가족의 정겨운 공연이 끝난



화관무, 강서, 남, 동, 동대문, 북, 서울, 영동 스테이크의 청녀와 지도자들



독창, 김신환 형제



데니스 김 가족 공연



뒤 무대 위엔 금발로 물들인 한 청년이 등장했다. 연극의 시작이었다. 금발의 청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올리버 웨이먼'이라고 소개했다. 그리고나서 김호직 박사에 대한 추억을 들려주기 시작했다. 연극은 시종일관 담담하고 조용한 '증언'들로 연출되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큰 울림이 되어 객석은 숨을 죽이고 그들의 증언에 귀를 기울였다. 바로 뒤에 이어진 김호직 박사의 아들, 테너 김신환 형제의 독창은 연극과 화합하며 더 큰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정적이고 담담한 연

극에 비해 김신환 형제의 독창은 힘차고 담대하게 객석을 압도하면서 많은 박수를 이끌어 냈다. 연극과 독창은 담담함이 담대함과 맞물려 꼭 김호직 박사의 일생처럼 아름답게 마무리 되었다.

관객을 압도하는 독창은 또 하나가 준비되어 있었다. 한국 지역 헌납에 대한 영상물이 나간 후에 무대에 오른 이진희 자매가 그 주인공이었다. 성장하고 발전하는 교회를 상징하듯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이진희 자매는 '빛의 천사여'라는 곡을 열정을 다해 선사했다. 빠르고 시원

한 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그녀의 노래는 관객들에게 상쾌함을 느끼게 하는 특별한 힘이 있었다. 매끄러운 고음의 향연에 빠져서 상쾌함을 느끼던 관객들에게 즐거운 웃음을 선사한 것은 광주에서 준비한 연극이었다.

광주 연극은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온 파란 눈의 선교사들이 겪어야 했던 에피소드들을 재미있게 보여주었다. 처음 온 외국인 자매 선교사에게 연탄과 북어를 듣게 한다든지 '변호사 사무실'을 '간호사 사무실'로 혼동한



광주 연극, 선교 사업 에피소드



부산 연극, 8년간



독창, 이진희 자매

다는 이야기는 공연장을 웃음으로 채우기에 충분했다. 특히 깜짝 출연한 '로버트 할리'가 등장했을 때에는 관객들의 열렬한 환호와 웃음이 터져 나왔다. 지나치게 진지하고 무거워 질 수 있는 『문화의 밤』 행사가 광주의 연극으로 인해 여유로워지고 부드러워지게 된 순간이었다.

광주의 연극이 끝나자 공연장 안으로 각 선교부의 팻말을 앞세운 귀환 선교사들이 찬송가 145장 "주 섬기라"를 부르며 입장하기 시작했다. 외국인 귀환 선교사들과 한국인 귀환 선교사들 그리고 오래 전에 귀환한 선교사들과 며칠 전에 귀환한 선교사들은 하나같이 밝고 환한 표정이었다. 그 표정 속에는 갖은 고난을 헤치고 주님의 사업을 완수했다는 자랑스러움과 추억이 깃들어 있었다. 한국에서 봉사한 역대 선교부 회장들이 무대 위로 모셔졌고 인터뷰가 시작되었다. 여러 인터뷰 중에서 특히 낯선 회장은 한국어로 "여러분을 아주 사랑합니다."라고 말해 모두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다함께 가곡 '보리밭'을 부르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귀환 선교사들을 향해 객석에선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감사의 박수가 끊없이 계속되었다. 그 모습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감동이었다.

귀환 선교사들의 감동적인 순서가 끝나고 교회의 성장에 대한 영상물이 나간 후부터는 그야말로 화려하고 흥겨운 축제의 한 마당이 전개되었다. 첫 순서는 인천 스테이크 소속 부부 회원으로 시작된 '위트니스 중창단'의 '도라지 타령'이었다.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음식의 위트니스 중창단은 역시나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선율의 민요 '도라지 타령'을 멋들어지게 소화했다. 뒤 이어 부른 '신 아리랑'도 절묘한 화음으로 모든 관객의 마음속에 흥겨움을 심었다. 중창의 아름다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복을 곁채차려입은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공연장으로 등장했다. 흥겨운 '소리'와 함께 등장한 자매들은 손을 손을 잡고 큰 원을 그렸다. 다음 순서인 '강강술래'의 시작이었다. 한국인의 귀에 익숙한 "강강술래"라는 소리와 함께 어우러진 군무는 서양의 그것과는 다른 흥겨움과 아름다움을 선사했다. 강강술래의 특징은 서로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면서 춤을 추는 것인데 작은 원으로 나뉘었다가 다시 큰 원으로 합쳐지는 사



귀환 선교사 대회 입장 모습



민요 중창, 위트니스 중창단



강강술래, 수원, 안양, 영동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원들



부채춤, 대전 스테이크의 자매들



태권무, 서울 강서 스테이크와 서울 남 스테이크의 초등학교 어린이들



북춤, 강서, 남, 동, 동대문, 북, 서울, 영동 스테이크의 청남과 지도자들



뮤지컬, 서울 경기 지역의 청년 및 청소년들



전공자 증창

이사이의 동작들이 참으로 멋들어졌다. 관객들의 탄성과 박수를 동시에 받으며 퇴장한 강강술래의 뒤를 이은 공연은 '부채춤'이었다. 앞서 했던 어떤 공연보다도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한 부채춤은 한국의 예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곡선의 미'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마치 나비의 날갯짓 같은 부채의 너울거림은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며 관객들을 황홀경으로 빠지게 만들었고 관객들은 열화와 같은 박수로 화답했다.

부채춤이 '곡선의 미'를 보여주었다면 뒤 이은 '태권무'는 '직선의 미'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선보인 '태권무'는 어떤 공연보다도 힘찼다. 손과 발이 일직선으로 뻗어나가며 내뿜는 "태권"이라는 구령과 일사불란한 동작들은 '단합'과 '용기'를 표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특별히 어린 초등학교 회원들이 앞에 서서 힘찬 모습을 보여주는 형, 누나, 오빠, 언니들을 열심히 따라하려고 애쓰는 천진난만한 모습은 너무나 귀엽고 대견스러워서 오히려 더욱 큰 감동을 주었다.

전통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농악'과 '북춤'이었다. '후기 성도 천하지대본'이라고 적힌 깃발을 앞세우며 등장한 풍물패들은 신명나는 공연을 선사했다. 쇠와 징, 장구와 북 그리고 소고 어우러지면서 내는 소리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힘과 흥겨움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퍼져 있는 농악처럼 주님의 복음이 한국 땅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지기를 염원하는 풍물패의 소리와 몸짓은 관객들의 어깨를 절로 들썩이게 했다. 특히 화려한 상모돌리기는 농악 공연의 절정을 이루었다. 풍물패의 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120여명의 청남들이 북소리를 울리며 등장했다. '북춤'은 처음부터 관객을 압도하는 웅장한 소리로 공연을 시작했다. 마치 승리의 함성을 지르는 것처럼 공연장 곳곳으로 크고 너른 북의 울림이 전해졌다. 그 웅장함 속에는 한국 교회의 헌납 5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찬 의지가 가득 담겨 있었다.

힘차고 역동적인 공연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었던 전통 공연이 끝나고 어린이 합창단의 합창이 시작되었다. 해맑은 목소리에서 나오는 찬송은 얼음도 녹일 만큼 따스하고 평화롭게 들렸

다. 천진하게 노래를 부르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왜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관객들 모두는 느낄 수 있었다.

한국 교회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감동적인 합창이 끝난 후 교회의 중추인 독신 성인들의 댄스 스포츠 공연이 이어졌다. 흥겨운 음악과 함께 등장한 독신 성인들은 정열적인 젊음의 모습을 춤으로 표현했다. 오랜 시간 동안 후기 성도 교회 청년들의 독특한 문화로 자리 잡은 댄스 스포츠가 한결 아름답게 변해 모든 관객을 즐겁게 만든 시간이었다. 각자가 서로 다른 듯하면서도 종래에는 함께 어우러져 화려한 동작을 선보인 댄스 스포츠 공연은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독신 성인 특유의 감성을 잘 표현하고 있었다. 관객들은 춤의 한 동작 동작마다 환호와 박수를 보내며 젊은이들의 역동성에 지지를 보였다.

다음 순서는 『문화의 밤』의 모든 공연 중 최절정이라 할 수 있는 '뮤지컬' 공연이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공연된 뮤지컬은 오래 전부터 준비한 순서답게 화려하면서도 잘 정돈된 무대를 보여주었다. 특히 15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후기 성도 회원의 올바른 자세라는 내용과 노래 그리고 춤을 적절히 담아 낸 솜씨는 관객들의 찬탄을 자아내게 했다. 모든 곡들과 춤을 손수 창작한 뮤지컬은 일반 뮤지컬 공연과 비교했을 때도 전혀 손색이 없었다. 무엇보다 출연진의 열정과 노력이 돋보인 뮤지컬은 관객들의 큰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뮤지컬의 뒤를 이은 '전공자 중창'도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단



댄스 스포츠



어린이 합창단, 동, 동대문, 북, 서울 스테이크 초등학교 어린이들



농악, 전주 스테이크의 회원들

원들의 소속 스테이크가 저마다 달라 연습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전공자 중창단은 천상의 소리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하늘의 축복을 끌어 내릴 것만 같은 힘찬 중창을 선보인 중창단은 “양코르”를 연호하는 관객들에게 또 다른 곡으로 화답했다.

‘전공자 중창’이 끝난 후 상영된 ‘플래시 애니메이션’은 또 다른 재미를 주었다. 깔끔하게 제작된 ‘플래시 애니메이션’은 미래의 어느 날, 학교 숙제를 위해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준비하는 한 소년의 이야기를 통해 현재 우리 회원들의 신앙 생활과 교회의 발전 모습을 보여 주었다. 교회의 발전 모습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플래시 애니메이션’은 탁월한 효과를 보였는데 인터넷에서나 접할 수 있었던 애니메이션의 상영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탄성 섞인 박수를 보냈다.

웅장함으로 사람의 심장을 떨리게 했던 대북 소리가 『문화의 밤』의 시작을 열었다면, 그 마지막은 화합과 조화로 시종 일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합창단이

장식했다. 합창단은 전국 각지의 20개 스테이크 및 지방부에서 모인 500여 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었다. 외모나 성별 심지어는 말씨까지도 다른 500여 명의 합창단원들은 주님을 찬송하는 순간만큼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더욱이 합주단의 가늘고 세밀한 연주와 합창단의 부드럽고 담대한 찬송의 어우러짐은 천사의 음성이 공연장 내에 울려 퍼지고 있다는 착각이 들게끔 만들었다. 합창단과 합주단은 공연의 중간마다 이러한 천사의 음성으로 관객들은 물론이고 출연진들의 마음까지도 감동케 만들었다.

‘아리랑’과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을 찬송한 합창단의 공연으로 『문화의 밤』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날 모임의 감리자인 요시히코 기쿠찌 장로는 “이 『문화의 밤』이 선지자이신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께서도 기뻐하실 훌륭한 공연이었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그 자신도 감동한 목소리로 “한국의 백성을 사랑하고 훌륭한 공연을 보여준 모든 분들께 한다.”라는 말씀을 남겼다. 기

쿠찌 장로의 마지막 말씀이 끝난 후에도 관객들의 박수는 한동안 계속되었다. 감동과 아쉬움, 기쁨과 헤어짐을 섭섭해 하는 박수였다. 관객을 향해서 손을 흔드는 출연자의 얼굴에도 여러 표정이 교차되었다.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이 넘는 시간동안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땀 흘리고 희생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자연스럽게 짓게되는 표정들이었다. 『문화의 밤』은 한국 지역의 교회 역사에 있어서도 그리고 공연에 참여했던 출연자들에게도 마지막으로 공연을 관람했던 관객들에게도 일종의 전환점이 되었다. 3시간 가까운 시간동안 함께 웃고 울며 박수쳤던 이 땅의 모든 후기 성도들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었다. 그러기에 다음 날 선지자께서 한국 지역 대회에 참석하시길 바라며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대낮의 빛보다도 환할 수 있었다. 사람들이 빠져나간 올림픽 체조 경기장은 충만한 사랑과 주님의 영으로 가득 찼던 하루를 마감하며 하나 둘 조명이 꺼져갔다. (김미숙, 전건우 기자) ■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합연

귀환 선교사 대회



19 56년 돈 파웰 장로와 리처드 데튼 장로가 최초의 선교사로 봉사한 뒤 수많은 선교사가 한국에서 봉사했다. 한국을 특별히 사랑하는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땅에 수많은 개종자가 나오게 되었다. 한국 성도들은 2005년 한국 교회 헌납 50주년을 기념하여 귀환 손님을 초대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50년 동안 한국 땅에서 봉사했던 선교부 회장들과 선교사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한국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다. 7월 27일과 28일 양일간 귀환 선교사들과 선교부 회장들은 자신이 봉사했던 지역에서 귀환 선교사 모임과 특별 노년의 모임을 가졌다. 전국 지역 33곳의 장소(각 지역별 장소 및 일정은 리아호나 8월호를 참조)에 참석한 귀환 선교사들은 외국에서 온 700여 명을 포함하여 3,000여 명이였다. 일찍부터 함께 모인 귀환 선교사들은 간증과 더불어 아름다운 추억을 함께 나누었다.



7월 30일 오전 10시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는 일찍부터 귀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함께 모였다. 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선교부 회장이 들고 있는 팻말을 따라 길게 줄을 섰다. 선교사로서 지냈던 열의를 기억하며 그들은 '주 섬기랴'를 불렀고 오랜만에 재회한 선교부 회장 내외와 선교사들은 기쁨을 나누었다. 7월 31일 한국 지역 대회에도 많은 귀환 선교사들이 선교부 회장 내외와 함께 하였다. 한국에서 봉사한 귀환 선교부 회장들이 폴 앤드루스 회장을 시작으로 전체 39명이고 그중 돌아가신 분이 여섯 분이 계시는데, 한 분만 제외하고 그분들의 부인이 참석을 하였고, 살아 계신 분 중에서는 건강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 분만 빠지고 모두 참석하였다. 고원용 장로가 한분 한분을 소개할 때마다 함께 봉사했던 귀환 선교사들이 열띤 환호로 그분들을 환영해 주었다. 특히 대전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던 와델 회장은 대회 참가 불과 2주전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많은 사람을 안타깝게 했었지만, 슬픔 중에서도 와델 자매가 참석하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모든 사람들의 따뜻한 위로를 받았다. 3,000여 명의 선교사들은 특별히 최초의 선교사 돈 파웰 형제의 간증을 들으며 한국 땅에 복음의 씨앗이 깊게 뿌리 내릴 수 있음에 감사를 표했다. ■



한국 지역 대회

2005년 7월 31일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선지자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감리하에 한국 지역 대회가 열렸다. 12,000여 명의 성도들은 고원용 장로, 김은희 자매, 기꾸찌 자매, 기꾸찌 장로, 돈 파웰 형제, 윌리엄 알 위커 장로의 말씀과 간증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말씀과 간증을 들으며 성신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고원용 장로

북 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2보좌
50주년 행사 준비 위원장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단상에서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합니다. 참으로 전국에서 모여 주신 여러분들과 해외에서 방문하신 많은 선교부 회장님들과 귀환 선교사와 성도들 여러분께 참으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을 보면서 물론 경 모사이야서 2장에 나오는 베냐민 왕께서 아들 모사이야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모아 가르침을 주셨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아들 모사이야가 왕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단지 남편과 아내만 가거나 가족의 대표만 모인 것이 아니라 구절에 보면 “각 사람이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딸들로 된 자기 가족을 따라, 가장 나이 많은 자로부터 아래로 가장 나이 어린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족이 모였”습니

다. 오늘 여러분도 모든 가족을 데리고 참석하였습니다. 베냐민 왕 시절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많은 가족들을 데리고 참석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희생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이렇게 참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사이야서에서는 이렇게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셨으며, 의인들을 그들의 교사로, 또한 한 의인을 그들의 왕으로 임명하사, 그로 제이라헤 블라 땅에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그로 그들을 가르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기뻐하며 하나님과 만민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신, 주 그들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려 함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또 하나님이 성별해 주신 많은 축복에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이러한 불편을 무릅쓰고 이 곳에 모인 것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이 땅에 내려주신 축복,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굳게 기초를 세우고 발전하게 해주신 많은 축복, 훌륭한 성도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이끌도록 하여주신 축복에 감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오늘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이 자리에 많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에 감사하는 축제를 저희들은 준비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축제를 준비하면서 신이 났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참으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가정복음 교육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우리와 잠시 떨어졌던 회원들을 다시 찾아 함께 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직도 교회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선교사 열기가 전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시

온을 더 아름답게 채우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이 축제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열정을 모아 문화의 밤 준비를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로부터 청소년, 청년, 상호부조회 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그 외 형제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연령층과 또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축제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훌륭한 공연을 보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모두가 지난 50여년 우리에게 내려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백성들이 모였을 때 베냐민 왕께서는 많은 가르침을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종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이제 곧 선지자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께서 도착하셔서 훌륭한 가르침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나 베냐민 왕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가르침을 듣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베냐민 왕은 가르침을 주시고 백성들이 각자 돌아간 다음 그들 가운데 사람을 보내어, 그가 그들에게 한 말을 그들이 믿는지 알아보려 하였더라고 기록되어있습니다. 이때 백성들의 대답이 바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그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소리쳐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우리는 왕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믿나이다. 또한 우리는 전능하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것의 확실함과 참됨을 아노니,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곧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변화를 이루셨으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으며, 끊임없이 선을 행하

고자 하나이다.”(모사이야서 5:2) “이에 우리는 기꺼이 우리 하나님과 성약을 맺어 우리의 남은 평생을 두고 그의 뜻을 행하며, 그가 우리에게 명하실 모든 일에 있어 그의 계명에 순종하여, 천사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결코 끝나지 않는 고통을 우리 자신 위에 초래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우리가 마시지 않게 하려 하나이다.”(모사이야서 5:5)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성약입니까? 이에 베냐민 왕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내가 바라던 말을 하였도다. 그리고 너희가 맺은 성약은 의로운 성약이 니라. 이에 이제 너희가 맺은 성약으로 인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자녀라, 그의 아들과 그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는 보라, 오늘날 그가 영적으로 너희를 낳으셨음이라. 이는 너희 말에 너희 마음이 주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변화되었다 함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에게서 낳고 그의 아들과 딸이 되었느니라.”(모사이야서 5:6~7) 얼마나 훌륭한 축복입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이미 이러한 성약을 맺으셨고 충실하게 지켰으므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5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이처럼 거룩한 성약을 맺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낳으시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같은 날에 태어난 영적 생일이 똑같은 쌍둥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12,000명의 쌍둥이가 한날 한시에 태어난다면 이것은 아마 분명히 기네스북에 오를 기이한 일이 되겠습니다. 이 대회는 단지 지난 50년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50년 그 후 50년 그리고 영원히 주님의 성도로서 우리가 맺은 성약에 충실하면서 이 땅에 교회를 더 굳건히 세우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함께 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자리입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많은 것들이 새롭게 변화 하였습니다. 경전을 새롭게 번역하였습니다. 교회 용어도 심지어 한글 교회 이름까지도 새롭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하였던 것들이 바뀌게 되어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심지어 이상하기도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생각을 좀 더 넓게 가지며, 이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하여 좀 더 기초를 굳건히 다지고자 함을 이해하시고 어색함을 극복하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결심과 각오로 노력할 때 우리는 베냐민왕의 백성들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간증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고통이 크다고 생각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있을 때 겪으셨던 고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절망이 크다고 생각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십자가에서 겪으셨던 절망과 고통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생각할 때 주님의 사랑과 화평이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신 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께 간증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제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께서서는 참으로 연세가 높으심에도 불구하고 한국 백성과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국 대회에 참석하시기 위해 이곳에 오십니다. 그분은 이제 이곳에서부터 앞으로 먼 여행을 하십니다. 아프리카로 가셔야 합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많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생활에 우리 이웃들에게 많은 사랑을 나누어주고 선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자 노력할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많은 축복으로 보상해 주시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께 간증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살아 계신 선지자를 통해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이 교회는 마지막 날에 회복된 하나님의 참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간증으로 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





김은희 자매
고원용 장로의 부인

안녕하십니까? 김은희 자매입니다. 저를 오늘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앞에 앉아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제 감정을 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앨마서에 나오는 엔타이-니파이-리하이 백성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암몬이 라모나이 왕을 만

나고 라모나이 왕은 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왕후도 남편 라모나이 왕을 따라서 주님을 믿게 되었고 라모나이 왕의 부친도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모나이 왕의 부친의 왕후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복음을 알도록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엔타이-니파이-리하이라는 백성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물문경에서 그 구절을 읽으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라모나이 왕의 부인과 그의 부친의 왕후가 남편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남편은 하나님을 믿고 그 부인은 반대하였더라면 그 아름다운 백성들이 나왔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남편이 옳은 일을 하고자 할 때,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 그 부인의 지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암몬도 훌륭하게 선교 사업을 했고 아론도 훌륭하게 선교 사업을 행했지만 부인이 지지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백성들이 생겼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27년 동안

다행히도 남편을 항상 지지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제 남편이 항상 바쁘고 가족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없지만 그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남편을 갖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어제와 오늘 아주 훌륭한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참으로 저희 남편을 지도자로 여러분들이 잘 따주시고 순종해 주시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모습에 제가 진심으로 한분 한분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참으로 이교회가 후일에 회복된 유일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살아 계신 선지자인 헝클리 회장님을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참으로 훌륭한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물문경을 갖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같은 배에 타서 같은 복음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여러분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





기꾸찌 자매(한국말로 간증)

요시히코 기꾸찌 장로의 부인

저는 아름다운 한국 성도들을 만날 수 있어서 기쁩니다. 한국에서의 선교 사업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 있기 때문에 가족으로써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살아 계신 선지자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과 함께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요시히코 기꾸찌 장로

전 북 아시아 지역 회장

오늘 살아 계신 선지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세상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특별히 한국인을 더 사랑하십니다. 살아 계신 선지자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길 것입니다. 고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오늘이 우리 한국이 변화할 그날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저희는 여러분 각 개개인과 일할 수 있었습니다. 힝클리 회장님 어제 저희와 함께 하시지 못하셨지만 제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 중에 가장 훌륭한 문화의 밤을 가졌습니다. 회장님께서 나중에 보실

수 있도록 훌륭하게 비디오를 준비했습니다. 스테이크와 와드가 놀라운 숫자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나라가 놀랍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크게 번영하고 있고 또 교회의 회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교회 지도자들은 제일회장단과 12사도의 지시를 잘 따르고자 하고 있습니다. 고 장로님의 자매인 김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 있는 교회에는 단합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을 대신해서 고 장로님께서 문화의 밤을 준비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 6개월 동안 방문 교육과 가정 복음 교육을 열심히 수행해 주셔서 그 수치가 놀랍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성전 예배를 위하여 잘 준비하셨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성전을 위해 준비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매년 성전 추천서를 지니고 있는 회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힘



클리 회장님의 권고에 따라 십일조를 충실히 바치실 것을 권고합니다. 말라기서에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연차 대회에서 헝클리 회장님께서서는 우리가 정직하고 충실하게 십일조를 주님께 바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쌓으신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또한 연로하셔서 은퇴하신 분들과 또한 젊은이들에게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고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아주 훌륭하고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저는 자주 여러분이 얼마나 훌륭한 성도인지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헝클리 회장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지자이시라는 것을 간증 드립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또한 여기 살아 계신 선지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삶을 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돈 파웰 형제
한국에 파견된 최초의 선교사

헝클리 회장님, 저는 말씀하는 도중에 혹시 심장마비가 일어 날까봐 심장마비 구급약을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머무른 지가 약 열흘 정도 됩니다. 저는 1956에 한국을 떠난 후로 이번이 한국에 처음 돌아온 것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정말 주님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분의 손길이 한국에 닿아서 이 나라와 또한 이 백성의 마음에 닿으셨습니다. 제가 한국에 옛날에 처음 왔을 때 김호직, 홍병식 형제님 등 몇 분이 저를 만나주셨고 육군 지프차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제가 한국에서 차량이라고 본 것은 육군 지

프차와 육군 트럭을 제외하고는 차량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세단차도 없었고 고속도로도 고층 건물도 호텔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이 나라는 그야말로 황폐한 나라였습니다. 저는 종종 한국에서 봉사한 첫 번째 선교사라고 듣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처음 선교 사업을 한 사람은 M1 소총을 들고 헬멧을 쓴 군인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은 1956년 김호직 박사님과 64명의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64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충실한 말일성도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소총만 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몰몬경도 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군인 형제님들이 저와 제 동반자가 한국에서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성도들을 잘 가르쳐 주시고 길을 닦아주신 것에 늘 감사합니다. 상황은 대단히 가혹했습니다. 그때는 전기도 없었고 온수도 목욕 시설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먹는 음식과 마시는 물에 대해 아주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인쇄된 자료도 없었고 몰몬경 번역된 것도 없었고 어떤 인쇄 장비 복사기도 없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영에 의해서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이 이렇게 될 거라고 꿈도 꾸지 못했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압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살아 계신 것을 압니다. 그분이 우리의 형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 한분 한분을 그분의 형제와 자매로 사랑하십니다. 헝클리 회장님은 하나님의 진실 된 선지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의 사업도 헝클리 회장님의 사업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국말로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한 뒤 헝클리 회장은 위커 장로에게 말씀을 즉석에서 부탁했다. ■





윌리엄 알 워커 장로
북 아시아 지역 회장

힝클리 회장님께서 저에게 간증을 하도록 갑자기 요청하시니 놀랍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합니다. 저는 힝클리 회장님께서 한국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을 지난 40년 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일본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었는데 힝클리 회장님께서 일본에 오시는 일만 있으면 한국에 반드시 들렀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선교사로 있으면서 힝클리 회장님께서 말씀

하실 때 마다 “내가 방금 한국에 갔다 왔는데 ... 한국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고 장로님께서 그분의 간증을 하실 때 베냐민왕의 이야기를 언급하셨습니다. “이에 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그의 거룩한 선지자를 보내사, 모든 족속과 나라와 방언에 이러한 일을 선포하게 하사, 이로써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는 자들 그들은 그들의 죄 사함을 얻고, 참으로 마치 그가 이미 그들 가운데 오신 것같이, 심히 큰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셨느니라.”(모사이야서 3:13)

그것이 오늘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로써 주님의 위대하신 선지자께서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오늘 그분께서 이 곳에 오셔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너무나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구세주가 이 세상의 구속주시라는 것을 간증 드립니다. 저는 이 사업이 주님의 사업이고 힝클리 회장님께서 그분의 선지자라는 것을 간증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제일회장단 회장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기에 참석한 것은 저에게 커다란 특권입니다. 도착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 밤 앵커리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야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참으로 기적입니다. 저희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작된 주님의 사업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이 시작되는 모습은 이 땅에서 주님의 사업이 시작 된 것을 저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그곳에 약 20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200명 모두는 교회에 처음 참석하는 생소한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선교부가 설치된 것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충실하고 참되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러시아에서 한국에서 겪었던 것들을 보게 되리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파웰 형제님께서 한국에서 초기에 선교 사업 했던 때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1960년부터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다. 약 50년간 계속된 한국 교회 사업 중에서 저는 45년 동안 한국을 오고갔습니다. 저는 그 전에는 김호직 박사님을 몰랐습니다. 그는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의 충실한 종으로서 개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많은 개척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분은 세상을 떠나시거나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저는 이호남 형제가 생각납니다. 제일 이 카 선교부 회장님이 생각납니다. 스펜서 제이 팔머 형제님도 생각납니다. 이 자리가 있기까지 이끌었던 많은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저는 참으로 기적과 같은 일을 이 자리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파웰 형제님께서 우리가 늘 타고 내렸던 군용 지프차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경찰에게 오토바이 100대를 기증했던 것도 기억합니다. 제가 서울에 처음 방문했을 때 우리는 세 번이나 체포당했습니다. 그들은 선물 받은 100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아무나 체포 했습니다. 그때 선교부에서는 차가 한 대 있었습니다. 녹색 차로써 인터내셔널 자동차의 트럭이었는데 괴물이라고 불렸습니다.

오늘 제가 공항에서 여기 오는 동안 거리에 미국 자동차가 한 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제가 타고 온 자동차는 아주 좋은 자동차였습니다. 현대 자동차였습니다. 아주 특별한 세단인데 현대 자동차였습니다.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 대우 자동차, 차가 그렇게 많은데 일본차도 미국 차도 보지 못했습니다. 유럽 차도 보지 못했습니다. 현대 자동차가 미국 국내에 큰 제조 공장을 세웠습니다.

저는 지금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 형제님이 1960년 한국에 군사혁명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모였던 곳

으로 저희를 인도해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그때 서울 거리뿐만 아니라 1961년 서울의 거리도 기억합니다. 옛날 반도 호텔에 머물고 있는 동안 페루 대통령이 온다고 저희가 그곳에 머무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옮겨간 호텔은 메트로 호텔입니다. 새벽 4시쯤 제가 묵고 있는 창밖으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작은 신호였습니다. 한국 해병대가 한국 전역을 장악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묵고 있는 호텔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고, 안에만 머물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머리 속으로는 그런 것들을 포함한 많은 기억들이 스쳐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주민들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악이라고 할만한 상황에 놓여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낡은 피아노를 운반할 때 사용하는 껌테기 안에서 살던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남루한 복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변했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번영의 상징인 것처럼 보입니다. 모두가 부유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셨습니다. 저

는 제가 갖고 있는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평화와 우리의 안락을 주셨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의로움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축복이야말로 성도들이 복음을 생활화했기 때문에 온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은 보호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한 고통이 오더라도 보호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제 마음 속에는 한국 성도를 위한 특별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길을 바라보는 일은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옛날 친구들을 만나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참으로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 친구들은 교회에서 충실했습니다.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자들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훌륭한 지도자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



지도 알고 계십니까?

기쁘찌 장로님은 여러분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의 놀라움과 십일조를 낼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지켜야 함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 위에 저의 증언을 더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십일조를 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축복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십일조를 내 주십시오.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이 사업이 참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간증 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회가 저의 육성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서 김치를 먹지 못합니다. 제가 한국에 다시 못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96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한분 한분이 꼭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핑클리 형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렸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위대한 우주의 지배자시라는 것과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신 사실을 그리고 언젠가는 위대하고 오묘한 방법으로 그분께서 자녀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대로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는 그의 높은 고결한 집을 떠나셔서 인간의 가운데로 오셨으며 사람들의 미움과 멸시를 받으시면서 그의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리셨

습니다. 인간들의 미움 속에서 그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지 3일 만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잠자던 모든 자 가운데 첫번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소년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경륜의 시대에 새로운 사업으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어느 경륜의 시대보다도 가장 훌륭한 꿈이 있는 경륜의 시대에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물문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 책은 온 세상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성을 알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거룩한 신권이 오늘날 다시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옛날에 사용했던 사람들에 의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의해서 직접 사람들에게 이양되었습니다. 하



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인상 장로는 옛날에 물문경을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가 번역하고 있던 때를 기억합니다.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스테이크 회장님들, 선교부 회장님들 모두 훌륭한 일을 행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내려가서 참석하신 여러분 한분 한분 손을 잡고 악수하고 싶습니다. 그리하면 저의 손은 다 닳아 버리겠지요. 앉아 계신 자리에서 사랑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복음대로 생활해 주십시오.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과 친절로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지지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여러분, 사랑과 친절로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래에

대한 책임이 여러분에게 달려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제 사랑하는 동반자 아내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할 때 늘 동행했습니다. 아내는 선교사들을 위해 초콜릿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제 아내는 김치도 먹습니다. 제 아내 생각이 간절합니다. 제 아내는 영원한 저의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만날 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모든 것을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이 자리에 만장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옵소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옵소서 하늘이 여러분을 향해 미소 짓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장수하시고 생애동안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지시길 기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겸손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인가 잊어버렸습니다. 고 장로에게 고맙다는 말을 잊었습니다. 이 대회를 위해 잘 준비하고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 장로와 함께 해주신 준비 위원회 여러분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폐회 찬송: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연합합창단)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위대한 음악가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도 한국 사람처럼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단히 훌륭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

‘한국 교회 50년사’ 주문

한국 교회 역사책 편찬 위원회에서는 2005년 연말에 발간될 ‘한국 교회 50년사’의 주문을 미리 받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50년사는 역사책, 화보집, DVD자료를 한 패키지로 구성하고 있으며, 최근에 우리를 감동시켰던 한국 헌납 50주년 기념 문화의 밤 및 한국 지역 대회 녹화 DVD가 추가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주문하는 경우는 3만원에 판매될 예정이며, 해외에서 주문하는 경우 항공 우송료까지 포함하여 5만원입니다.

‘한국 교회 50년사’ 패키지를 미리 주문하시는 신청자에게는 한국 교회 50주년 기념 문화의 밤 및 한국 지역 대회 녹화 DVD가 먼저 발송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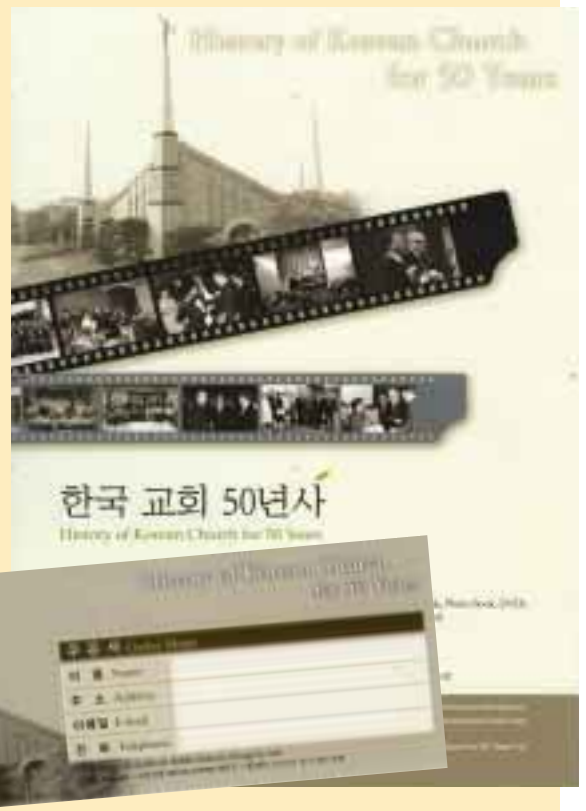
미리 주문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계좌 번호에 입금을 하고 와드/지부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관리 본부(서울 성동 우체국 사서함 22호 한국 교회 50년사 담당자 앞)으로 보내시거나, pakuk@ldschurch.org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은행명: 조흥은행

계좌 번호: 345-01-127976

예금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입금자의 성명은 반드시 주문자와 일치하여야 함)



힝클리 회장 초청 특별 저녁 만찬회

7월 31일 오전 11시부터 열린 한국 지역 대회는 많은 성도들의 가슴에 영을 가득 채워 주었다. 오전 모임이 끝난 후 저녁 6시에 메리어트 호텔 5층 체리룸에서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을 초청하여 신권 지도자 부부들이 함께하는 특별 저녁 만찬회를 가졌다. 저녁 식사 후 최현수 형제는 자리를 빛내는 아름다운 음악을 선물하였다. 음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은 평온한 마음을 지닐 수 있었다. 이어 고원용 장로는 전임 및 현임 신권 지도자들을 소개했다. 스테이크 회장, 선교부 회장, 성전 회장, 지역 칠십인 등 주님의 종으로서 충실히 봉사하였던 많은 신권 지도자들은 소개될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많은 사람들의 격려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 이어서 그 자리를 가득 채운 성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만 명의 성도들의 사랑이 담긴 선물을 고든 비 힝클리 회장에게 전했다. 선물은 거북선과 자개 쌍문 보석함이었다. 유타에 세워질 힝클리 역사 박물관에 선지자가 한국과 한국 성도를 향한 사랑을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기증한 것이다. 힝클리 회장은 한국 성도들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 지니고 있는 사랑을 표현했다. 한국에 올 때마다 기록했던 개인 일지를 꺼내 보며 말씀을 했

다. 초기 한국에서의 추억을 곱씹으며 옛 친구들을 만나는 이 여행으로 인해 3일은 짧어진 것 같으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였던 힝클리 회장의 건강은 여정을 시작했던 때보다 더 좋은 상태라며 성도들을 안심시켜 주었다. 힝클리 회장은 한국 지역 대회와 문화의 밤을 위해 애쓴 성도들을 격려하며 사랑을 전하였다. ■



힝클리 회장 방문

8월 1일 오전 9시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삼청 한옥을 방문 했다. 비가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명의 회원들은 우산을 들고 줄을 지어 선지자를 맞이했다. 차에서 내린 힝클리 회장은 건물과 주변의 경치를 둘러보며 잠시 옛 생각에 잠기는 듯 했다. 곧 안내자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선 힝클리 회장은 오래 된 추억 속에서 삼청동 한옥을 꺼냈다. 회원들에게 예전의 내부를 그려 주었다. 피아노가 있던 자리, 좋은 의자가 놓여져 있던 자리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좋은 의자가 도난당하지 않도록 의자를 지키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씀하여 회원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회원들에게 예전의 향수에 잠길 수 있도록 도와준 힝클리 회장은 바로 서울 선교부로 향했다. 9시 20분 서울 선교부에 도착한 힝클리 회장은 차안에서 손을 흔들며 힝클리 회장을 사랑하는 많은 선교사들과 회원들의 인사에 답하였다. 이어 9시 40분 서울 성전을 방문 하였으며 9시 55분 힝클리 회장은 다시 김포 공항으로 향했다. 10시

30분 공항을 도착한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선지자를 향한 지극한 사랑을 지닌 한국 성도를 뒤로한 채 11시 출국 하였다. ■





2005년 8월 3일~6일 3박 4일간 강원도 둔내 유스호스텔에서 고원용 장로의 감리 하에 전국 청년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모두가 하나 되는 전국 청년 대회의 목적과 더불어 한국 교회 헌납 50주년과 조셉 스미스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시간을 갖게 하였다. 특별히 '바통 터치'를 모토로 지난 50년의 한국교회 발전의 역사를 되짚어 보게 하며 앞으로 50년을 계획할 수 있도록 청년들을 독려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제주 지방부를 포함한 전국 스테이크와 지방부뿐만 아니라 해외의 한국 청년들과 한국에서 봉사한 외국 선교사들도 함께 하는 커다란 모임이었다. 첫날 함께 모인 청년들은 설레는 마음과 기대에 가득 차 개회식을 가졌다. 개회식이 선언된 후 20개의 마을 명칭은 하모니, 사스케하나, 콜스빌, 페이어트, 팔마이러, 맨체스터, 맨던, 커틀랜드, 하이럼, 암허스트, 인디펜던스, 리버티, 아담 온다이어만, 파워스트, 나부, 카테지, 가든 그로브, 윈터 퀴터스, 스위트 워터, 솔렉으로 조셉 스미스가 태어난 장소와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장소를 명칭으로 하였다.

개회식이 끝난 후 대대원들은 자신이 속한 마을로 들어가 모두가 함께 친해질 수 있는 기회로 '아이스

전국 청년 대회

일시: 2005년 8월 3일~6일

장소: 강원도 둔내 유스호스텔



브레이크' 시간을 갖게 되었다. 어렸을 적 한번쯤은 해보았을 게임들과 또한 황당하고도 재미있는 지령들로 대대원 사이에 있는 작은 울타리를 허물 수 있었다. 첫째 날 저녁에는 재능 있는 청년들이 준비한 'Come and See(와 보라) 축제'가 열렸다. 이 모임은 하와이에서 온 사물놀이 팀의 신명나는 놀이판으로 시작되었다. 교회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청년들이 복음을 널리 외칠 수 있도록 선교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길거리인터뷰를 시청하게 되었다. 많은 청년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성도의 책임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아름다운 성가, 가족 공연, 연극 공연, 에피소드, 댄스 공연, 밴드 공연, 영화 상영 CF 상영 등, 영을 느끼면서도 함께 박수치며 열광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지도자의 간증을 들으며 한국 교회의 지난 50년과 앞으로 청년들이 이끌어 가야 할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은 'LDS 명랑 운동회'를 통해서 다양한 스포츠를 즐겼다. 초등학교 때 했던 운동회를 떠올리며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 국민 체조 등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간 듯 모두가 재미있게 시작하였다. 이 모임에서 청과 백 양 팀으로 나뉜 20개 마을은 지축을 옮겨라, 기마전, 자매 계주, 나무 신발 달리기, 줄다리기, 형제 계주, 장애물 달리기 등 여러 가지 게임들을 통해 서로가 더욱 하나 될 수 있



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진행되었던 모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청년들은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또한 다양하고 즐거운 세미나가 있었던 '숨겨진 보물을 찾아서'에서는 모두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으며 둘째 날 마지막으로 진행되었던 '좀 잘해 봅시다'에서는 훌륭한 후기 성도의 부부들을 모시고 그들을 통해 독신들에게 좀더 성공적인 데이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며 데이트를 할 때 형제, 자매가 가져야 할 좋은 덕목과 태도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발표함으로써 흥미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 모임을 통





해 많은 독신들이 형제들은 자매들에 대해 자매들은 형제들에 대해 좀더 알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전했다.

드디어 셋째 날이 밝았다. 이 날은 몇 개의 마을이 한 조가 되어 강원도의 유명한 명소와 아름다운 자연을 여행 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설렘, 사랑, 행복 세 개 조는 각각 오대산, 소금강, 삼양 대관령 목장과 정선 된장 마을을 여행 하면서 서로가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 물론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며 더욱 힘을 줄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다고 전했다. 오대산을 다녀 온 청년들은 전나무 숲에서 자연을 느끼며 마음을 정화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정선 된장 마을을 여행한 청년들은 오랜만에 맨발로 숲길을 걸으며 구수한 된장의 향을 느끼면서 감미로운 첼로 연주와 함께 자연과 동화될 수 있다고 하며 소금강 구룡 폭포를 여행한 독신들은 물놀이를 할 수 있어서 오랜만에 시원함을 만끽했다고 전했다. 이 날 저녁은 '즐거운 밤'이라는 제목으로 청년 대회 꽃이라 불릴 수 있는 무도회가 열렸다. 갑자기 비가 와서 모두가 많이 걱정했지만 고원용 장로와 모든 청년들의 기도로

인해 비는 곧 그쳤고 모두가 즐겁게 무도회를 시작할 수 있었다. 많은 청년들이 즐겁게 무도회를 즐겼고 무도회 도중 마술 공연과 밴드 공연이 함께 하면서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흥을 더욱 북돋아 주었다. 새벽 1시까지 계속 된 무도회에서 모두가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 날 각 마을별로 간증 모임을 가졌다. 대구 스테이크 상인 와드의 차지혜 자매는 모든 모임에서 영을 느낄 수 있었으며 바람은 단 1초도 불지 않은 때가 없듯이 영 또한 마찬가지로 전했다. 또한 그 느낌이 미세할지라도 잘 준비되어있다면 우리들이 느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많은 청년들의 간증을 통해 서로의 간증이 배로 증가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폐회식이 시작되었다. 이날 폐회식에서 민혜기 장로는 신앙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경전을 신뢰하고 영적인 느낌이 올 때 그것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교회임을 확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고원용 장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있는 우리의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하였으며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하고 그분을 닮아가라고 강조하면서 3박 4일간의 청년 대회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날 모두의 표정에서는 조금 더 잘 참여했으면 또는 조금 더 잘 진행했으면 하는 모습들을 통해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다음에도 청년 대회에 꼭 참석하고 싶다는 많은 청년들을 보면서 그들이 3박 4일 동안 주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다. 청년들의 모습 속에서 피곤하지만 즐겁고 행복한 대회이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고, 한국과 멀리에서 온 모든 청년들이 영적으로 풍성해 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장효정 기자) ■

50주년 행사를 마치며

고원용 장로, 50주년 행사 준비 위원장



50주년 기념 행사가 끝난 다음 주 금식 간증회에서 우리 집 딸이 “50주년 기념 행사를 계획한다는 말을 아빠에게서 들었을 때 아빠가 미웠습니다. 왜냐하면 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테니까요”라고 간증하였다. 뒤에서 이 말을 듣는 저의 머리 속에는 이번 기념 행사를 위하여 수고한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갔습니다. 그렇지요. 아마도 제가 미웠으리라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이 고생을 시켜드리고 힘들게 했으니까요.

50주년 기념행사를 기획한지 2년, 그리고 문화의 밤을 중심으로 실제 연습을 시작한지 1년 동안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셨습니다.

해외에 있는 귀환 선교부 회장들과 연락하며 참석자를 파악하고, 그들의 여정 및 숙박 등 여러 분야에서 필요한 사항을 챙겨야 했으며, 또 전국 33군데에서 이들을 맞아 음식과 모임을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하신 분에 못지않게 더운 여름에 가족들과 함께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서 찾아오신 귀환 선교사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의 밤을 위해 수고한 셀 수 없이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문화의 밤을 준비할 때 저희들은 두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째, 이 활동이 이번 행사로서만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전국의 여러 지역이 골고루 참여하고, 둘째, 회원들의 부담을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각 스테이크 및 지방부 별로 임무를 나누어 맡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이 필요로 하는 합창단은 전국 규모로 다른 활동은 지역적으로 분담이 되도록 최대한 계획을 하였습니다.

연령적으로는 초등학교 어린이부터 청년, 청년, 독신 성인, 상호부조회 어머니, 할머니를 포함한 성인 형제, 자매까지, 또 지역적으로는 전국의 모든 스테이크와 대부분의 지방부가 참여하였으며, 문화의 장르는 독창, 중창, 합창, 오케스트라, 연극, 뮤지컬, 전통 공연, 댄스 스포츠, 영상, 애니메이션 등 실로 다양한 문화의 축제를 이루었습니다. 여기에 하와이의 최초의 한국인 가족이 참여하였고, 귀환 선교사들과 귀환 선교부 회장들이 함께 참여한 국제적인 행사이었습니다. 또 이 모든 순서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매끄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히 그동안 연습한 것을 최선을 다해 보여드리려는 출연자의 열망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연습에 참여하여 주신 여러분들, 이들을 지도해 주신 여러 교사 및 역원들, 뒷바라지를 해주신 가족들, 그리고 훌륭하게 시설을 준비하여 주시고 진행을 도와주신 전문 업체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감격적인 것은 살아 계신 선지자 고든 비 힝클리 회장께서 한국 땅을 다시 찾아 주신 것이었습니다. 95세의 노구를 이끌고 대회장의 문을 들어서시는 그분의 모습을 본 순간 성도들은 기쁨의 눈물, 반가움의 눈물, 안전하게 도착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벅찼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선지자를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모임에는 전국의 성도들이 많은 이웃과 친척, 친지들과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이제까지 한국에서 가진 대회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에 계시는 성도들은 버스를 타고 새벽 일찍부터 올라왔고, 서울에 있는 성도들은 이들을 가정으로 초대하여 잠자리를 제공하는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이 또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안내, 경호, 주차 등 대회 진행을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방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직접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위성중계를 통하여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기쁘기도 아쉽기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멀리서나마 함께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감사를 드려야 할 분들이 빠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마지막까지 행사를 마무리하고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수고하신 기자들, 사진과 비디오를 찍기 위하여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또 이 모든 일들을 위해 늘 함께 해주시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도해 주신 수많은 신권 지도자 그리고 역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빼 놓을 수 없습니다. 이 일은 혼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되었고, 여기에 주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행사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에 속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한 “자부심을 키워준 대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의 감격을 되새기

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감격의 글을, 감사의 글을 보내고 있습니다. 뜨거운 간증의 글들을 계속하여 리아호나를 통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50주년 기념행사는 막이 내렸지만 이 경험과 감동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스테이크와 지방부에서 여러 다양한 활동들이 계속하여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음악축제, 민속축제, 댄스 축제, 연극/뮤지컬 축제, 영상 축제 등 장르별로 여러 축제가 해를 번갈아가며 전국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재능을 발전시키고, 교회 안에서 신앙과 간증을 키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념행사를 통하여 한국의 시온의 백성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 아름다움이 지속되기를 아니, 더욱 아름다운 옷을 입도록 노력하여 “그 경계가 넓어져야 하고, 그 스테이크가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본에 거주하기에 자주 뵈 수 없어서 아쉽지만 “많은 어려움과 고생을 시켜드린” 형제의 감사의 인사를 받아 주시기를 바라오며, 주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영동 스테이크

잠실 와드 감독: 최기동(전임: 김도균)

새로 헌납된 교회건물

서울 선교부 회장 사택

주소: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준공일: 2005년 7월 4일 헌납일: 2005년 7월 16일

건축면적: 223.65㎡ 연면적: 388.25㎡

부지면적: 2,463.7㎡

2005년 7월 16일 오전 11시 고원용 장로의 감리로 서울 스테이크 청운 와드 소재에 있는 서울 선교부 사택 헌납식이 있었다. 서울 선교부 샬러스 선교부 회장 내외와 서울 서 선교부 회장 내외, 각 스테이크 회장, 사택을 짓기 위해 수고한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자리를 빛냈다.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서 봉사하는 고원용 장로는 교리와 성약 1:30(유일한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한국땅에 전해준 선교사들과 헌신한 성도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또한 건물이 항상 영이 함께 하고 위협에서 보호되며 선교본부로 선교부 회장의 생활터로 감사히 사용되도록 헌납 기도를 드렸다.(곽채림 기자)



삼청 한옥

주소: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5번지

준공일: 2005년 7월 12일 헌납일: 2005년 7월 23일

건축면적: 791.62㎡ 연면적: 821.33㎡

부지면적: 3,885㎡

2005년 7월 23일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서 봉사하는 고원용 장로를 감리자로 하여 삼청 한옥 건물 헌납식을 가졌다. 여러 스테이크 회장과 서울 선교부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스테이크 회원들과 삼청 와드 회원들이 함께 하였다. 특별히 고 장로는 헌납기도에서 삼청 한옥이 교회의 좋은 유적으로 남으며 한국 교회 역사를 잘 보존하는 장소로 사용되도록 간절히 기도드렸다. 한국 교회 초기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던 장소로 그 의미가 큰 삼청 한옥은 서울 스테이크 사무실로 사용되며 또한 역사 전 시설이 항상 개방되어 있다.

